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중국을 주개로

1996년 1,2월



**특집 / 제 3세계에서의
중국선교**

세미나 지상중계 / 중국의 도시선교
인물연구 / 1917년 중화민국 선교사 홍승한 목사(II)
중국의 省 / 강소성·안휘성·절강성
중국문화 / 홍빠오(紅包)에 나타난 인정

선교운동 · 성모애송 · 선교사 안식과 후생 및 각종 세미나를 위한

성광선교센터



• 선교정보 자료실
선교지역 및 종족, 선교단체,
선교활동 및 전략 등에
관한 문서자료와 비디오
자료 구비



• 도서관
선교 및 신앙 관련 도서

• 레스토랑
저렴한 가격의
정성이 담긴 음식



• 외국어훈련원
(F.L.T.C)
현대식 LAB 시설완비

• 게스트 하우스(특실)
TV, 냉장고, 욕실, 주방



• 세미나실
30~200석까지 다양

• 게스트 하우스
냉난방 완비된
온돌 및 침대방



• 유치원
선교사 자녀 100%
장학금(단, 국교부터
교교생은 50%)

• 의료봉사
선교사 가족 무료진료
(내, 외, 치과)
의료봉사진 : 필립
선교회, 길선교회)



♣ 교통편

주안역에서 5번 41번
마을버스 1번
인하대 후문 한 정거장
전에서 하차(20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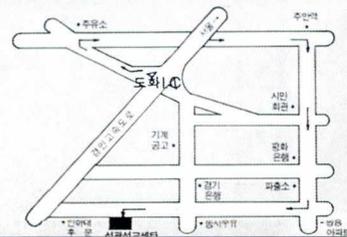
성광선교센터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4동 89번지

양 치 호 목사

TEL : (032) 872-2336~8

FAX : (032) 862-0642



눈높이 선교

이동화

시중에 ‘눈높이 수학’이라는 어린이 학습지가 있다. 처음에는 ‘눈높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의아해했으나, 이 학습지에 관한 광고를 접하면서 그 교육 정신이 매우 성경적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광고에는 어린이 곁에서 무릎을 꿇혀 키를 낮춘 자세로 그림을 감상하는 ‘눈높이 선생님’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학습지의 교육정신을 잘 보여준다. 즉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어린이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올바른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눈높이 교육에서는 어린이의 사고나 행동, 그리고 습관 등에 기초하여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해하다’는 뜻의 영어 ‘understand’는 under와 stand의 두 가지 합성어이다.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 이해의 핵심인 것이다. 또한 눈높이 교육에서는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줄 것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어린이 스스로 소질이나 흥미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높이 교육광고에는 ‘키를 낮추고 마음을 열고 눈높이 사랑을 실천합니다’라는 광고문안이 즐겨 쓰인다.

나는 이러한 눈높이 정신이 선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그동안 고압적인 선교, 돈 선교, 전시선교 등 이른바 ‘우리식 선교’에 익숙해 왔다. 피선교국 국민이나 교회에 대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선교는 아니다. 이제 우리의 선교도 ‘눈높이 선교’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이 눈높이 선교로 무장한 ‘눈높이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야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눈높이로 우리를 이해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눈높이 선교는 ‘성육신의 선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눈높이 선교를 실천하신 눈높이 선교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여리고 도성에서 강도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으로 선택 사마리아인을 품으셨다. 거기서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지 못했다. 선교사라는 우리들도 차치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들의 사역이 피선교국 형제자매들의 눈에 ‘선교사업’으로 비쳐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의 이웃으로, 친구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높이 선교’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중국을 주제로 목차

1996년 1, 2월호

특집 / 제3국에서의 중국선교

- 18 중국선교와 중국인 선교 예보람
- 22 남양군도에 번지는 중국선교 열기 편집부
- 26 중국인이 있는 그 어디나 나의 선교지입니다 권수영
- 32 좌담회 국내 중국인 선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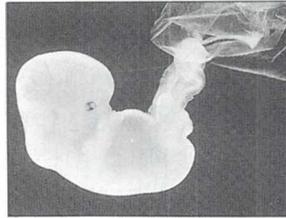


선교 나침반

- 4 선교일언 전호진
선교의 재고가 요청되는 중국의 상황
- 6 중국 교회 체험기 김중구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부활로
- 10 중국 교회 현주소
어깨는 무겁고 갈 길은 먼 중국의 신학교육
- 44 세미나 지상중계 이문식
중국의 도시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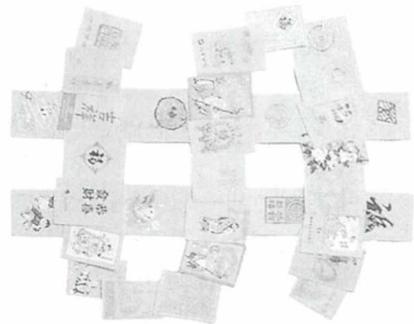
중국은 지금

- 50 변화하는 중국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
-사고 팔리는 낙태아와 사형수의 장기들
- 100 中國大事記 중국의 이런 일 저런 일



중국을 알자

- 54 중국의 省(3) 근대 신앙의 고도(古都)
강소성 · 안휘성 · 절강성
- 60 중국문화
홍빠오에 나타난 인정



현신의 삶

- 38 말씀묵상 이만열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힘
- 41 문화적응 김상희
선교사의 언어학습을 중심으로
- 64 대륙성도의 간증 張新生
환상 속에서 살았던 나

인물·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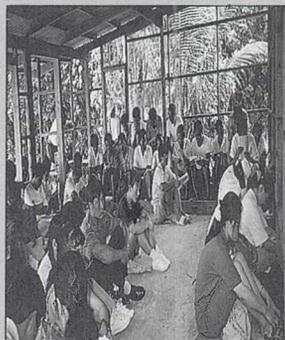
- 68 중국선교사의 간증(9) 허드슨 테일러
하나님의 손길
- 76 인물연구(4) 김교철
1917년 중화민국 선교사 홍승한 목사(II)

세계선교

- 92 세계선교 동향 루이스 부시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



- 1 발행인 칼럼 이동화
눈높이 선교
- 14 중국 교회 소식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16 선교중국어 차이나
新年有何新計劃?
(새해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49 시사만평 「현대중국의 고양이」 외
- 73 묵상의 샘
나의 약함과 실패를 인정하라
- 74 중국선교의 발자취 방지일
타국 선교사들과의 유대
- 84 중국영화 감상 이홍자
귀주 이야기
- 86 나의 사랑하는 책 모소명
허드슨 테일러
- 88 신간도서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89 중국어로 찬양을
神啊我心堅定於你(오 주여 나의
마음이)
- 90 선교단신
- 96 중국은 지금 **최근 중국동향**
별책부록
‘중국을 주께로’ 기도캘린더



표지설명

‘중국이 아니어도 중국인 선교를 할 수 있다!’
남태평양의 한 작은 섬에는 선원, 근로자로 온 대륙인
들이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
리고 있다. 누가 이들에게 가서 ‘중국선교’를 할 것인
가?

선교의 재고가 요청되는 중국의 상황

전호진

필자는 지난 8월 중순 세미나차 중국을 다녀왔다. 방문 중에 관심을 가진 것은 우선 안 목사 납북사건과 관련된 각종 소문과 중국의 경제, 사회 상황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의 경제, 사회적 상황

현재 중국은 경제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외신도 아시아의 작은 용들은 어머니 용의 눈치를 살핀다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아시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을 지적한 것이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에는 '인구 10억에 상인 9억'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8월 중순 중국에서 발행되는 한 영자잡지에 실린 '중국의 사회적 위기'라는 글에 보면, 지금 중국에는 백만 명의 백만장자가 있어서 외국의 고급 호텔에서 즐기는 반면, 7천만 명의 농민들은 1년에 한 가정이 인민폐 450원(한화 45,000원)의 수입으로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심각한 사회적 불안요인을 시인한 것이다.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자 노는 땅이 늘어나 한 한국인 선교사가 수만 평의 땅을 중국 정부로부터 임대받았으나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염려하고 있다.

중국사회가 안고 있는 또다른 고민은 가정의 붕괴이다.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에 의한 자녀의 과보호와 대부분 맞벌이 부부로 자녀

를 돌보지 못함으로 '새로운 고아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이들의 인성 파괴문제가 중국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미 중국의 아이들이 극히 소극적이고 이기적이 되어간다고 식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교회성장과 영적 상황

최근 중국은 안 목사 납치사건을 계기로 한국 교회의 선교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백두산에 오르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애국가나 만세 제창, 태극기 소지를 철저히 감시하며 교인들의 집단적인 찬송과 기도마저도 차단하는 실정이다. 안 목사 납치 사건으로 연길시의 많은 한국 선교사들은 은신상태로 돌입했고, 일부 선교사들은 조선족 선교에서 한족(漢族) 대상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하고 중국어 공부에 열심이다.

연길에는 약 250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는데, 현재는 선교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선교사들끼리 모이는 한인 교회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지방별로 감시의 정도 차가 있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와 집회를 인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중함이 요망된다. 일부 조선족 교회는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 교회의 재정적 도움으로 교회당을 짓기도 하며, 현재 연길교회는 공사중이다.

특이한 사실은 근래 중국 정부가 한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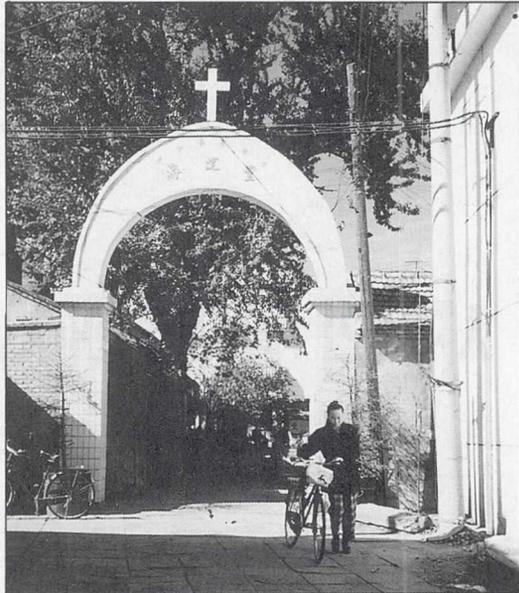
를 통해 기독교 신자 통계를 발표했는데, 수 천 만이 되는 것으로 시인했다고 한다. 영국 WEC에서는 중국의 기독교 신자를 3천만 명으로 보는 데 반해, 중국정부는 통계에 의해서보다 많은 4천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중국의 기독교인이 날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공산당도 기독교로 인한 내부 붕괴를 두려워한다는 소문도 있다.

연경 신학교에 있는 한 조선족 교수에 따르면, 이미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공산주의 이후의 중국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염려한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일부 비기독교 학자들도 공산주의 이후의 중국은 기독교를 공산주의의 대체 이념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까지 한다고 한다. 반면에 유교나 중국의 전통사상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한다. 지금 중국은 유교로의 복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미신도 성행한다. 결국 중국에 기독교와 유교의 대결이 가까이 왔다고 본다. 일부 학자나 식자들은 중국에서 사실상 공산주의는 끝난 셈이지만 통치와 국가 통합의 수단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한다고 말한다.

중국선교의 재고

이번 안 목사 납치사건으로 인해 중국선교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전(前) 주중 황병태 대사는 우리 방문단을 접견하면서, 안 목사 사건을 계기로 한국 교회가 선교 경쟁을 지양해 줄 것을 부탁했다. 중국정부는 안 목사가 북한에서 석방되어도 중국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항의하던 한국정부와 교회의 입장이 오히려 난처하게 되었다. 중국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선교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중국선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한국 교회는 중국법을 존중하면서 선교해야 한다. 중국선교는 한국 선교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만을 버려야한다. 중국 교회의 성장은 자생적인 성장이었다.



중국정부는 공식적인 통계조사를 통해 현재 중국에 수천 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베이징(北京)시 해정당(海定堂) 교회.

2) 동북 3성지역에 집중된 조선족 상대의 선교는 분산되어야 한다. 다행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선교사들은 한족 중심의 선교를 위하여 어학공부를 하거나 타지역으로 떠났다고 한다.

3) 경제적 지원을 앞세우는 선교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삼자교회보다 가정교회가 더 순수하다고 동정론을 펴는 자들이 있으나, 최근 오히려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의 후원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오히려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중국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자립의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한국 교회는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4) 현재의 동북지역 조선족 중심 선교에서 탈피, 서남지역 등의 미전도종족 선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5) 도시선교를 할 경우 대학가에서 중국인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거나 지성인 신자들을 신학적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요구된다.

6) 효과적인 중국 선교를 위해 선교사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아울러 파송교회나 선교회의 불분명한 개인위주의 선교는 지양되어야 한다.

전호진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총무

아세아연합신학대학(ACTS) 선교학 교수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부활로

김종구

애덕기금회(The Amity Foundation)는 '90년부터 매년 부활절을 기해 중국 교회 부활절 참관여행을 주관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 교회 대표들을 비롯, 세계 교회의 중국선교 담당자들이 이 여행에 참여하는데, 올해에는 8개국 13명의 대표들이 산둥성 일대 교회에 참가하여 중국 그리스도인들과 뜨거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다. 이 글은 이 여행을 조직하고 함께 참가했던 김종구 목사의 부활절 참관기이다.

우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무도 다시 세상이 동터오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못하였다. 그토록 투철한 신앙을 가진 듯 했어도 그들은 골방으로 숨어 숨어 들어갔다. 그러나 새 역사는 용기 있는 자의 것, 미래를 보는 이의 것이었다.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은 살아 생전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되새기며 이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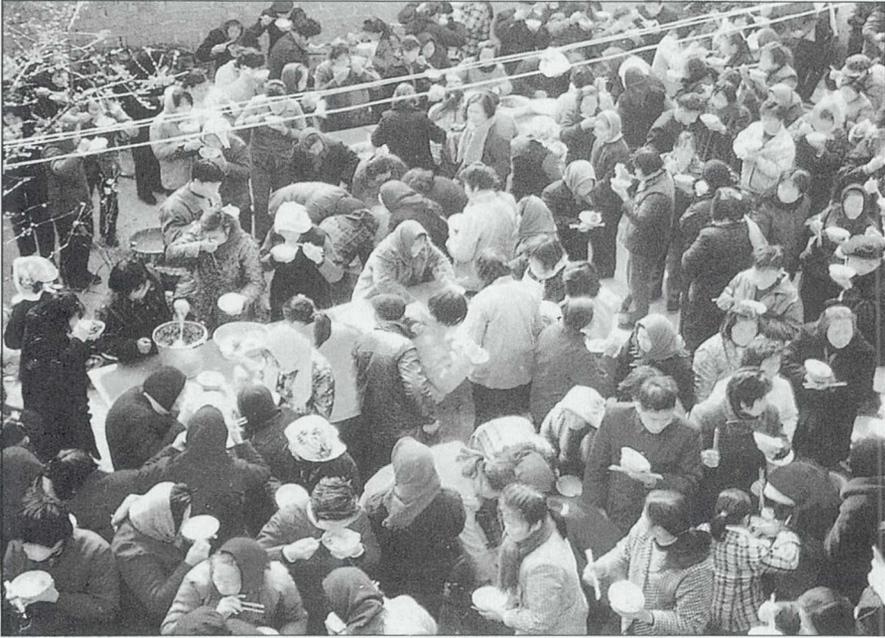
친척도 재물도 부모도 마다하고 따라다니던 그 세월은 일장춘몽이었던가? 그분의 말씀대로라면 이제부터 세상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은 일어섰다. 그들은 주님 묻혀 계신 그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복되도다! 주의 일을 행하는 자의 발걸이여! 하나님께서 그 용기 있는 발걸음에 축복하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전파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셨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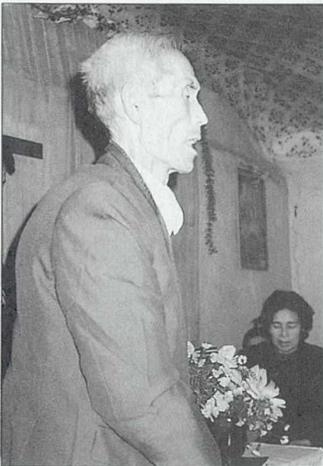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맞이하는 소감은 명실상부하게도 감격 그 자체로 보였다. 어쩌면 예수 부활의 소식은 중국 교회의 부활 소식과 그렇게 닮았는가? 많은 간행물을 통해서 그들의 기쁨은 부활의 간증으로 터져 나왔고 그 기쁨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과 더불어 중국 땅에 새로이 기지개를 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음을 굳이 신학적인 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우리 일행은 이렇게 살아있는 부활 신앙의 현

장을 보기 위해 다소 들뜬 마음으로 부활절 아침, 산둥성 린취(臨沂)시의 진취산(金雀山)교회를 찾았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던 여인네들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산둥성에는 약 6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30만명이 린취시에 있을 정도로 린취시는 복음 전파의 열기가 뜨거운 곳이었다. 우리들은 예배 시간 한 시간 전인 8시 30분경에 교회당에 도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매우 북적이고 있었다. 교회는 중심가에서 다소 외진 곳에 우뚝 서 있었다. 교회당 밖에서는 경찰차로 보이는 사람이 제복을 입고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매주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매주 경찰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과연 다른 중국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예배 시간 두세 시간 전에 이미 예배당이 꽉 찬다고 했다. 교회당 바깥 마당에 온통 사람들로 가득 차서 우리들은 외국인의 방문이 드문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구경을 나온 것으로 생각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중국의 교회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과 함께 중국 땅에 새로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상하이 청푸현(靑浦縣) 교회의 성도들이 춘절(春節-음력 설)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고 있다.



였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안내를 받으며 교회 접견실로 가는 동안 예배당 안을 볼 기회가 있었다. 뻑뻑하게 들어차서 어디 한구석 들어갈 틈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을 수밖에 그들은 예배 시간에 부를 찬송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 이것은 중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 예배 시간에 부를 찬송을 예배 시간 전에 배우는 것이다. 새신자가 많기도 하고 할머니 신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우리는 접견실에서 교회의 진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몇 분의 임원들과 인사하고 린취시의 기독교 현황과 린취산교회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 이 교회는 원래 미국 북장로교에서 세웠고 이 지역에는 이전에 약 4개 교파의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하였단다. 지금은 모

든 교파가 협력하여 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매우 좋다고 하였다. 1986년 교회가 다시 개방되었을 때 원래의 교회당을 찾고 거기에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였다. 그때 정부에서 교회당이 너무 좁으니 교외로 가서 넓찍하게 지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여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1987년에 지금의 교회당을 건축하였는데 대단히 아름다운 예배당이었고, 약 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교회당도 좁아서 옆에 부속 건물을 다시 짓고 있다고 했다. 교회당 건축은 전적으로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 교회와의 접촉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했으니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건축 당시 중국 돈으로 30

만 원(한국 돈 3천만 원, 그러나 당시 중국에서의 30만원은 어마어마한 액수였을 것이다)의 경비가 들었으니 교인들의 수고와 땀방울, 그리고 성전에 대한 애착이 눈에 선했다.

예배 시간이 되어 우리는 특권을 얻어 예배당 맨 앞자리로 인도되었다. 우리들이 들어갈 때는 찬송가 배우는 시간이 끝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에 코끝이 짙해왔다. 창문 밖에는 예배 광경을 지켜보고자 매달려 있는 어린이들로 또한 뻥뻥하였다. 출입문은 사람들로 인하여 닫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예배당 안은 화려한 부활절 장식은 보이질 않고 단지 현관과 강대상 위에 “예수 부활하셨네!(主耶穌復活了!)”라는 장식문이 걸려 있었다.

예배는 인도하는 전도사님(장진순 전도사, 25세)의 뜨거운 기도로 시작되었다. 신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의 매 소절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상해의 화동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장 전도사님의 예배인도는 확실히 열정적이었다. 이렇게 열정적인 예배 인도를 중국에서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인도하는 찬송에 따라 회중은 춤을 추는 듯한 열정으로 함께 따라했으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몸을 심하게 흔들면서 찬송을 부르곤 있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이 목회 기도를 하셨다. 아마 목사님께서 연로하셔서(그는 이미 70세가 넘는 분이였다) 설교 대신 목회 기도를 담당하는 듯했다. 짙은 산동방언으로 하시는 기도라 잘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누구에도 불구하고 정열적인 기도를 하시었고 회중들도 간절히 순간 순간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성가대의 찬양은 엄숙했고 대원들은 기쁨에 넘치는 찬양을 하고 있었다. 대원들 중 몇몇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이영태(李榮太) 전도사님의 설교가 있었다.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20:1~8과 마태복음이었었는데 역시 전체적인 예배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매우 열정적인 설교였다. 대략의 내용은 예수부활의 증거와 의미에 대한 것이었다. 부활의 증거는 구약성서의 예언, 예수님 제자들의 갑작스런 변화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들의 부활이므로 빨리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자는 내용이었다. 「The New Testament」의 앞글자를 따면 TNT가 되듯이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

자고 성도들에게 당부했다. 약 30분 간 행해진 설교는 일반적인 중국 교회의 설교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었다. 기도 시간에 비해서 설교 시간은 전혀 “아멘”의 화답이 없이 매우 조용한 것이 특색이었다. 아마도 너무도 집중해서 듣는 탓이었으리라.

그들의 찬양은 매우 중국적이다. 중국적인 가락은 상당히 단순하고 투박한 맛이 있어 젊은이나 노인들이나 모두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가장 많이 들은 찬송가는 “시편 23편”에 중국 가락을 붙인 것으로 우리들이 방문을 기념하여 찬송을 부르면(우리 일행은 버스 안에서 그리고 숙소에서 날마다 그날 그날의 찬송가를 연습했었다) 그들은 즉흥적으로 답송을 해주었는데 그 대부분이 시편 23편이었던 것이다. 매우 긴 찬송가인데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없이 다 외워서 부르곤 하였다.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어느 지방



가릴 것없이 전부 눈물 바다가 되었다. 짐작케 생긴 중년 남자들마저도, 무엇이 이토록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일까? 원인을 물어 본다는 것이 다소 사치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들로 하여금 눈물을 쏟아지게 하는 구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암흑의 시기를 통하여 해로움보다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중국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는 큰 체험을 전 기독교인이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어쨌든 그들도 울고 우리 일행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중국 그리스도인들의 뜨거

정으로 보았으며 그들의 교주를 ‘가장’으로 모시고 가장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가부장적 질서를 토대로 유지되었다. 이후 약 8개 성에 걸쳐 6천여 명의 신도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후 예수가정은 지도층의 부패로 말미암아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전락해 갔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신도들이 이전의 예수가정 출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일까,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받았던 그 환대와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눈물은 적어도 다른 지방과는 현격히 달랐다.

길거리에 나온 모든 교우들이 눈물을 지으며 손을 흔드는 감동스런 이별 장면을 뒤로하고 우리들은 차에 올랐다. 세계 어느 곳에서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부인을 이렇게 온 교회가, 온 신도들이 나와서 눈물나는 환영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신앙안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눈물의 기도, 오늘의 중국 교회를 이토록 뜨겁게 부흥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그것이었다.



오늘의 중국교회를 성장시킨 것은 고난과 죽음의 시련을 통과한 성도들의 눈물어린 기도였다. 선양(沈陽)시 외곽의 한 조선족 교회 예배 광경.

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 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였다.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의 눈물이 아니라 민족적인 수난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중국인으로부터 배척받던 교회가 온 백성과 함께 고통당함으로 중국인과 하나되게 하여 오늘날과 같은 부흥 성장을 이루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일반 중국 민중들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10여 년간(문화대혁명) 해매

은 민족적인 신앙에 감동하여 하염없이 울었다.

산동성 교회에서 느낀 하나의 특색이라면 ‘예수가정(耶穌家庭)’의 전통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이 있다. 예수가정은 1920년대 산동성에서 출현한 토착교파로서, 그들은 초대교회처럼 신자들의 공동생활과 공동노동, 공동분배를 실시하고 엄격한 영적훈련을 실시하며 꿈과 환상을 통한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것에 치중하였던 무리들이다.

그들은 교파 전체를 하나의 가

김중구/애덕기금회(愛德基金會) 해외간사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선교사

애덕기금회(The Amity Foundation)는 1965년 설립된 비정부간단체(NGO)이다. 중국 교회의 대외창구로 해외 교회와 선교단체의 중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이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애덕기금회는 성경, 찬송 출판, 사회복지, 교육, 보건, 의료사업, 농촌개발사업, 구제사업 등을 해외 교회의 도움으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어깨는 무겁고 갈 길은 먼 중국의 신학교육

멀고도 험한 중국의 신학교육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기독교의 발전은 매우 뚜렷했다. 신도 수는 중국 공산화 전의 70만 명에서 1995년에는 1천만 명(국무원 통계)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 교회는 교회의 점진적인 발전과 동시에 사역자의 노령화와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광둥(廣東)성이 그 한 예이다. 광둥성 기독교협회(廣東省基督教協會) 회장과 신학교 총장을 겸하고 있는 황광야오(黃廣堯)에 의하면, 현재 광둥성의 기독교 신도 수는 약 18만 명인데 비해 교역자는 433명(목사 126명, 전도사 307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교역자와 신도의 비율이 1대 415(목사와 신도의 비율은 1대 1428)나 되는 것이다. 도농(都農)간의 격차까지 감안한다면 교외나 농촌 교회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사실 대다수의 농촌 교회들이 사명감을 가진 사역자들을 의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자격을 갖춘 교역자의 부족현상은 현재 중국의 기독교 사역자 양성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앞으로 교회가 이단의 만연을 방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와 교회 자체의 건전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교 사역자 양성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사역자들의 노령화와 부족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반우파 및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신학교육이 일정기간 중단되었다가, 1980년대 초에 들어서야 서서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중국 교회 사역자들 사이에 중년층이 비게 된 것이다. 연로한 교역자들이 은퇴하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가 되면 순전히 젊은 교역자들이 그 뒤를 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신학교육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

'80년대에 들어 교회 문이 열리고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이후, 전국 각지의 신학교역시 잇달아 복교와 창설을 해 현재의 13개로 발전했다. 이들 신학교는 자원, 개설과정 및 학생 모집 규모에 있어 전국(全國), 지역(地區), 성구(省區)로 구분되어 있다. 그 중 전국성을 띤 난징(南京)의 금릉협화신학원(金陵協和神學院)은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4년제 본과 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제 연구과정(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그 외에도 상하이(上海)의 화동신학원(華東神學院)과 같은 지역별 신학원 5개, 광둥협화신학원(廣東協和神學院)을 포함한 7개의 각 성(省)별 신학교가 있다. 그러나 이들 신학원은 기숙사, 도서관 등 설비나 교수의 수준, 학생의 자질 방면 등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

지역별과 각 성별 신학원에는 다만 4년제 본과 및 2~3년제의 전문과정이 있을 뿐이다. 대다수 졸업생들은 2년 내지 3년의 수업만 마치면 곧장 사역자로 향해야 한다. 필자가 1년



시급한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 공식 신학교 외에도 소규모 신학반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꾸이저우(貴州)성 리우판(六盤) 기독교 신학반의 개학식 광경이다. 신학생들은 이 과정을 마치고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

제 사역 연수반 학생들을 많이 만나 보았는데,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배워 더 철저히 무장하길 원했다. 그러나 교회에 일손이 시급하니 어쩔 수가 없다. 신학교에 남아서 2년 정도 더 공부한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다.

교회에 대한 수요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있는 13개 신학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신학교를 설립해야 함은 더이상 말할 나위도 없다. '95년 4월 말 난징(南京)에서 열린 중국복음사역자문회의(中國福音事工諮詢會議)에서 중국기독교협회회는, 적어도 각 성에 한 개소의 성경학교를 설립하여 부족한 사역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의 관건은, 현 시점에서 지금의 교수진만으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수요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장기간의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중국 꿈의 원만한 실현

'97년이 다가옴에 따라 최근 홍콩 교회는 중국사역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각 교파가 앞을 다투어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 모로 중국 교회와 교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홍콩 교회가 접촉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중국 공산화 이전의 종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교류활동을 통해 홍콩의 각 종파 지도자들과 신도들은 중국 교회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현장경험도 얻게 되었다. 또한 중국 교회는 본당 및 교육관 건축과 증축 방면에서 홍콩 교회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홍콩 교회는, 물질적으로 중국 교회를 돕는 경험을 통해 교회 모델 및 양육 경험에서 중국 교회와 홍콩의 상황을 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사역자를 훈련하는 책임에 있어서도 담당할 몫이 크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홍콩의 신학교는 중국 신학 교육의 수요를 통찰하고 여러 방면의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 금년 들어 중국과 홍콩 두 지역의 신학교육 교류는 자매결연 식의 방문 차원을 넘어,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 신학원이 청년 교수 육성에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 홍콩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중국 신학교의 젊은 교수 현황

을 보면, 극소수만이 금릉협화신학원의 연구 과정을 거쳐 외국유학을 마친 후 금릉협화신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기타 지역 및 성(省)의 신학원 교수들은 소수만 연구과정을 마쳤을 뿐 대다수는 대졸 수준 정도이다. 교수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신학생 교육의 효과도 커지므로 교수 양성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을 만큼 시급한 문제이다.

중국 내 인재양성 방면에서 홍콩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만의 건도신학원(建道神學院)은 문서방면에서 중국의 신학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여름방학을 이용해 학생들을 중국에 보내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사역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작년에 광주시기독교양회(廣州市基督教兩會)와 협의를 마쳤다. 금년에는 베이징(北京) 연경신학원(燕京神學院)의 청년 교수 두 명을 홍콩의 신학교에서 6개월 간 교육, 교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기독교협회는 '95년에 윈난(雲南), 산둥(山東), 산시(陝西)에서 3명의 사역자를

과견, 루터신학원에서 2년간 연구토록 했다. 우리는 중국 내 신학원 교수들을 훈련시킴으로써 성경 및 신학에 대한 지식을 높여주고 귀국 후에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머지않아 교회 및 신학원간의 교류는 점점 빈번해질 것이고 더 깊은 협력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97년이 임박하면서 일부 홍콩 교회가 공포감이나 무기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되찾아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앞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마음속 깊이 중국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홍콩 신도들에게 실천의 기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축복 속에 내재된 위험

조국애를 품고있는 많은 홍콩인들은 중국의 현대화에 따라 홍콩이 백 년 간 쌓아온 경험과 자원이 중국의 귀감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중국을 섬김에 있어 마음에 가득한 열정만으로는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신학교육의 교류 역시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현재 중국의 신학교육 상황을 보면 교사의 자질이나 학생 수준, 도서 및 기숙사 설비 등 모든 면에서 홍콩 및 해외의 신학교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양육훈련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과거 일부 서양 선교사들이 무의식 중에 문화적 우월감을 중국에 전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시시각각 자신을 되돌아보아야만 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혹시 우리 중에 중국을 향한 지나친 열정으로 단시일 내에 중국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든다던가 순쉬운 방법을 사용해 중국 형제자매들의 장점을 무시한 적은 없었던가?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을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무지한 무리'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상하이 화동신학원은 3년제 신학전문반과 1년제 성경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내 예배와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학생들.





해외의 신학교와 비교할 때 중국 신학교의 교수 자질, 설비 등이 훨씬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들을 도우려는 목적에서 단순한 문화적 우월감으로 다가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사진은 한 삼자 신학교의 학생 기숙사 전경.

교류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우리가 도입한 방법이 중국 사정에 적절한 것이냐는 것이다. 일전에 교류활동을 통해 중국에 들어간 한 신학생이 홍콩 교회에서 유행했던 단기선교나 제자훈련 방식의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진행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의 뜨거운 동포애는 높이 사지만, 홍콩에서 적합한 방법이 과연 중국(특히 교외나 농촌교회)의 형제자매에게도 필요로 하는 것일까하는 의문을 금할 길이 없다. 물론 초기에는 중국 형제자매들이 매우 신기하게 여기겠지만 신선감이 사라진 후에는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진보한 이방인’들이 떠난 후 그곳의 사역자들에게는 또 어떤 국면이 남을 것인가?

우리가 중국에 얼마동안 머물든간에 결국 우리는 제3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사역에 동참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중국의 사역자들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나 자신의 회생정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모든 형제자매의 필요와 이익을 채워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홍

콩의 편안한 환경으로 돌아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고생은 기껏해야 순교의 고상함을 한층 더하는 정도이거나, 십자가 위에서 잠깐 고난을 당한 후 영웅처럼 내려와 군중의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겨우 박수갈채를 받는 영웅이란 말인가? 제3자의 신분으로 주객이 전도된, 책임지지 못할 비평을 한 것은 아닌지 자신을 시시각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상대방의 단점 및 한계를 이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일하는 데는 확실히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사역했던 한 자매가 일전에 나에게 해준 말이 있다.

“우리가 얻을 잠깐의 만족을 위해 그들에게 오랜 시간의 고통을 안겨 주어서는 안 된다.” 나를 일생동안 일깨워 줄 말인 동시에 중국에서 사역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꼭 새겨 두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편집자 주

이 글은 홍콩 CCL(福音證主協會)에서 발간하는 ‘수망중화(守望中華)’, 127기에 실린 “路漫漫其脩遠兮”을 번역한 글이다.

번역 / 신호정 · 자원봉사자

중국 교회 소식

중국 교회의 상황을 알기 원하는 독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 삼자교회 기관지인 <천풍(天風)>의 『국내교회 소식』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삼자교회 소식을, 아울러 중국복음회(CMI)에서 간행하는 <중국여복음(中國與福音)>에서 가정교회 소식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현지 선교사들을 통한 생생한 소식이 더욱 바람직하나 이를 게재할 경우 보안상의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사정으로 부득이 공개 간행된 인쇄물에 한단계 뒀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독자들께서 이를 너그럽이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편집자 주

삼자교회 소식

원저우(溫州)시 양회, 교회사업에 관한 연구토론회 개최

1995년 7월 17일~21일까지 저장(浙江)성 원저우시 기독교 양회에서, 더 나은 삼자원칙에 따른 교회사업을 추진하고자 교회사업 연구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교회를 잘 관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연구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원저우 교회의 실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어떻게 하면 실행가능한 규정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청년후계자 양성과 교회의 치리와 전도, 또한 훈련반을 잘 운영하고 이단사설을 제거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을까하는 문제와 관리 등 일련의 문제에 의거하여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7년째 접어든 장푸(漳浦) 교회 청년 단결 성경공부반

푸지엔(福建)성 장푸현의 교회에서 1988년 3월 10일 조직된 청년 단결 성경공부반이 벌써 7년째 계속되고 있다. 신약의 첫 장에서

시작해 계통적,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매주 수요일 저녁을 공부시간으로 정해 이미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계통적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성을 끌어내고, 강해를 통해 학생들의 지식을 증가시키며, 문제를 도출하는 것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한층 깊게 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정도를 이해하는 등의 목적을 갖고 계몽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습 분위기로 성경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습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성전건축의 열기가 뜨거운 슈진(瑞金)교회

장시(江西)성 슈진시의 1만 기독교 신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으로 많은 이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신도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슈진의 10여 개 향(鄉)과 촌에 새 예배당과 집회 처소가 건설되고 있다.

최근 슈진시에 1,50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새 예배당이 착공에 들어갔다. 건축비용이 다 채워지지 않았고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들의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찍 준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나이 많은 신도들도 주님을 사랑하여 건축자재를 어깨에 지고 나르는 등 공사장에는 주님을 위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봉헌의 열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푸밍교회(湄潭教會), 이단 방지 능력을 향상시키다

꾸이저우(貴州)성 푸밍현 교회는 지난 7월 말 “이단을 경계하고 주님의 양을 치라”는 주제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 현 각 처소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련 법규와 정책 사항을 주지하면서 이단사설을 배척하고 분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학습했다.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동역자들은 성령께서 주신 하나되라고 하신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며, 거룩한 진리의 말씀 위에 자기

를 성장시키고 올바른 뜻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며 양무리를 바로 먹이고 이단사설을 배척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천풍(天風)」 154호에서 발췌

가정교회 소식

교회 전도인, 삼자에서 독립

화중지역의 한 교회의 전도인(傳道人: 중국 교회의 전도인이라 기본적으로 목회자를 말한다. 정규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 - 역자 주) 으로부터 온 편지에 의하면, 시무하고 있는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삼자의 지도와 관리를 받고 있으나 이 전도인 자신은 삼자의 관리를 받지 않는데, 그것은 그가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교회에는 5명의 전도인이 있는데 그들 역시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퇴직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들 사역의 원칙은, 공산당에 반대하지 않으며 사회주의를 위반하거나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리상의 원칙은 성경을 따르며 이단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지 삼자의 전도인들은 '설교증(講道證)'이 있어야 하는 데 이 설교증에는 자기의 사진이 있어야 하고 게다가 정부와 삼자의 공인이 있어야만 비로소 설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전도인들은 이러한 설교증을 갖고 있지 않다.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신도 수는 굉장히

많아, 가장 많을 때는 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강대상을 마치 타인을 공격하는 곳으로 착각하여 다른 신도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한다. 또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리기도 하고 그 전도자는 귀땀하였다. 또 현지에 매우 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가정교회의 전화가 상부에 의해 도청되다

상하이의 한 그리스도인이 저녁에 모 가정교회에 전화를 걸어 대화 중 우연히 중국에서 급서로 확정된 <1976년의 등소평>이란 책에 대해 언급을 했다. 이튿날 오전에 이 가정교회 책임자는 공안과 출소로부터 소환되어 심문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그 책의 향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전에도 가정교회의 전화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나 이번 급서사건을 통해 그것이 사실로 증명된 것이다. 가정교회의 책임자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전화 중 제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지 말 것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였다.

복음을 위해 입학하는 그리스도인 학생들

'95년 6월 중순 광주에서 거행된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7월 18일 발표되었다. 613명의 홍콩, 대만과 기타 지역의 화교학생 중 모두 41명이 입학 자격을 통과했다. 이외

에도 각 대학 가운데는 자체별로 모집한 화교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박사반이 있다. 이들 대륙에 취학한 학생들 가운데는 그 학우들에게 복음사역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정식 유학생의 신분으로 장기간 중국 내에 거류하며 중국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화중지역의 훈련계획이 폄박을 받고 취소되다

화중지역의 한 가정교회는 삼자 측에 등록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아왔는데, 그 결과 집회가 정지되었고, 여름 사역자 훈련계획도 연기되었다.

이단에 연루되어 폄박받는 가정교회

최근 안후이(安徽)성과 장수(江蘇)성 북쪽 등지에 예수가 여자 선지자로 재림했다거나, 위트니스 리(李常受: 위치만 니의 수제자 - 역자 주)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단이 성행하고 있어 교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 동시에 삼자회(三自會)와 당국도 이것을 빌미로 삼아 이단에 속하지 않은 많은 가정교회까지 함께 일망타진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종교행정을 정치적 의도로 연결시켜 원래 기독교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는 중국정부로 하여금 더욱 더 기독교가 정치적 반동으로 보이게끔 만들고 있다.

「중국어복음(中國福音)」 8기에서 발췌

新年有何新計劃?

Xīn nián yǒu hé xīn jì huà?

새해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李執事：金牧師，一晃眼又到新年了。

Lǐ zhí shì : Jīn mùshī, yíhuàngyǎn yòu dào xīnnián le.

이 집사 : 목사님, 어느새 또 새해가 됐네요.

金牧師：可不是嘛。今年你在神面前，有什麼特別的計劃沒有？

Jīn mù shī : Kě bú shì ma. Jīnnián nǐ zài Shén miàncián, yǒu shénme tèbié de jìhuà měiyǒu?

김 목사 : 글썄 말입니다. 올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李：沒什麼了不起的計劃。不過我希望能養成一些好的習慣。

Méi shénme liǎobùqǐ de jìhuà. Búguò wǒ xīwàng néng yǎngchéng yì xiē hǎo de xíguàn.

뭐 대단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좀 길렀으면 합니다.

金：什麼習慣？說來聽聽吧。

Shénme xíguàn? Shuō lái tīng tīng ba.

무슨 습관입니까? 얘기 좀 들어 봅시다.

李：我想養成每天固定時間靈修，禱告和讀經的習慣。

Wǒ xiǎng yǎngchéng měitiān gùdìng shíjiān língxiū, dǎogào hé dújīngde xíguàn.

저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큐티와 기도 그리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기르고 싶습니다.

金：這真是個好主意。願神在新的一年里祝福你的靈命能向下扎根。

Zhè zhēnshì ge hǎo zhǔyì. Yuàn Shén zài xīnde yì'nián zhùfú nǐde língmìng néng xiàng xià zhāgēn.

그거 참 멋진 생각입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축복해서 믿음이 더 깊게 뿌리 내리길 축원합니다.

新年(Xīn nián): 새해, 신년

了不起(liǎo bù qǐ): 대단하다, 위대한

習慣(xí guàn): 습관, 버릇

每天(Méi tiān): 매일

向下扎根(Xiàng xià zhā gēn): 깊게 뿌리를 내리다

一晃眼(Yí huàng yǎn): 어느덧, 어느새

養成(Yǎng chéng): 양성하다, 기르다, 배양하다

聽聽(Tīng tīng): 들어보다, 듣는다

靈修(Líng xiū): 큐티, 말씀묵상

好主意(Hǎo zhǔ yì):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특집

제3국에서의 중국선교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이대로 좋을 것인가?
 아직도 복음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공산주의 체제하의 중국.
 최근 그 중국에서 발생한 북한의 안 목사 납치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의 중국선교를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이제는 중국선교의 다변화를 꾀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신호이기도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지는, 중국선교 다변화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제3국에서의 중국선교』 특집을 꾸며 보았다.
 국내를 비롯한 제3국에서의 중국선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그분들의 현장경험에서 우리나라에 생생한 제안들을 전달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지길
 간절히 소망해 마지 않는다.

중국선교와 중국인 선교

예보람

중국 선교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와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는 과연 다른 문제인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국선교’란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중국밖에 있는 중국인들에게는 좀처럼 눈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중국 선교사의 범주에 넣기를 꺼리는 성향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는 좀 더 시야를 넓혀, 중국 내의 중국인이나 중국 밖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우리는 ‘중국선교’라는 말을 할 때마다 고정관념 속에 있는 ‘중국선교’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는 선교적 고정관념만을 가지고 중국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과거의 회고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선교부들이 중국선교는 중국에 가서 해야한다는 일념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중국으로 보내 여러 가지 시도와 노

력을 해왔으나 결국 중국인들의 배척과 냉대 속에 눈물을 머금으며 중국을 떠나야만 했던 우울한 과거를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들의 배척과 냉대 이면에 중국인으로서의 민족적인 긍지와 문화적 우월감이 있었다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결정적인 것은, 선교사들의 크고 작은 실수들이 그들의 문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그들의 민족감정에 영향을 주어 편승을 하게 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선교사들의 실수도 자신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중국인들에게는 그들의 문화를 침범하는 무례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비록 복음을 가지고 중국에 갔을지라도 자본주의적 성향의 환경 속에서 자란 선교사들의 사고나 행동은, 당시 봉건주의 사회체제 속에서 살고 있던 중국인들의 눈에 도전적, 혹은 파괴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중국선교의 현주소

그럼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 중국선교에 있어 우리의 상황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나쁘면 나빴지, 좋은 형편은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

금은 봉건주의보다도 더 지독한 사회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라고 중국에 가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물론 우리가 다른 서양인들에 비해 중국문화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적 성향 때문에 알게 모르게, 사회적 혹은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물론 이 말이 선교사들이 고의적으로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우리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다르고,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이나 언어가 그들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하는 행동도 받아들이는 쪽의 이해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식사 대접을 잘 받고 고마워서 10분 정도의 사례비를 주고 왔다고 했을 때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감사하게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심한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다.

반면 그들이 고의적으로 돈을 요구해 올 수도 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우리 식으로 생각 하는 반응과는 아주 다른 엉뚱한 반응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상태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바로 그 제도 안에서 형성되어 온 하나의 고정된 언어 때문에 생기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런 오해의 폭은 자유롭게 자라온 사람일수록 작고, 아주 제한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크다. 지금 동구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 하물며 아직도 계속해서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초기 기독교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된다.



중국선교는 반드시 중국에 가야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왜 중국인들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보내시는가? 사진은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 단체에 의해 열린 한중 야유회 광경.

성경적 고찰

하나님은 유대 땅으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선교의 전형적인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선교사명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의 말씀에서 기인한다. 이 말씀에 따라 오순절이 되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방언이 제자들에게 임했다. 그리고 이들은 기쁨과 놀라운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 때 각각의 방언으로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천하각국에서 모여들 사람들이었다. 만일 이들이 방언을 받았을지라도 이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방언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해 방언을 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방언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방언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미 예루살렘으로 불러 놓으셨다. 제자들이 방언을 받았다고 그 지방으로 몰려 간 것이 아니요, 또 그들 스스로 이방인들을 불러모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불러오신 것이다.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놀랐으며 이 말이 자신들이 온 땅의 말임을 확인했다.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그가 아직 유대 땅에 있을 때, 즉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도 그를 따라 이디오피아로 가지 않았다. 이방인 선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를 부르신 것도 이방 땅으로 베드로를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로마의 주둔군으로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초기

선교 당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신 방법은, 바로 그들의 나라로 직접 가서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왔을 때 전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사도행전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테반 집사가 헬라과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 빌립이 최초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아마 이들이 로마 혹은 이디오피아로 복음을 전하러 직접 갔더라면 아마도 많은 실수를 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또 그들과 부딪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5·4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제3세계에서의 중국인 선교에 대해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도 왜 우리는 굳이 중국에 가야만 한다고 고집하는가?

제3세계에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지는 이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중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중국 안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많은 망설임이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준비하신 사람이 도대체 누가냐는 것이다.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워낙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그들이 가지는 이종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만나다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이들을 만나보면(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과찹질 같은 그들의 내부적 구조가 외국에서 더 단순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들보다 오히려 더 단순해지는 것이다. 물론 외국에 나와 있는 모든 중국인

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모습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한 많은 양질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든지 이들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선택을 받은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중국 내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쉽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문화적 충격을 많이 겪지 않아도 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중국으로 갔을 경우,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실수를 범하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이유로 나왔든 외국이라는 장소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실수를 서로 이해하는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된다. 중국인이 우리를 만나더라도 계급적이거나, 보통 그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처럼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단순한 만남을 유지할 수 있다. 간혹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실수가 아닌 외국인의 실수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우리가 만일 중국에 가서 똑같은 잘못을 범한다면 그들에 의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혹은 기독교의 잘못으로 간주되거나, 옛날처럼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이용물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 선교의 문은 점점 더 닫혀지고 말 것이다.

다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한 지역이라는 특정한 지역에 묶여 만나는 사람들도 결국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신분,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결론

이제 우리는, 중국선교는 반드시 중국 현지에 가서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중국 선교를 좀더 폭 넓게 바라 볼 수 있는 안목을



중국 유학생 초청잔치에 참여한 학생들. 외국에 나와 있는 이들의 영혼은 자기를 나라에 있을 때보다 더욱 단순하고 갈급해진다.

키워야 한다. 정말 무엇이 더 효과적인 중국인 선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고 본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효과적인 선교방법인가 하는 것을 알았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명분론을 넘어 실제적인 사역의 현주소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지면 관계상 많은 실례들을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의 과거 선교역사를 보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력보다도 문화적응이나 다른 부분에 많은 신경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중국선교, 혹은 모슬렘선교를 위해 서슴없이 미국이나 일본, 또는 유럽 등 다른 나라 쪽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양군도에 번지는 중국선교 열기

편집부

중국인들은 지금까지도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국가체제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의 선교는 여전히 심각한 긴장상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감한 중국에서의 선교 방식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자유롭게 펼쳐고 있는 중국인 대상의 사역들이 지구 곳곳에 펼쳐지고 있다. 보다 싼 노동력을 원하는 세계 도처에 중국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열려진 곳', 남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 군도를 찾아 이곳에서 펼쳐지는 중국선교의 현장을 취재하였다.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현신자들이 보다 넓게 열려져 있는 곳으로 시야를 돌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또다른 마케도니아인의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

남태

평양은 크게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군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마이크로네시아 군도에는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는 크고 작은 여러 섬들이 있다. P섬을 비롯, Y섬, S섬, M섬에는 폴리네시아인 계열의 원주민들과 함께 소수의 외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다. 또한 이들 외국인 가운데는 돈을 벌기 위해 온 중국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주로 공장 노동자, 어부, 농장 근로자로 와서 일하고 있는 이들은 분명 복음을 들려줘야만 하는 미전도종족이다.

'김치'로 시작된 P섬의 중국인 선교

P섬은 화산지대의 크고 작은 8개 섬으로 이루어진 산호섬이다. 거제도만한 크기의 이곳은, 2차대전 당시 2천여 명의 한국인이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과 정신대료 와서 일본 패전 후에

폐죽음을 당했던 한 맺힌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인구 1만 5천 중에 원주민 92%, 필리핀인,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등이 나머지 8%를 차지하고 있다. 약 천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며, 때로는 정부로부터 임대받은 농장을 직접 경영하기도 한다.

오래 전부터 중국선교의 뜻을 품고 대만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중국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P섬에 와서 중국인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가 있다. 처음 와서 피폐한 한인교회를 다시 정립하고 한국 교민들을 돌보는 일을 하던 선교사는 아주 천천히 중국인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김치를 좋아 하는 중국인들에게 사랑이 담긴 '김치'를 갖고 다가가 단혀진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사모는 1주일에 세번씩 김치를 담가 1시간이



B섬의 중국인 가운데 처음으로 맺힌 복음의 열매 5명이 세례를 받고 있다.

상 멀리 떨어진 농장까지 찾아가 중국인들에게 김치를 나눠 주었다. 중국인들과 차츰 친밀해지면서 나중에는 집을 방문하여 예수그리스도를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 선교사는 끝까지 '만만다'를 고수하였고, 성급하게 영접시키거나 세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일에 지치고 돈에 쪼들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그들의 표정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복음의 첫 열매로 5명의 결신자가 생겼다. 이 5명을 양육하며 이들을 통해 다른 이들을 전도할 수 있었고, 호기심으로 찾아오던 중국인들이 계속 늘어나서 이제는 한인 성도보다 중국인들의 수가 더 많아져 중국인 예배를 따로 드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주일 오전 한인 예배가 끝나면 근처에 있는 중국 공장과 어선회사를 찾아가 중국인들을 데려온다. 현재 매주일 평균 70~80명의 중국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특별히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통해 그들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중국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가르치기 보다는 한 가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데, 책이나 테이프 등으로 자연스럽게 복음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중국 어선회사를 방문하여 찬양과 드라마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국의 단기선교 팀. 낯선 타국에서 삶에 쪼든 이들에게 진정한 생의 만족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

중국에서 지하교회를 다니다가 이 곳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된 한 자매는, 공장 주인이 바뀌어 교회출석이 어려워지자, 공용어인 영어도 못하면서 밤중에 무작정 택시를 타고 ○ 선교사가 있는 교회로 찾아와 위로를 받기도 했다. 철저한 공산당원 집안에서 자라온 한 자매는 예수를 믿게 됨으로 가족을 배신하는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세례를 받고 굳건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지금까지 중국인 20여 명이 세례를 받았다.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험난한 여정이어서 그런지 더

육 뜨겁게 감격하며 믿음을 고백한다. 이곳에서 복음을 받은 중국인들이 정해진 시간을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 교회의 지도자로 복음사명을 감당하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중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전해오는 이들이 있다.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는 Y섬의 어부들

○ 선교사는 P섬과 가까운 Y섬에도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태평양 주변의 섬들에는 정박하고 있는 어선들이 많은데, Y섬에는 중국의 참치잡이 어선 100척 가량이 정박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공장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1,000여 명 넘게 있다고 한다. ○ 선교사는 이곳에서 지난 날 이단종파에 빠졌던 한 중국인 형제를 만나 그를 주님께 인도하였고, P섬보다도 더 낙후된 문명권 너머의 땅 Y섬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중국영혼들이 일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는 오늘도 마이크로네시아 작은 섬들의 중국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위해 일해줄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비록 이곳이 남태평양이지만 중국인들을 위해서는

중국인들과 비슷한 동양권의 생활문화와 의식구조를 가진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평신도들의 중국선교 현장, S섬

서태평양 마리아나제도의 주요 섬 중 하나인 S섬에는, 과거 한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쓴 노동력으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국인과 필리핀 노동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조선족도 있지만 각 공장에 근로자로 나와있는 중국인의 대부분은 한족들이다.

이곳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로 훈련하는 사역자들은 대개 한인교회를 거점으로 사역하고 있다. 10여 개의 한인교회들이 모두 중국선교에 열심이며, 특히 조선족들에 대한 선교열기는 매우 뜨겁다. 평신도들이 직접 일대일로 조선족을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고 있었다. 그 중에는 1년에 수 차례씩, 귀국한 조선족들을 방문하여 신앙을 복돋아주는 등 본격적인 사역의 길로 들어선 이들도 있다.

조선족들은 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봉제 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일부 고약한 공장주들이 중국인과 조선족들에게 함부로 욕설을 내뱉거나 구타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빠듯한 근무시간, 더욱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기 위해 낯선 이곳까지 온 이들은 정규 근무 외 저녁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여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있는 이들은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며 근무 중의 피로와 외로움을 극복하고 있다.

“훈련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N섬

과도가 거칠고 흥흥하지만 맑고 깨끗한 청정해역이라 참치잡이로 유명한 N섬. 한국에서도 '70년대부터 원양어선이 참치, 꽂치잡이를 시작했다. 어선들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곳에 머물게 되는데,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동안 N한인 교회에서 한국인 선원들을

S섬의 중국인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있다.



위한 복음사역을 시작했다. 그후 한국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는 바람에, 한국인 선원들은 줄어들고 그 빈 자리를 중국에서 온 한족과 조선족 선원들이 메꾸기 시작했다. '90년대 초 W 한인 교회는 본격적인 중국인 선교를 시작하였다.

현재 두 명의 자매가 600~700명 씩되는 중국인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중국어를 할 줄 몰라 주로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구체적인 양육의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며 쪽복음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곳도 역시 중국인에게 중국어로 복음을 전할 전문적인 사역자가 없어 사역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다가설 때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중국인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박하던 중 우연히 예배에 참석하고 어설 프게나마 복음을 접했던 중국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타국에서 전해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편지를 보내오고 값진 선물을 전달해 오는 흐뭇한 일도 있다. 이곳의 한국인 사역자들은 앞으로 직접 중국에 들어가 그들의 후속관리 사역을 감당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앞으로 N섬의 한인 교회들이 하나되어 서로 협력하여 중국인 선교사역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 하겠다. 이곳에도 훈련된 사역자가 와서 협력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섬과 열방 중에 흩어진 중국인들

이외에도 남태평양의 곳곳에서 중국선교의 비전을 가진 한국인 사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원래 한인교회 사역을 위해 왔다가 우연히 중국인들을 만나게 되어 중국선교의 비전을 품게 된 이들도 있고, 혹은 일부러 중국인 선교를 위해 이 지역에 온 이들도 있다. 중국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



계약기간을 끝내고 그리던 중국으로 돌아가는 중국인들이 공항에서 전도지와 성경을 선물로 받고 즐거워하고 있다. 남태평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고향에 돌아가 부모, 형제, 친지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을 너무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국에 와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중국인들은 너무나도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다. 그들의 지치고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평양 한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다. 이곳에서 예수를 만난 이들은 체류해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성장의 열심과 소망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귀국한 후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거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개혁, 개방과 함께 중국정부가 국민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내면서, 이제 중국선교의 무대는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굳이 복음에 제한된 중국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눈을 돌려, 중국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보자. 전세계 모든 섬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이 당신의 기도와 헌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인이 있는 그 어디나 나의 선교지입니다

이만열 주 사이판 중국선교사

권수영

“나이

가 그렇게 많으신 목사님이
이젠 얼마든지 편히 쉬실 수
도 있는데 저희를 사랑해서
사이판까지 오신 거죠? 목사님! 더욱 건강하
셔서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
요.”

남태평양의 작은 섬 사이판. 휴양지로 유명
한 이곳에 노 선교사 부부가 100여 명의 중국
젊은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
다. 이 선교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
들을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는 중국인들은 그
래서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 사
랑을 못 잊어 계속 편지를 보내온다.

평생 주의 사역을 위해 몸바쳐온 지난 40여
년, 중국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복
음을 전했다 이만열(78세), 인천향 선교사(80)
부부. 이젠 은퇴하여 편히 쉬어도 될 만한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머나먼 남국의 섬에 와서 중
국인들과 함께 노후를 보내는 이들의 삶에는
분명 큰 도전과 힘이 실려 있었다.

지난 세월은 그의 머리칼을 반백으로 만들
었으나 중국영혼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함없
었다. 오히려 그 사랑은 세월이 더할수록 더
뜨거워져만 가는 것 같다.

늦깎이 신자가 늦깎이 선교사로

-먼저 목사님의 신앙배경과 목회자의 길로 들
어서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전 서른다섯에서야 비로소 예수를 믿은 사람
입니다. 아내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
였는데,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나 10년 넘게 고
생했죠. 아내가 저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더 완강하게 고집을 세우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아내한테 트집을 잡으려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죠. 설교를 들으니 트집잡을 것
은 없고 다 좋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왕 반대하려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결
심하고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결국 아내
의 모교회인 대구 삼덕교회 홍대위 목사님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믿는 것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마흔이
가까운 나이에 신학교에 간거죠.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목
회에 비전이 있었는데, 제가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것이 결국 중국인들에게 보내시기 위
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흥은동 삼덕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홍콩에서 12
년 간 선교사로 일했고 이곳 사이판에 온 것이
1992년의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한국에서부터 중국인(화교) 목
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유수
한 화교 목회자들도 목사님께 전도를 받았거
나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죠? 어떻게 해서 중
국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
명해주세요.

“서울신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수요일예배 시간
이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중국인들이 떠올
랐어요. 당시 서울에 살던 화교들이 지금 종로
YMCA 자리에 군용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린
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죠. 중국어와 결별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어 설교와 중국어 찬
송을 들으니 마음 속에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예배에도 참석했는데, 설교

이만열 선교사 약력

1918년 함경도 태생. 일제통치를 피해 중학교
때 중국으로 감. 장춘(長春)공대 졸업. 북경에서
인천향 전도사 만나 결혼. 35세 때 비로소 예수
를 영접. 6·25 직후 귀국, 서울신학교 재학 중
중국인 교회를 알게 되어 7년 간 인천화교교회
목회. 흥은동 삼덕교회에서 17년 간 목회. 1965
년 1차 전도여행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다니며 177회 화교 전
도집회 주강사로 참석. 1982년 총현교회 파송
홍콩선교사로 12년간 선교활동. 1992년 사이판
으로 파송되어 현재까지 한족 선교사역 중.



매주 이틀씩 진행되는 성경공부 시간에 이 선교사는 '구원의 확신'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가르친다. 중국인들이 사이판에 있는 기간이 기껏해야 2~3년이지만 이들의 80% 이상이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큰 이유는 성경공부를 통해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를 맡고 계시던 백 목사라는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분이 중국어로, “당신, 중국어 배웠소?”하고 묻길래 저도 중국어로 대답했지요.

“전 중국에서 자라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놀라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시더니, 저보고 당장 다음주부터 인천 화교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모이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다면서... 한국 교회 목회하려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난데없이 중국인 교회에 가라고 하니 당황했죠. 안 된다고 했어요. 백 목사님은 기도하며 결정하라고 하시더니, 다음주 수요예배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해보라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어로 먼저 설교를 만들고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처음 중국어로 설교를 했죠. 예배가 끝나고 이번엔 교회 장로들이 제게 물려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며 빨리 인천 중국인 교회로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도 결정하지 못하고 기도하던 중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어린시절 중국에서 보내면서 중국어를 배우게 하셨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자라 대학교육

을 받았고, 2년 동안 소주(蘇州)에서 중학교 교사까지 했으니 말에 있어서는 중국인이나 다름없어요. 이제보니 그것은 중국영혼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래도 결정을 못하고 있던 어느 날, 다니던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 형제가 그렇게 중국어를 잘 한다면서?”

지금 맡고 있는 교회는 다른 사람 알아보라고 했으니 빨리 인천으로 가게나.”

그 때야 비로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5명의 신도가 있는 인천 화교 교회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지요. 이렇게 해서 중국 교회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겁니다.”

순수한 마음밭에 뿌려진 사랑의 씨앗

사이판에는 봉제공장이 많기 때문에 이 선교사의 집회에 참여하는 중국인들의 대부분이 나이 어린 자매들이다. 보통 2~3년 계약을 맺고 중국 전역에서 오는데, 워낙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 비교적 가정환경이 좋고 지식수준이 높은 이들만 올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한 조건이기도 하다. 공산주의에 대해 잘 모르고 백지와 같은 순수한 마음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만열 선교사의 유창한 중국어도 효과적인 사역을 가능케한 주요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인들은 그의 인자하고 따뜻한 사랑의 인격에 감화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이 목사는 사이판에서의 4년 동안 28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은 모두 중국으로 돌아갔다. 감사하게도 돌아간 이들 중 80%가량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중 10여 명은 스스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다. 부모의 반대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고된 노동
을 시키는 기업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
도 나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공장
에서 야근이나 잔업을 많이 시키면 중국인들
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기 힘들텐데요?

“단기간 저임금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고, 중국 국영공장에서는 일부러 교
회에 못 나가게 하려고 밤에도 계속 작업을
합니다. 처음엔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기가 너
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몇 공장에서 허락을 해
주어 주일 낮과 저녁에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
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잔업과 야근으로 피곤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
매일 저녁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여기 있는 2,3년 동안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너도나도 야근을
원해요. 또 야근수당을 비교적 많이 주기 때문
에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 나오기는 힘들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중국인들의 변화된 모습
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 자매는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반장한테 잘
보여서 야근을 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예수 믿
은 이후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니까 오히
려 다른 사람에게 야근을 양보했대요. 그러니
까 이것을 본 다른 이들은, 교회 나가더니 사람
이 달라졌다고, 교회에 뭔가 있긴 있나보다며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젠 우리가 직접 데리러
가지 않아도 중국인들 스스로 동료들을 전도
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까?

지난 6월 하순, 교회에 출석한지 두 주밖에 안
되는 한족 처녀 한사람이 귀신이 들려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하는데,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청년 네 사람으로서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여
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근무
하고 있는 공장에서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
다며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
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저와 P목사는 물

론이요, 온 교회 신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밤낮
을 불문하고 모여 찬송하고 성경읽고, 몇 차례
의 금식기도와 철야기도로 마귀와 싸웠습니
다.

목회 40년 만에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어요.
만약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가 죽으면 불
신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불안
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었죠. 기도하자 하나님
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설사 내가 감옥에 가
는 고난이 오더라도 감수하겠다 마음을 먹었
어요.



한국에서 온 단기선교 팀, 중국인들과 함께 포즈를 취한 이만열 선교사.
즐거운 찬양시간. 한족들은 현재 사이관한인장로교회 교육관을 빌려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3주가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일을 계기로 믿지 않던 공장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여, 그 공장의 중국인 근로자 모두가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과 세상만사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교회의 위상을 높여주셨으니 글자 그대로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30대의 젊은 선교사와 파트너가 되어

이만열 선교사는 싱가포르에서 파송된 중국인 P목사와 팀을 이루어 한족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30대의 젊은 선교사인 P목사는 이만열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사이판에 와 있었고, 지금은 이 목사와 함께 중국인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P목사를 파송한 싱가포르 교회는 별로 크지 않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이판의 중국선교에 큰 관심을 갖고 도와주기 때문에 많은 힘이 된다고 한다. P목사는 지난 8월, 귀국한 중국인들을 돌보기 위해 한 달 동안 중국을 순회하며 270명에게 세례를 주고 돌아왔다. 사이판에서 돌아간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고, 이들 중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P목사로부터 세례받기를 기다린 것이다.

앞으로 P목사는 중국에 들어가 사역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동안 귀한 동역자로 함께 했던 P목사의 빈자리를 메꿔줄 새로운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이만열 선교사의 가장 큰 기도제목이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길 간구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

록 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얼마 사랑을 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을 저들이 조금이나마 느끼는구나 생각하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저 스스로도 제가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한평생 저 자신이나 가족보다는 그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이것은 저의 체험입니다. 저의 아들, 딸 모두 대학에 보내지 못했어요. 인천에서 중국인 목회를 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공급해주시는 것으로 살았는데, 제대로 부모노릇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아들, 딸들은 모두 교회를 잘 섬기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충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내함에 맞는 일을 택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날까지 적으나마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일을 앞세우니

사이판 수수페 호수 근처의 아담한 아파트, 평생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한 부부 선교사는 이곳에서 그들의 여생을 보내고 있다. 이 집을 방문한 사람은 누구라도, 신혼부부 못지 않게 깔끔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집안 구석구석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23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몸이 불편하게 된 아내 이천향 선교사를 위해 줄곧 모든 가사일을 이만열 선교사가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 아내를 섬기며 가정은 돌보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성해온 이만열 선교사.

지금 이천향 사모는 팔과 다리가 약간 불편



한 것만 제외하고는, 과거 전신마비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니...

“아내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21시간 동안 인사불성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식들은 다 미국에 있고 저와 아내만 살고 있었을 텐데, 3주 후면 제가 석달 동안 집회를 인도하러 출국해야 했어요. 석달 동안 이 사람 혼자 놔둘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더군요. 고민하는 제게 하나님은, 아내가 직접 결정하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떠나기 3일 전, 감사하게도 아내는 저에게 걱정말고 가라고 하더군요.

출국하는 날 날씨가 나빠 은근히 비행기가 뜨지 않았으면 했지만, 결국 석달 동안의 전도 집회를 떠났습니다. 첫 집회부터 ‘나 이런 사람 혼자 두고 집회왔소.’ 하고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대만의 성도들이 제 아내를 위해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철야기도를 할 정도였죠.

이것이 23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제 아내가 이 정도로 건강해진 이유, 그 때 제가 주님 주신 사명을 뒤로 돌리지 않도록 집회에 가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내의 결단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던 거죠.”

중국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아내의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나 달려갔던 이만열 선교사. 홍콩,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국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전도집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전세계의 많은 중국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인들 고국에 와서 그를 반겨주는 교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그가 예수를 알기 전부터 중국어를 배우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너무 늦게 사역자로 출발한 것이 늘 아쉬워 마지막 순간까지 중국인과 함께 하길 소망하는 그의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다.

중국인을 위해 기도할 때면 자연스럽게 “나의 중국(我的中國!)”이라고 하게 된다는 그. 중국선교에 헌신하였다는 한국 교회의 많은 이들에게 이만열 선교사의 삶은 말없는, 그러나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던져 주는 듯했다.

“당신이 진정 중국인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있는 그 어디라도 당신의 사역지입니다.”

좌담회

국내 중국인 선교 현황

이 좌담회는 국내에서 중국인(한족)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모여 그간의 사역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편집자 주

일시/ 1995년 11월 20일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사회/ 이요한(중국어문선교회 총무)

참석자/ 이샤론 선교사 (안산 중국인제일교회)

김만성 선교사 (중국선교연구협회 연구원)

머여라 전도사 (엘림해외봉사회 총무)

가예영 사모 (영등포중화교회)

정두스 장무 (대전 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

이요한: 올해 중국선교 현장에서는 큰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여름 안승운 목사 남북사건 이후로 중국 정부에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한 결과,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동북지역의 선교사역은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있었던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방한은 앞으로 선교의 기회를 더욱 넓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가 동북삼성 조선족 선교에서 한족선교로 확대되어 갈 가능성이 높아져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제3국에서의 중국선교 기회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몇 년 전부터 조선족들이 대거 입국한 이래, 지금은 다수의 한족 노동자들이 입국하게 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중국선교는 보다 구체적,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선교의 지역개념 파괴'로 이제는 한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인이 지금처럼 대거 방한하는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이용하는 현재의 경제구조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한부적 성격을 띤 국내 중국인 선교는 이제 매우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좌담회는 한시적인 국내 중국인 선교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데 해답을 얻고자 마련했습니다.

우선 국내에 중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통계를 알고 싶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김한성: 국내에 약 10만 명 정도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중 조선족 및 한족은 3, 4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머여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통계는 2만 명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들어온 기업체 연수생의 숫자입니다. 비공식적인 통로(관광비자)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들까지 감안한다면 2만은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최근 조선족은 말할 것도 없고 한족들의 이탈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이요한: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두수: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대전에는 약 70여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학과 자매결연한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오거나 기타 대학의 석박사 과정에 국비 장학생으로 오는 경우입니다.

이요한: 국내 중국인 선교의 지역적 현황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 지역별 현황과 더불어 각자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성: 일반적으로 경인지역에는 노동자 수도 많고 인천을 중심으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섬유공단에는 중국인 여자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선교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천의 남동공단, 인천중화교회, 예일감리교회, 부개동 교회, 주안교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역지를 거쳐가는 사람들은 전부 합쳐 2천여 명 정도에 이릅니다. 꾸준히 출석하는 사람들은 교회마다 다르지만 남동공단의 경우 대략 30명에서 50명 정도됩니다. 서울의 구로공단에서는 저와 동역자들이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구로공단 예배에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은 현재 10여 명 정도입니다.

이사론: 안산지역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몇몇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다국적 사역을 해왔습니다. 현재 안산에 들어온 공식적인 중국인 연수생들은 천명 가량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까지 합하면 2, 3천 명 되리라 보는데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역자들이 부족합니다. 저는 지난 9월부터 안산 중국인 제일교회를 개척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족들만 20~30명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 가운데 사명자를 발굴하여 현장에서 스스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를 복음의 접착점으로 이용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할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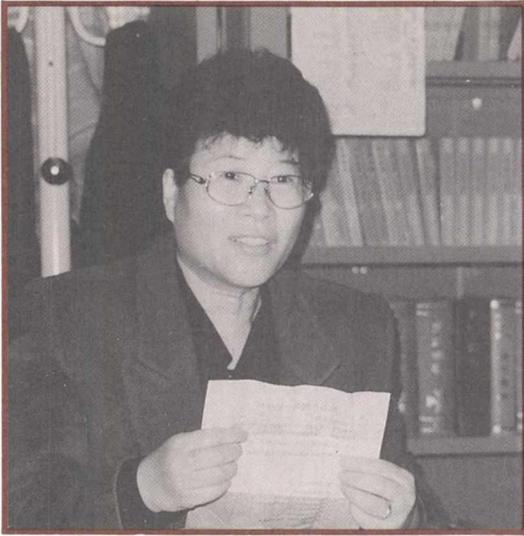
집회는 수요일, 금요일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등 한국식으로 진행하며, 수요일마다 한글공부반과 함께 성경공부, 찬양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히여라: '94년까지만 해도 저희 엘림해외봉사회 부산지부에서는 직접 공장 기숙사로 들어가 성경공부를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것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주 측에서 막지 않으면, 중간 관리자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94년부터 전국 각 지역 공단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계속적으로 한경직 목사님의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14회로 나누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천명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한 달에 약 300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생일인 사람에게서는 생일 축하 카드도 보내지요. 그들은 외로운 타국에서 자기들의 언어로 쓰여진 편지를 받고 너무나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편지를 받고 나면 저희에게 전화도 걸고 답장도 합니다.

간혹 공장 관리자들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편지마저 보내지 말라고 협박할 때도 있어요. 반면 오히려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주어서 고맙다는 전화를 거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 사역을 하는 가운데 회사 측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김한성: 구로, 인천 남동지역의 공장을 찾아가 갈 때마다 수위실에서 30분 이상 실랑이를 벌이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



하여라: 지금까지 한국에 나와있는 중국인 근로자 2천여 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외로운 타국에서 자기들의 언어로 된 편지를 받고 이들은 너무나 반가워 전화도 하고 답장도 합니다.

지만 차츰 회사 측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려움은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교회에도 꾸준히 출석하고 회사를 이탈하는 예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심방도 허용할 만큼 회사 측이 매우 협조적입니다. 어떤 회사는 오히려 제게 그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매개체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정두수: 대전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학술교류팀에 GPTI 출신들을 중심으로 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중 6명이 중국선교에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소에 중국 과학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선교적 필요성을 느껴 대덕교회와 연결하여 60~70명 정도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을 한 반에 5명 내외로 나누어 주 1회 1시간씩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용협회 지원으로 유학생과 교수 부인들에게 주 2회 미용 및 피부관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수료한 후에는 국제공인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이외에도 국경일이나 명절 때는 고적지 방문이나 등반 대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우선 인간적인 유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여 이들이 마음을 여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일대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간혹 미국 등 제3국가로 다시 나가는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의 선교사들에게 자료를 보내어 계속 양육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요한: 지금까지 각 지역의 다양한 사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역 중 보람있었던 일이나 성공사례가 많이 있었을텐데 그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라: 국내에 온 중국 노동자들에게 발송된 편지가 중국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 중국의 중학생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필기용품이 없어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동북지역에 공부방을 만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에 2, 3개 정도 공부방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믿음좋은 조선족 중에서 선정하였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와 생활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험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 예상 밖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또 이것이 편지 발송의 응답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뻐했습니다.

이사론: 지난 추석 중국어문선교회 주최로 열린 추석 수련회가 저희 교회 형제들 몇 명이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영성을 채워줌으로써 그 후 영적으로 저희들과 대화가 통하게 되었습니다.

창립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요리사 출신 형제들이 행사 때마다 손수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고 있습니다. 중국인교회에서 중국인들이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아주 기쁘게 섬기는 것을 볼 때 너무나 흐뭇합니다. 길림성에서 온 어떤 형제는 중국에 있을 때 당원이었는데 나중에 중국에 가서 교회 개척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최근 일을 하다 손을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

하다고 합니다. 이런 형제들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정두수: 처음 미용학교를 시작했을 때 미용을 가르치는 한국인 봉사자는 왜 이 일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불평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미용훈련을 받는 중국인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는 분을 자기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며 오히려 자기들이 도울 것이 없느냐고 물어오기도 합니다.

당 간부의 고위자녀인 한 학생에게 기도하는 법과 성경읽는 법 등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는 7년 전 먼 친척으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감사하다며, 지금은 오히려 저희들 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성경공부와 기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한성: 이제는 중국인들이 스스로 동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큰 회사에서는 위성방송을 이용 중국 TV를 틀어주는데, 그들은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보다 성경공부를 더 하고 싶어합니다. 남동공단의 경우 중국인들은 340원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뤄야 하는데도 오히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요한: 사역하다보면 이러한 보람 못지않게 애로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의 이해부족, 사역자의 부족, 프로그램의 부재, 불법체류 문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의 고충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사론: 한글공부반이나 성경공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언어가 준비된 사역자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또 주일예배 이후에 의료봉사와 스포츠를 하는데 노동자들이 주일날도 특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성: 중국인들은 다시 중국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교회 방식의 프로그램에 적응시켜야 합니다. 효과적인 중국인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식 기독교를 고집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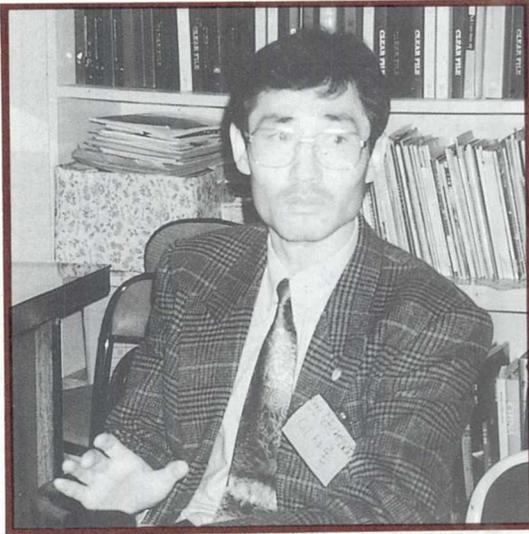
김한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이 큰 애로점입니다. 버스값 340원이 아까워서 시내에 가지 않는 그들의 상황에 맞는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합니다.

저는 처음에 구로공단 지역을 하루 종일 발로 뛰어서 중국인들 한두 사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공장으로 찾아가 수위들에게 옥 먹고, 실랑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2, 3명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차 자리가 좁아졌고 지금은 10여 명이 규칙적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구로동의 한 작은 개척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주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 교회 목사님이 중국인들이 한국에 저녁예배에 참석하기를 바라셔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역 시스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이 1시간 반 동안 멍하니 있다가 끝나는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과연 있는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한국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국 교회 방식의 프로그램에 적응해야 합니다. 중국인 사역을 위해서는 한국식 기독교를 고집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정두수: 대전지역은 비교적 보수적이고, 선교단체도 아주 적습니다. 게다가 지역교회들의



이사론 : 중국에 있을 때 공산당원이었던 형제가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나중에 돌아가서 교회개혁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선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극적인 사역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희도 교회를 빌려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 측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한글과 미용을 가르치거나 파티 등을 하면 왜 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줘야 하느냐는 등 각종 항의가 들어옵니다. 또 이 교회에서 후원을 받으면 교파가 다른 저 교회에서는 후원받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일부 사역자의 경우 타문화권 이해가 부족하고 언어가 안 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대학 중문과 대학생들과 연결하여 한글학교를 맡기고자 하지만 선교 마인드가 있는 학생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정부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고급 인력들입니다. 중국 국무원에서 이들을 직접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스파이들도 있습니다.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라: 중국에서 일하러 왔는데, 계약한 회사가 이미 부도가 나 있어 어찌면 좋겠냐고 하소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본래의 근무지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설이나 추석 수련회마다 노동상담 등을 통해 불법체류의 불이익을 설명해

줍니다.

불법체류자가 노동상해를 입었을 경우 어려움이 커지므로 노사간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독교선교회와의 적극적인 관계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요한: 한국 교회와 한국 화교 교회는 중국인 선교를 위해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가혜향: 화교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역자의 부족입니다. 한국 내에서 소수민족인 화교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사역자로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영등포중화교회도 국내 중국인 사역에 참여할 생각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역자는 유소충 목사님과 사모인 저밖에 없습니다.

진정 중국인 사역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 사역자라면 중국어를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한국인 평신도들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교회의 청소나 꽃꽂이 등을 도와준다면, 사모인 제가 중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의 귀천을 떠나서 더욱 효과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개방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면 중국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라: 한국 내 중국인 사역에 있어서 화교 교회는 반드시 손을 잡고 일해야 할 훌륭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난 설 수련회 때 인천 화교교회 주지호 목사님의 도움으로 큰 성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요한: 얘기를 좀쳐서 사역자들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중국선교를 하는 이들을 선교사로 여기지 않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있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사역자를 어떻게 찾고 육성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중국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겠고, 중국인들을 자

생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먼저 어떠한 사역자가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라: 우선 중국을 잘 이해하고, 중국어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중국어로 설교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의 사역의 경우는 중국어로 레크레이션을 지도해 줄 사역자도 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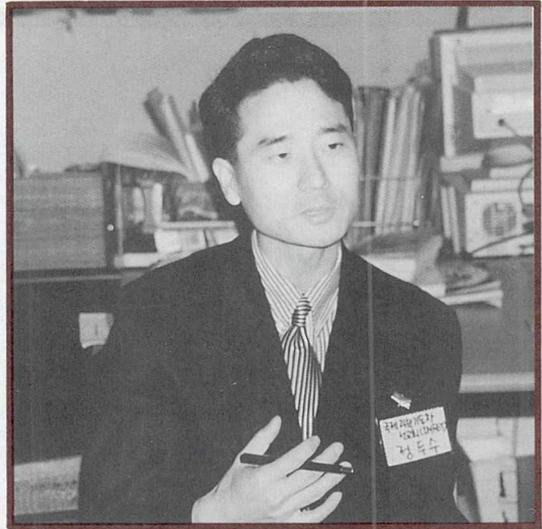
김한성: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공부 인도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교회 용어나 성경 용어를 익히려면 화교교회를 출석하거나 실제로 중국인 사역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각 선교훈련원 훈련생들의 교과과정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국내 중국인 사역에 직접 참여하여 실습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리라 봅니다. 도우면서 개발하는 방안이 있다면 화교 교회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혜향 사모님 말씀처럼,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한국인들이 화교 교회를 돕고, 화교 목사님들이 중국인 사역에 참여하는 상호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두수: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하기도하고, 중문과 학생들을 접촉하여 발굴해 보는 것도 좋겠죠. GMTC, GPTI 등 훈련단체와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각 파송단체들이 선교사를 직접 현지로 내보내기 전에 국내 사역현장의 사역을 단기 실습과정으로 한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요한: 중국에서 언어연수, 유학 등을 통해 언어를 해결한 인력들이 한국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습니까?

김한성: 실제로 비거주 선교사개념으로 파송, 불규칙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체제가 교단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교단 선교관계자와 자리를 마련해서 예비 선교사들이 바로 중국으로 무리하게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중국



정두수: 각 파송단체들이 선교사를 직접 현지에 내보내기 전에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인 사역을 단기 실습 과정으로 삼는다면 피차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과 관련된 여러 곳을 둘러보게 하고 또 현실적으로 중국대학과 교환학생으로 학생교류에 참여하는 등 안목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정두수: 한국대학과 중국대학이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면 자동적으로 언어문제가 해결되겠지요. 또한 각 교회 선교부와 선교단체와의 협력 전산망도 필요합니다.

이요한: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선교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동역자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전국 각지의 중국인이 있는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중국선교 동역자들의 한국내 중국선교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절실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에 개척자로 나선 여러분의 헌신이 오병이어처럼 열매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힘

이만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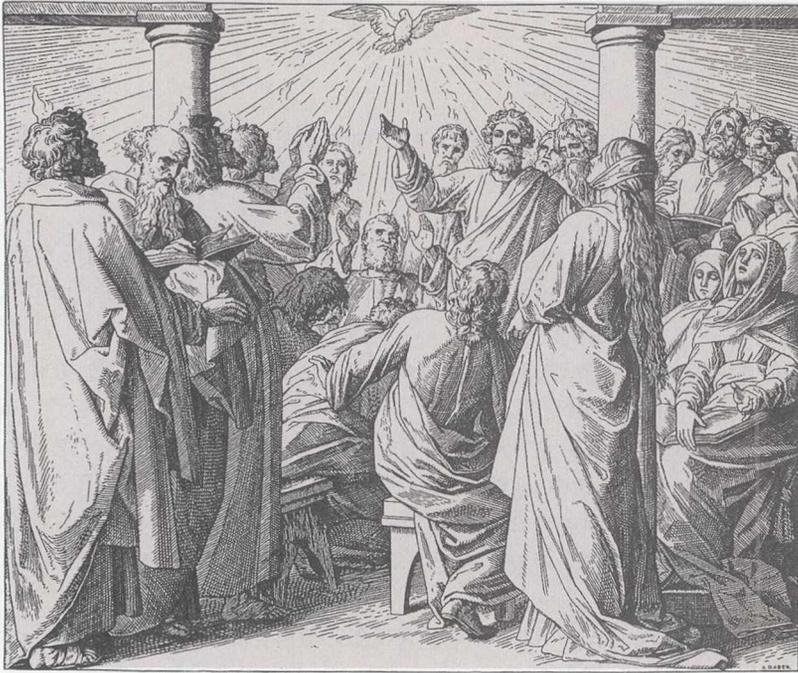
이 말씀은 선교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선교지에 나오기 전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선교지에 나와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재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불찌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눅 24:48-49)고 명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흘을 기다렸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다.

성령이 임하여야 권능을 받고 비로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선교할 자격이 없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선교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볼 때 성령의 권능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를 새삼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꼭 받아야 한다고 하는 성령이 꼭 이런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였을까하는 점이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은 꼭 성령만이 행하는 능력은 아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그 징조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권능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까지라도 미혹하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바로 지금이 그 때인 것 같다. 사신(邪神)들도 무당을 통해 할 수 있는 그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 어떤 신(神)도 할 수 없는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아닌가 한다.



성령의 강림: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 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사도행전 2:2-4)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지만 사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말씀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림의 떡 같은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랑을 주셨을 리가 있겠는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볼 때 깨달은 것이 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전 12:31)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랑은 은사의 종류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들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영들을 분별하는 9가지 은사만 나온다. 그런데, 그 다음 13장 전체를 ‘사랑’으로 메꾸셨다.

일반적인 은사들에 대해 묵상하다가 떠오른 것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별한 은사인 것이다. 왜 이것을 별도로 취급했는가? 위에서 말한 성령의 은사 9가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기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지만, 사랑의 은사만은 보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다. 때문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것이 전적으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한다.

3절에서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이 사랑이 없이 어떻게 내 몸을 희생해 줄 수 있겠는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 13:34)

여기서 새 계명은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받는 가장 위대한 힘인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비로소 확신있는 선교사역을 할 수 있다. 이 사랑이 내 뒤에서 강권하고, 이 사랑이 뒷받침되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우리가 받은 바 죄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자는 극히 적은 듯하다.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보다 인간의 힘으로 나오는 사랑을 생각한다. 그것은 교회에 유익을 주지도 못하며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될 뿐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인간의 사랑은 그 한계가 드러난다. 사회에서 그러한 상황이 드러난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동족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타민족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는 이 사랑을 모른다고 했다. 이 사랑은 구원받을 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 5:43).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마 5:44).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받은 줄 믿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한다. 이제 인간의 사랑은 덮어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애쓰자.

지금까지 이 사랑을 우리가 받긴 받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쓰지도 아니하면 이 사랑은 부패해서 썩어버리고 만다. 썩야 계속 부어 주신다. 마치 샘물이 자꾸 흘러야 더욱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선교사는 현지인들을 보며 “저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여기와서 이 일을 하는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선교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말이 트이면 선교가 트인다.

선교사의 언어 장벽 넘기

김상희

해외여행,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는 것인가? 어찌 어찌 해서든

지 외국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식견이 넓어지며 우리의 사고가 풍성해진다. 그러나 막상 외국 여행을 하려면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여행하려는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다. 잠시 며칠 간의 여행을 위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도 마음같이 쉽지 않다. 그래서 안내원들의 꿈무늬를 졸졸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선교사 역시 선교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언어 문제이다. 사람이 입은 있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것은 없다.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서로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보면 선교사는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된다. 몸은 선교지에 와 있지만 모든 상황은 고국에 계속해서 남아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집에 들어오면 한국말을 하니깐 한국이고, 밖에 나가야 선교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충격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충격을 완화시키고 그 기간을 될 수 있는 한 짧게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본인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

나는 한국에서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대만에 갔는데, 대만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6개월 된다는 분이 무엇이라고 중국어로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이 생각한다. 대만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저렇게 말을 한다면, 나는 한국에서 4년 간 배우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자책감에 빠진 것이다. 얼마 지난 후에 그분이 버스 노선 번호를 빨리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

친구를 사귀자

대만에 가서 3주 정도 지나서 쌍십절(雙十節)에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타고 산에 갔다. 여기 저기 왔다갔다 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그러다가 그만 날이 어두워져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이리저리 헤매면서 사람들이 모두 하산한 것 같은 생각에 두려웠다. 얼마를 헤맸을까? 한 소아마비 아가씨가 양쪽에 목발을 잡고 혼자서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반갑게 뛰어가서 길을 물어 보았더니 자기를 따라 오라는 것이었다. 산을 내려간 후 택시를 타고 쌍십절 야간행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켜 주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중국어를 잘 배우고 선교지의 문화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이 대만 아가씨를 한국에도 데리고 와서 여행을 함께 한 것도 서로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언어 충격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얼굴을 두껍게

선교지에 도착해서 언어를 배우는 기간 만큼은 얼굴을 두껍게 하고 모든 체면을 벗어 던져야 한다. 내가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하는 생각을 하면 언어 장벽을 쉽게 극복할 수가 없다. 선교도 언어를 배운 후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선교사라는 직함이 선교하는 것은 아니다. 내 주위에 있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현지인이 나의 언어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물건을 하나 사면서도 물건만 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물건 이름과 나오는 시기 장소 등을 물어 보고 본인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들은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에 호기심을 갖고 친절하게 답해 준다(물론 모든 나라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현지인을 대할 때 긴장감이 없어지게 된다. 이 긴장감이 해소되면 언어는 반은 배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입을 많이 열라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잘 못하는 말이지만 말을 많이 하려고 할 때 새로운 어휘들을 배울 수가 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해서 말을 늘려서 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상은 쉽지 않은 문제인 줄 안다. 막 말을 배우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는가? 그



장승원 그림

**선교지에 온지 4~5년이 되었어도
언어에 문제가 있으면, 현지인들도
노력을 안 하는 자로 여겨 함께 동역하기를 꺼리므로
선교사는 고립되기 시작한다.**

러나 일상생활 이야기, 혹은 지난 과거 이야기
를 현지어로 만들어서 사람을 만나 대화할
준비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
다.

나는 신학교에 다닐 때 저녁식사 후에는 꼭
한 명의 학우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말을 많
이 하려고 노력했었다. 그 때마다 학우들이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은 당연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모로 열심히 노력
해야 한다. 그 노력이 몇보일 때 주위에서 도
와주려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난다.

마음은 느긋하게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 “빨
리 빨리”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그만큼 조
급하고 여유가 없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라고 생각한다. 타국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
를 배울 때는 마음에 여유를 갖고 언어를 배
울 필요가 있다. 처음 배울 때에 차근차근 배
우지 않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언
어 학습이다. 말을 빨리 배워서 빨리 선교 사
역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러나 언어가 되었다고 선부르게 생각하고 사
역에 뛰어들면, 얼마 못 가서 한계 상황에 도
달하여 언어를 다시 배우기도, 사역을 계속하
기도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이 문제는 후원자의 선교에 대한 인식
정도와의 관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의 마음 자세이다.
선교 기초 작업을 위해서 2~3년동안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만큼 여유를
가지고 착실하게 언어 학습을 해야 한다. 중
국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만만디”(慢慢的)이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유가 필요하다. 선교지에 온지 4~5년이 되
었어도 언어에 문제가 있으면, 현지인들도 노
력을 안 하는 자로 여겨 함께 동역하기를 꺼
리므로 선교사는 고립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는 길은 선교사 자신이 언어
학습도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가
지고 차근차근 언어 학습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일단 사역 속에 뛰어들
면 사역에 분주하여 언어를 돌아볼 여유가 없
는 것이 선교지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중문과를 졸업하고 대만에 가서
일년 간의 언어연수를 하고, 현지 신학교에
입학해 3년 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졸업과 동
시에 단독으로 현지인 교회를 담임할 수 있었
다. 물론 그 3년이란 기간은 공부하면서 언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 기간
이 쉽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가슴이 설레이면서 두
렵기도 한 여러 가지 충격 가운데, 나 자신의
언어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되었던 것을 몇 가
지 적어 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선교에 있어서 언어는 필수이며, 선교사가 가
장 먼저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다. 이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후원자들이 선교사를 느
긋한 마음으로 지켜 봐주고 언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은 영적으로 메말라지기 쉬
우므로 후원자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더욱 절
실히 요청된다.

김상희 / 선교사 · 한국오엠에프 대전지부 총무



중국의 도시선교

이문식

대도시 선교개론

선교사적 이해(Missiological Approach)

대도시 선교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교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개신교 선교 역사는 18세기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때부터 선교의 역사는 몇 가지 방식으로 발전되어 갔다.

해안선교(Beach to Beach Model)

선교의 역사를 나누는 방식 중 독특한 방식의 하나인 지역적 방식은 지역을 어떻게 확대시켜 모델로 삼아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처음 나타난 것은 해안선교이다. 이 시기의 선교사들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해변도시에 정착하여 기본적인 전략들을 세우고 현지인들과 접촉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역을 하였다. 서방세계에서 미리 진출한 사람들과 함께 현지에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번역하며, 과송받은 국가나 교회에 선교정보를 전해주고 선교동기를 고취하는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내지선교(Inland Model)

이후에 지역적으로 변화된 방식이 내지선교(Inland Mission)이다. 해안에서 어느 정도 정착한 후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

숙한 내륙으로 들어가는 선교방식인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그 유명한 중국내지선교회(CIM)의 창립자 허드슨 테일러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다. 내지선교는 서구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제3세계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물론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들어갔지만 그 길을 통해서 서구 문명도 함께 전파되어 이 시기의 선교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선교사들이 내지로 들어온 이후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는 두 체제로 양분되었다. 선교사들도 국적에 따라 활동의 제약을 받거나 결국은 철수를 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1945년 이후 전후 민족주의가 부흥하고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면서, 기독교는 그 대표적인 비판대상이 되었다. 서구 제국주의나 서구 문물을 전파할 때 기독교가 앞장섰다는 반감 때문에 선교가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선교사들이 정면에 나서서 직접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제는 현지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자국인을 복음화하도록 도와주는 파트너십으로의 선교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 나이지리아 등이다.

초문화, 부족선교(Beyond Culture, Tribes Mission) 모델

자국민에게 자율권을 주어도 자국민들이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선교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문명권 너머의 소수부족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이 소수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사역의 하나로 생겨난 것이 성경번역선교회(WBT)이다. 말은 있으나 언어가 없는 부족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소리를 문자로 만들어, 그들의 문자로 된 최초의 책인 성경을 번역하여 그 부족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역은 목회자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 예를 들면 교사, 언어학자, 의사, 간호사, 항공 운항사 등이 협력하는 팀사역이어야 했다. 이때부터 국가나 민족단위가 아닌 종족, 부족단위의 초문화선교, 부족선교가 발전되었다. 이 사역은 1950년대에 시작되어 약 30~40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부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후 민족국가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관심조차 가지지 못하는 오지에 선교사들이 직접 들어와서 문화를 전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들이 차츰 강력한 중앙정부를 세우고자 하면서 이를 위해 공용어 정책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각 부족의 방언과 문화를 지키려는 선교사들의 사역은 그들의 정책에 방해가 되는 것이므로 부족선교 사역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전후 민족주의 국가들은 경제부흥을 위해 밀림에서 자원을 끌어와야 했고, 또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부족의 젊은이들을 도시로 끌어와 산업 노동력으로 재편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의 전통과 공동체를 지키려는 선교사들의 사역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부족선교 사역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도시선교(Urbanization)의 대두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전후 민족국가들이 차츰 강력한 국가권력을 확립하고자 하면서 선교사들의 부족사역은 방해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부족선교 사역은 위기를 맞게 된다. 방글라데시 농촌의 한 가족. 많은 아이들이 눈길을 끈다.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노인만 남아 마을을 지키게 되고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하면서, 이제 미래를 결정하는 창조적인 힘은 대도시에서부터 시작하여 퍼져 나가게 되었다. 각 나라마다 양상은 틀리지만 거의 비슷한 대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21세기 선교는 '대도시 선교'라고 할 만큼 이제 도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대도시 선교상황 전세계적 도시화 현상

지역	1950년	2000년
아프리카	15%	39%
남미	41%	76.8%
아시아	16.4%	50%
선진국	53.8%	74.4%

세계의 도시화율은 매우 빨라지고 있다. 2000년에는 10명 중 8명은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예측이다. 2000년 전에는 전세계가 농촌이었으나 현재는 1천만 이상의 거대(Supergiant) 도시가 12개 이상이며, 세계 10대 도시 중 8개는 개발도상국에 있다. 특히 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의 도시화는 놀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8개의 거대 도시 중 동경, 서울, 멕시코 시티, 캘커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도시는 중국의 북경, 상해, 심천, 항주이다.

도시화의 특성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발전한 서구에 비해, 사회적 제반시설이 미처 갖춰지지 못한 10~20년 사이에 갑자기 생겨난 아시아의 대도시화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것의 문제는 그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런 문제였지만 우리에게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은 사실이다.

아노미 현상

농촌에 뿌리를 박고 살던 사람들이 대거 도시



농촌에서 도시로 온 사람들은 익명성 속에서 자유를 느끼면서도 개인의 고독과 소외감에 진정한 만족을 찾아 방황한다. 중국 베이징의 젊은이들.

로 떠나오면서,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전통이나 규범이 깨어지는, 이른바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가정이나 사회의 변화에 부적응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은 젊은이나 노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그 종족의 최고 우두머리(추장)가 복음을 받아들여 부족 전체가 믿게 되지 않는 한 개개인에게 복음을 믿게 하기란 좀처럼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전의 사회가 갖고 있던 지위, 규범이 약화된 도시화 상태에서는 개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익명성

전통사회에서는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였지만, 도시로 나오게 되면 여러 사람 속에 섞여 있는 익명성 속에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소외감

도시인들은 익명성의 자유를 느끼면서도 개인의 고독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교회는 도시인들의 이러한 심리적 이중성을 염두에 두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열린 작은 소그룹을 조직하여 접근해야 한다.

계층형성

학교, 공단지역, 도시 빈민 등의 동질집단이 형성되어 그들끼리의 계층이 형성된다. 교회는 삶의 방식이 비슷하며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으로 인도해갈 수 있어야 한다.

게토지구 교회의 형성

계층이 형성된 후 교회에서도 중산층은 중산층끼리 빈민층은 빈민층끼리 모이는 형식의 게토지구 교회가 형성된다. 이 게토교회는 사는 지역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각기 다르므로 도시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종교적 수용성의 확대

도시생활이 불안하고 적자생존의 원리가 적용되어, 개인적인 존재의 불안감이 쌓이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종교적인 수용이 커지게 된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부흥은 대도시 중하층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종교적 열광주의 현상

기독교인들은 도시생활에서 느껴지는 위기의식을 교회에서 표출하고자 한다. 이렇게 열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교회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교회보다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배와 계층별로 그들의 정서에 맞게 접근하는 소그룹이 형성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다.

사회적 실천

각 계층별로 제자양육이나 성경공부를 거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뒤에는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적 실천 프로그램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또 도시에서 자라난 신세대들에게는 전통적인 방식이나 기복적인 신앙 스타일로 접근할 수 없다. 이들의 심리에 맞는 고도의 음악성을 가진 젊은이들의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도시선교는 계층선교다. 이전에는 인종, 민족, 나라의 선교였으나 이제는 계층을 넘어서는 선교로서 이것을 중산층 교회가 담당해야 한다.

중국에서의 도시화 현상

한국 등 여타 다른 아시아 국가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그에 따른 선교적 양상의 변화를 연구하고 관찰하면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접근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만을 들 수 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산지족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60, 70년대 공업화가 일어나면서 산지족 젊은이들이 대거 도시의 공단으로 떠나면서 산지교회는 텅텅 비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젊은이들을 따라 공단으로 이주, 공단 내에 선교센터를 세워 그들의 고민, 상처, 불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사역을 시작하였다. 홍콩에서도 본토로부터 이주해 온 이들에게 이와 유사한 사역을 하였다.

도시민 계층분류

중국의 도시화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이들을 크게 3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농촌의 공산당 간부 혹은 부호의 자녀로서 도시로 유학와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이다. 이들 대학생들은 미래 중국의 정치, 경제, 상업,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들이다. 미래의 중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근거지인 대학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된다.

둘째는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든 젊은이들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범한 농민의 자녀들이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와서 공단 노동자로 일하며 노동자층을 형성하였다.

셋째는 시골에서 생활이 어려워 가족을 이끌고 정착하여 잡화나 행상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전형적인 도시 빈민들이다. 이러한 빈민가정은 정착촌을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유동적이지 않아 전통적인 선교방식의 복음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캠퍼스나 공단지역의 젊은이들은 역동적이고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에 같이 움직이면서 선교를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중국의 도시화의 특징

해안도시의 인구유입 현상

중국은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개혁개방을 시작하였으나 개방을 하고 나서 그 이익을 먼저 농촌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 단맛을 본 농촌의 지지를 얻어 성공할 수 있었다. 물류이동이 유익한 대련, 광주, 심천 등의 해안도시를 먼저 산업개발하고 난 뒤 점차 내륙연안도시를 개발했기 때문에 도시화도 해안도시에서 먼저 일어났다. 그래서 내륙지방의 많은 이들, 심지어 연변의 조선족들도 돈을 벌기 위해 북경이나 상해 등 해안도시로 몰려드는 대규모의 인구유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해안도시의 정부의 통제가 농촌보다 직접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들을 복음화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구조로 굳어져 있는 이들의 고향에서보다 더 쉽게 이루어진다.

집단 주거지역의 재편 과정

해안도시로 유입된 젊은이들이 사는 월세방이나 단칸방의 집단주거지역이 형성된다. 이들 젊은이들은 도시의 삶 속에서 문화적 결핍을 느끼게 되지만, 막상 이들이 건전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그래서 이들 젊은이들의 주거지 주변에 유흥, 환락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선교적 소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들이 문화적인 여유를 향유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션센터를 세워 일 대일로 만나 상담하고 양육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는 복음사역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접촉점을 찾아 전도하는 사역은 대학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대학가에 가보면 알겠지만 대학생들이 가서 건전하게 즐길 마땅한 장소가 없다. 이들이 문화적 접촉을 할 수 있는 책, 영화, VTR, 외국서적, 잡지 등을 갖춰놓은 카페 등을 사업으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선교적 전략이 될 것이다.

도시 빈민층의 형성

위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농민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와서 도시빈민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선교할 때에는 돈을 함부로 주거나 나만 잘 따르면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등 돈이 미래를 보장해준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돈 선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민공들의 유입

내륙지방의 목공이나 기술자들이 북경, 상해 등 대도시에서 많이 몰려오에 따라 '인간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 일용근로자를 민공(民工)이라고 한다. 살기가 힘들고 위기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복음은 강한 흡입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들은 유동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양육하기 어렵다. 우선 이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저항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친밀감을 느끼도록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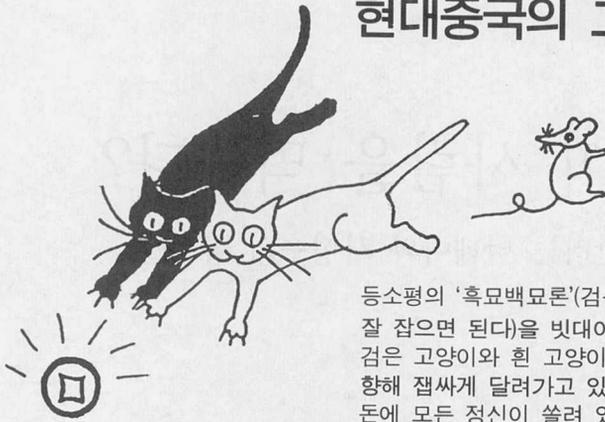
씨 뿌리기 전 밭을 가는 간접적인 사역이 중국의 도시에서 필요하다.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10월 30일 중국어문선교회가 주최하여 열린 『중국선교 정기 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문식 / 남북나눔운동 기획실장, 남서울교회 협동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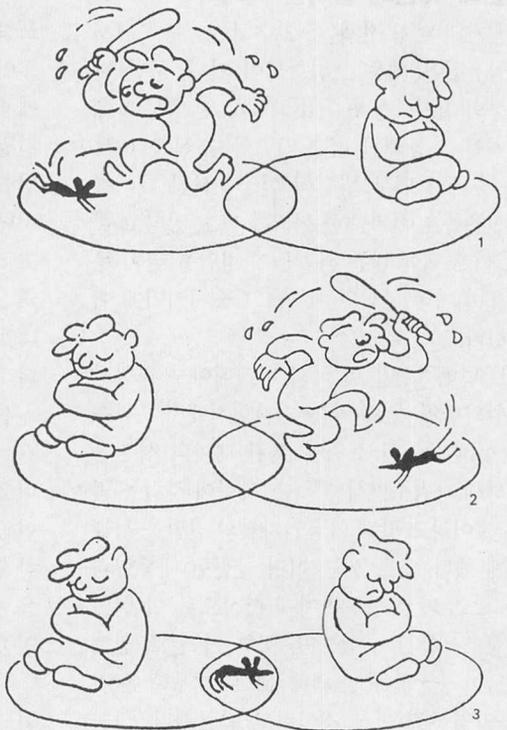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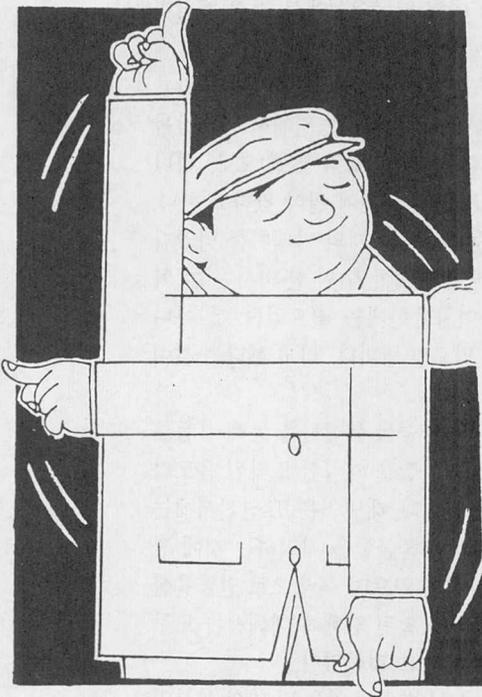
현대중국의 고양이(現代猫)



등소평의 '흑묘백묘론'(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을 빗대어 그린 만화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가 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돈을 향해 쩍싸게 달려가고 있다.
돈에 모든 정신이 쏠려 있는 현대 중국인들의 배금주의를 상상할 수 있다.
〈工人日報〉에서 발췌

내 책임이 아닙니다! (責任不在我!)

책임의 범위(責職範圍)



중국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책임을 미루는 것을 풍자한 만화.
〈當代中國漫畫集〉에서 발췌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

사고 팔리는 낙태아와 사형수의 장기들

선전(深圳)의 한 국립병원에서 낙태아를 환자에게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낙태아를 몸보신이나 병치료에 이용하는 사례는 엄연히 존재한다. 다만 구체적 상황이 좀 복잡할 뿐이다. 낙태아와 사형수의 장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미국 국회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민폐 10원에 팔리는 낙태아

「한 자녀 낳기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에서 인공유산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지난 달 홍콩의 잡지 「동주간(東週刊)」 및 영문 자매 잡지인 「동쾌신(東快訊)」의 소식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 병원이 인공유산된 태아를 보신용품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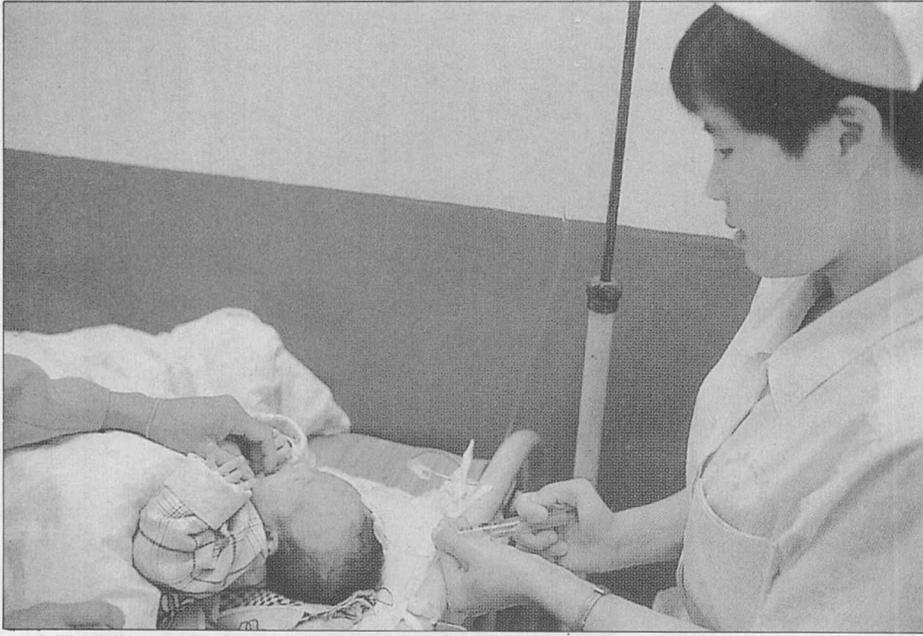
'95년 5월 3일 미 국회 버지니아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울프 씨는 기자회견에서, 「동주간(東週刊)」의 표지에 실린 태아의 사진을 복사해 나눠주면서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먹는 것'이라고 말해 미국기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울프 씨는 이미 클린턴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에게 서신으로 이 일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며, 또한 이 일로 인해 미국이 중국을 줄곧 최혜국으로 대우해 온 것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낙태아와 신체장기의 매매에 관해 논하면서, 지난해 10월 사형수의 장기를 팔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국립병원에 대해 영국 TV에서 기획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이런 보도들은 정말 사실인가? 「동주간」에 의하면 선전의 한 국립병원에서 낙태아를 건강식품이나 천식의 영약(靈藥)으로, 하나당 인민폐(人民幣) 10원에 팔아 왔다고 한다. 지난 반년 동안 1백여 개의 낙태아를 먹었다고 하는 후베이성(湖北省)의 한 의사는 “어차피 유산한 여자들한테는 필요없는 것 아니냐?”며 “안 먹으면 낭비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선전시 당국은 중국 통신사를 통해 「동주간」의 기사는 사실을 왜곡한 조작된 음모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대변인은 또 선전시에는 인공유산 때의 배출물들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있으며, 불법으로 인공유산을 시행하다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엄중히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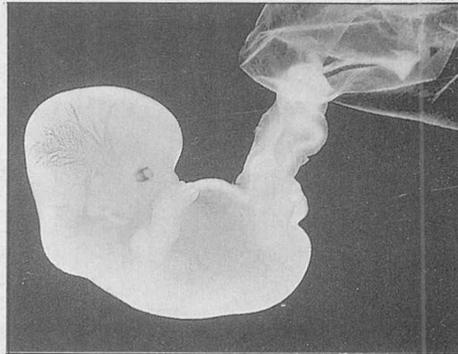
아주주간은 이 병원에 있는 몇 명의 산부인과 간호사들을 만나보았는데, 이들은 모두 「동주간」의 기사가 터무니 없는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사 전부를 다 봤다는 한 간호사는, “다른 병원에서도 낙태아를 판 것에



중국의 병원. 중국정부는 낙태아를 식용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 병원에서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사가 우리 병원에 대해 다룬 부분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자신들은 평소에 인공유산 수술이 끝난 후 배출물을 즉시 처리한다고 했다. 이 병원에서 10여 년 간 산부인과 청소원으로 일한 한 아주머니는 “내가 매일 유산된 낙태아들을 쓰레기통에 버린다. 누가 감히 이런 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라며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이 병원의 한 책임자는 이 일로 인해 병원이 곤경에 처해 있고, 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정리해 위생국에 제출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전전시의 두 국립병원이 이 사건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국 사람들이 낙태아가 영양이 있고 약용가치가 있어 보신과 천식 치료에 효험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 낙태아를 친인척에게 식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 그러나 매매상황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다. 광저우(廣州)의 한 대학생은 몸보신을 위해 어머니가 꺾어 준 낙태아를 먹



미 국회의 청문회에 참석하여 중국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폭로하고 있는 해리 우. 미국은 현재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는 중국에게 장기매매 사건을 빌미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었다고 한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광저우(廣州)의 산부인과 의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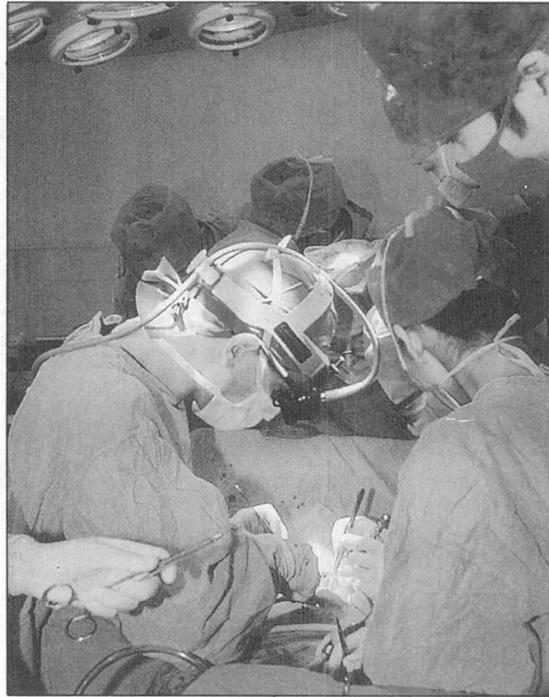
서방의 인권조직은 이미 중국대륙의 사형수 신체장기의 매매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던 터라, 이번 낙태아의 판매문제로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 '95년 5월 4일 미국의 상원의원 외교관계위원회의 회의석상에서 아시아 인권조직은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출석하여 증언한 사람 중에는 중국대륙 공안계통에서 10여 년 간 일한 까오페이치(高沛其)와 노동개조(勞動改造)로 19년을 보낸 해리우(吳弘達)도 포함돼 있다.

북경 정부는 매번 사형수의 장기를 타인에게 이식하기 전 동의서에 사형수의 친필서명을 꼭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까오페이치는 이식 전에 사형수의 동의를 구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한다. 우홍다 역시, 사형수가 있다는 것은 집안의 수치이므로 시체를 찾아가는 가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다년간 시행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년 '5·1'노동절 전후로 광저우 난팡(南江)병원의 이식전용 병실은 환자로 만원이었다. 홍콩, 타이완(臺灣),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온 20여 명의 신장병 환자들이 이곳에서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다.

천(陳) 여사의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신장병을 앓아왔다. 후에 요독증(尿毒症)으로까지 전이되자 의사는 그에게 신장 이식수술을 권했다. 그러나 홍콩에서 새로운 신장을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절망하던 중 천 여사는 광저우 난팡병원에 가면 금방 신장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됐고, 1개월 전에 남편과 함께 이곳 광저우로 와 대기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남편에게 적합한 신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현재 천 여사의 남편은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을 위해 20만 홍콩달러(약\$26,000)를 썼지만 남편의 쾌유를 위해서라면



중국은 낙태아와 사형수의 장기를 매매하여 외교적인 풍파를 일으켰다.

더 많은 돈이 들어도 상관없다고 천여사는 말했다. 린(林) 선생 또한 아들의 신장 이식수술을 위해 인도네시아로부터 이곳까지 왔다.

홍콩의 영문지 「남화조보(南華早報)」는 노동절을 전후로 난팡병원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는데, 그에 따르면 당국에서 사형수들을 무더기로 처형 '물건이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천 여사와 린 선생도 최근에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장의 출처에 대해 이 두 사람 모두 총살당한 사형수들의 것이라고 들었다 한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는 신장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왔는지, 합법적인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사람을 살리는 게 급한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따지다 보면 새로운 신장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홍콩과 마카오 등 해외로부터 온 화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우대해주지만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든다. 수술비, 기관(신장)비 및 입

원비를 합해 인민폐 12만에서 20만 원(한화 약 천백만 원에서 천구백만 원)정도가 든다. 이런 비용들은 환자의 신체 상황이나 수술 후의 회복상태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대륙에서 신체의 장기를 기증하는 일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난팡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한 의사는 지금 대륙에서 이루어지는 이식수술 중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술은 신장 외에 간장과 췌장, 심장이식이라고 한다. 이런 기관의 공급원은 절대 다수가 사형수의 것이며 이들의 나이는 18세에서 35세 정도라고 한다. 수술의 경위는 병원의 구급차가 통상적으로 사형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총살이 끝나자마자 시체를 구급차 안으로 옮겨 기관을 빼낸 다음 잘 씻어 식염수에 담갔다가 미리 대기중인 환자에게 급히 이식하는 것이다.

량즈홍(梁智鴻)과 정지엔보(鄭鑑波)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이나 의사를 소개시켜 주는 일은 의사의 기본 의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장기의 매매가 존재하느냐는 점이라고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어차피 사형수들은 죽을 목숨인데 그 장기를 이용해 위급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 나쁘다 할 수만은 없다고 하지만, 불법으로 사형수들의 장기를 매매해 이익을 꾀하는 일은 분명히 재

검토해 볼 문제이다.

중국의 낙태아와 사형수 장기 매매에 관한 미 국회의 반응은 홍콩보다도 격렬하다. 국회 기자회견과 5월 4일에 있었던 상원의원이 주최한 회의 이외에 상원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운영 및 인권조직위원회 의장인 스미스도 앞으로 끊임없이 회의를 열어 대륙의 한자녀 낳기 정책과 종교자유 등에 대해 연구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의원 울프 씨는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는 중국이 이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낙태아와 사형수의 장기매매에 관련된 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는 작년 클린턴의 중국의 최혜국 대우 결정과 인권문제의 해결 이후 북경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다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상원의원 외교관계위원회 의장 헤르메스의 비서는 헤르메스가 장기매매를 겨냥해 입법화할 의향은 없다고 전했다.

편집자 주: 이 글은 『亞洲週刊』(1995.5.21)에 실렸던 “「人吃人」與外交風波”를 번역한 것으로 아주주간의 승인을 얻은 것이다.(本文轉載自亞洲週刊1995年5月21日 27~29頁, 已得批准)

번역 / 신호정 · 자원봉사자

**선교일꾼을
찾습니다**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두란노 해외선교회(TIM)에서는
12억의 영혼이 추수를 기다리는 넓은 들판에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함께 이루어 갈
전문인 사역자를 찾습니다.

사역내용 : 피아노 교사, 국어교사, 치과위생사

커피숍 봉사자, 농업, 원예전공자

기간: 1년 또는 장기

문의: Tel. 796-1300(교 603) Fax.749-5498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박림빌딩 6층 601호

근대 신앙의 고도(古都) 강소성 · 안휘성 · 절강성

강소, 안휘, 절강의 3성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 산업이 발전해 왔다. 화동지구의 중심지로 전국 도로와 항공망의 중심지 중 하나인 강소성의 남경(南京)은 육조의 도읍지로 서구열강의 식민지 전쟁 당시 열전을 치른 파란만장한 근현대사의 중심지이다.

안휘성은 삼국지의 무대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인근 경제개발지구에 공급하고 있다. 중국역사 초기에 오랑캐의 땅이라 불리던 절강성은 가장 안정적인 문화를 유지하여 소동파, 백낙천, 이백, 노신 등 중국문학계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 세 지역에서는 기독교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한때 공산주의자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곳으로 지금까지도 활발한 신앙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강소성(江蘇, 蘇, Jiangsu)



위치: 중국 동부 해안, 양자강 하류에 위치하며 동으로는 황해에 연해 있고, 서로는 안휘성, 남으로는 상해와 절강성, 북으로는 산둥성과 접경하고 있다.

면적: 102,600km²

인구: 7,020만 명, 인구밀도 685명/km²

민족: 한족이 대부분이며 소수의 회족, 만주족이 거주한다.

행정구역: · 성도(城都)-남경(南京:Nanjing)

· 11개 지급시(地級市)- 남경(南京), 서주(徐州), 연운항(連雲港), 회음(淮陰), 염성(鹽城), 양주(揚州), 남통(南通), 진강(鎮江), 상주(常州), 무석(無錫), 소주(蘇州)시

· 그 밖에 15개 현급시, 49개 현이 있다.

기후: 2가지 형태의 기후가 존재한다. 중부와 남부는 습기가 많은 아열대성 기후이며 북부는 서늘한 대륙성 기후이다. 4계절이 비교적 분명하며, 여름철 평균기온이 섭씨 27℃, 겨울철이 0℃ 안팎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1000mm 전후이며 여름의 장마기간이 길고 매년 8월 말을 전후하여 반드시 태풍이 통과하는데 태풍의 강약이 본 성의 풍년과 흉년을 좌우한다.

강소

성은 중국에서 가장 지대가 낮고 평탄한 성이다. 서남쪽과 북부에 나즈막한 산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을 뿐, 성 전체면적의 69%가 평원이다.

강소성의 대부분은 원래 푸른 바다였다. 오랜 세월을 두고 장강(長江), 회하(淮河), 황하(黃河) 등 하천의 사토가 축적되어 육지를 이루었기에 비록 그 면적은 작지만 토지는 비옥하기 그지없다.

동서를 관통하는 장강, 남북으로 놓여있는 징항운하(京杭運河), 드넓은 평원 곳곳에 산재해 있는 크고 작은 호수 등 수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성 전체면적의 17%나 되어 명실상부한 '물의 고장(水鄉澤國)'이다. 수천 수백 년을 거치며 끊임없이 건설된 수로와 강물이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어 사람들은 일찍이 배로써 물을 슬기롭게 이용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타고난 자연의 혜택 아래 예로부터 쌀과 물고기가 양산되어 '어미지향(魚米之鄉)'이라는 별칭이 붙여 온 강소성은 쌀의 생산량, 컴퓨터 부품을 포함한 첨단 과학기계시설, 중화학 공업에서 경공업까지 중국 공업 대동맥 중의 하나이며 전국적으로 부유한 성에 속한다.

구조(九朝)의 고도(古都) 남경(南京)

흔히들 남경을 육조(六朝)의 고도라고 하는데, 이는 동오(東吳), 동진(東晉), 남북조시대의 송(宋), 제(齊), 양(梁), 진(陳)의 고도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명(明)나라 초기 주원장이 처음 남경에 도읍을 정하였다가 제2대 황제 때 북경으로 천도한 사실과 11년 간 (1853~64년) 태평천국군의 수도가 되었던 사실 및 손문 등이 중심이 되어서 청조를 타도하고 중화민국의 임시정부를 두었던(1912년) 사실들을 합한다면 남경은 가히 구조(九朝)의 고도라 할 수 있다.

남경은 파란만장한 근현대사의 중심무대이기도 하다. 중국이 서구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남경조약(1842년 8월)이 체결된 곳이며, 1937년 12월 13일부터 남경을 함락한 일본군에 의해 1주일 간 대학살이 자행된 곳이기도 한데, 이 때 집단총살당하거나 생매장당한 사람의 수가 30만을 넘는다고 한다.

지금은 전국 도로와 항공망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장강, 장강대교라는 교통의 대동맥을 배경으로 철강, 석유, 화학, 기계, 방직 등의 공업이 번성한 인구 3백여만의 현대도시로 옛 상흔은 찾아보기 힘들다.

물과 정원의 도시 소주(蘇州)

중국에서는 옛부터 '강남의 정원은 천하제일, 소주의 정원은 강남제일'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말대로 소주에는 송, 원, 명, 청대에 꾸며진 빼어난 정원이 많고 각기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멋을 지니고 있다.

시 남서쪽에는 광대한 태호(太湖)가 있고 여기서



소주 사람들의 생활은 운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흐르는 물은 소주를 감돌아 장강으로 흘러든다. 시 전체가 외성하(外城河)라는 운하로 감싸인 물의 도시로 소주 사람들의 생활은 모두 흐르는 운하와 이어져 있다. 그들은 운하에서 얼굴을 닦고, 다발로 묶은 대나무 그릇을 씻으며 쌀과 야채를 행군다.

인구는 84만이며 비단, 자수 등의 소주 전통 특산물은 그 역사가 유구하고 예술적 가치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태호(太湖)반의 작은 상해 무석(無錫)

인구 93만의 무석은 양자강 하류 태호(太湖)반에 있으며 '작은 상해'라는 별칭이 있다. 주석이 많이 생산되어 주(周)대에는 유석(有錫)이라 불리웠으나, 더이상 주석이 나오지 않자 무석이라 불리게 되었다.

기후가 적합하고 물산이 풍부한 풍요로운 곳이다. 수(隋)대에 만들어진 대운하가 거리의 가운데로 통과하여 물자의 집산지이기도 하다. 20세기 초에 공업의 규모를 갖추었고 지금은 경방, 전자공업 위주의 현대 공업도시 및 관광도시로 유명하다.

기독교 현황

19세기에 남침례회에서 양주(揚州) 등의 도시에 선교사들을 파송했으며 또한 다른 도시들에서도 많은 사역을 수행하였다. 서주(徐州), 남경(南京), 무석(無錫), 진강(鎮江)은 모두 기독교 활동의 중심지였고 1940년대까지 교회는 확고하게 서 있다.

문화대혁명 동안 공개적인 기독교 활동이 중지되자 교회는 지하로 잠적해야만 했다. 1981년 말, 삼자교회와 협력하기를 거부한 몇몇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남경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전국성을 띤 남경 금릉협화신학원(金陵協和神學院)은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과 교수진을 갖추고 있으며, 유일하게 3년제의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어 신학교수들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절강성과 더불어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 1985년 강소성의 삼자애국운동위원회는 본 성의 그리스도인이 25만 명이라고 발표했으나 2년 뒤에는 30만 명으로 수정했다. 이것은 강소성의 교회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안휘성(安徽, 皖, Anhui)



위치: 화동지방의 서부에 위치하며 양자강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자리잡고 있다. 동으로는 강소(江蘇)성과 절강(浙江)성, 서로는 하남(河南)성과 호북(湖北)성 남으로는 강서(江西)성, 북으로는 산둥(山東)성 등 6개 성과 접경하고 있다.

면적: 139,700km²

인구: 5,834만 명(1992), 인구밀도 419명/km²

민족: 대부분 한족이며 회족, 서족, 만주족 등 36개 소수민족 약 26만 명 정도가 거주한다.

행정구역: · 성도(省都) 합비(合肥; Hefei)

· 7개 지구- 선성(宣城), 지주(池州), 육안(六安), 소호(巢湖), 저현(潁縣), 부양(阜陽), 숙현(宿縣) 지구

· 8개 지급시(地級市)-합비(合肥), 회남(淮南), 회북(淮北), 무호(蕪湖), 동릉(銅陵), 봉부(蚌埠), 마안산(馬鞍山), 안경(安慶), 황산(黃山)시

· 그 밖에 9개 현급시, 63개 현이 있다.

기후: 덥고 습기가 많은 여름과 서늘하고 건조한 겨울이 특징인 계절풍 몬순 기후이다. 전지역이 온화(1월 3°C, 7월 28°C)한 편이나, 북부는 여름에 집중호우가 자주 내려 홍수가 나는 일이 많다. 연 강수량은 800(북부)~2,000mm(남부)내외로 지역에 따라 차가 크다.

회하

(淮河)와 장강(長江) 두 물줄기가 안휘성의 윗목과 아랫목에 가로누워 자연스럽게 북부, 중부, 남부의 세 구역으로 나누는데 북부는 드넓은 평원이요, 중부는 분지, 남부는 구릉과 산지로 각기 그 지형에 따라 산업과 인문의 발달을 달리하고 있다.

안휘성은 농산물의 주산지로 총면적의 1/3이 농경지이고, 남부의 산지와 구릉에서 재배되는 차(茶)는 7세기부터 수출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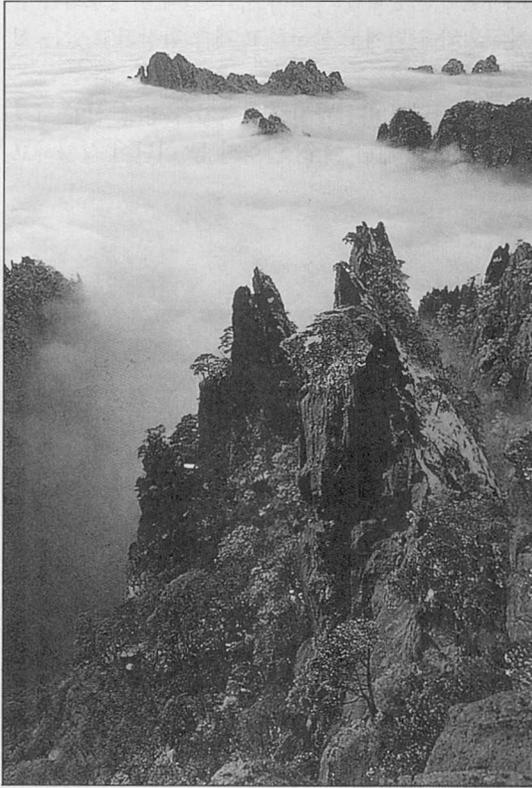
화동지방의 오지로서 장기간에 걸쳐 경제가 낙후되었으나 80년대 중반부터 식량·기름 및 에너지(석

탄, 전력)의 주요생산지로 개발되어 인근 양자강 경제개발구와 함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삼국지의 무대 합비(合肥)

안휘성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합비는 지리적으로도 안휘성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인구 백만의 도시이다. 동비천(東肥川)과 서비천(西肥川)이 합류한다고 해서 합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옛 이름은 여주(廬州)로써 강남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으며 「삼국지」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도이지만 근년에는 신



안휘성 동남부에 위치한 황산은 천하의 절경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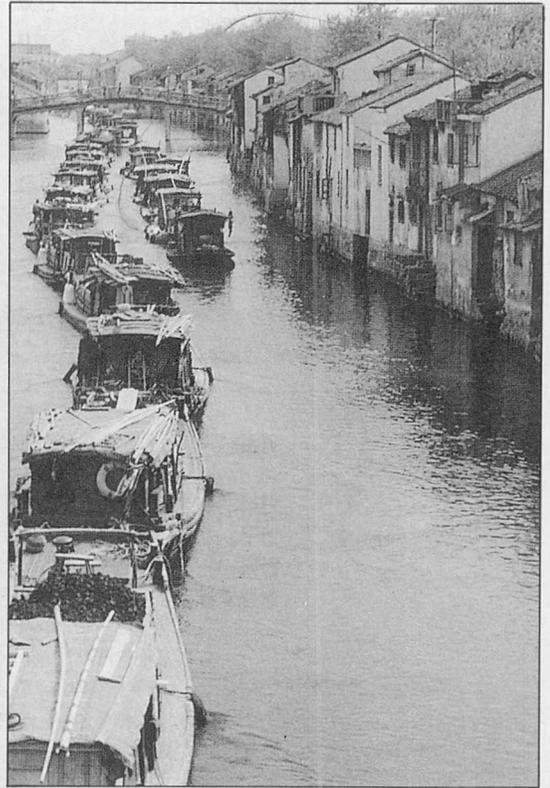
홍 공업도시로 철강, 기계, 전자, 화공, 방직, 건축자재 등 공업이 발달했다.

합비시에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중국과학기술대학(中國科技大學)이 설치되어 있는 등 전국적으로 중요한 과학교육의 중심지이다.

천하의 절경 황산(黃山)

안휘성의 동남부에 위치하는 황산시는 황산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소도시로, 근래에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황산 풍경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이 황산시로 승격하였다.

황산은 천하의 절경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이름만으로 보면 단독으로 된 산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실은 연화봉(蓮華峰)을 비롯한 72봉으로 이루어진 산의 총칭이다. 절묘하기 이를 데 없는 기암(奇岩) 절벽에, 어느 신선도애나 있을 법한 기묘하기 그지없는 소나무(奇松)들, 그 사이사이로 상서로운 구름의



'동양의 베니스'라 불리는 절강성 소흥의 운하와 그 사이를 오가는 배의 행렬. 일명 '보트 기차'라 한다.

무리들(雲海)이 시시각각 움직이며 가지가지 오묘한 형상을 이루는데, 이 세 가지를 황산의 '삼기(三奇)'라 한다. 여기에 온천(溫泉)을 더해 '황산사절(黃山四絕)'이라 일컫는다.

안개 짙은 황산에서 나는 모봉차(毛峰茶)는 잎이 두껍고 향기롭기로 유명한데 황산의 향긋한 샘물에 끓이면 천하일품이라 한다.

기독교 현황

1869년 내지회 선교사 미도우스(Meadows)와 윌리엄슨(Williamson)이 안경(安慶)에서 개척사역을 시작한 후 여러 선교단체가 유수의 교육기관들을 세우며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 1930년대에 이르러 중국인이 사역하는 건실한 교회가 건립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서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열매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위치만 니도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했으며 석방 직후인 1972년 6월 1일에 소천했다.

현재 안휘성의 교인들은 비록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은 아니지만, 대부분 방언이나 신유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모하며, 그 결과 가정교회는 삼자교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역자와 성경, 신앙 서적이 부족하고 재림 예수, 안식회 등 이단이 성행하고 있다.

절강성(浙江, 浙, Zhejiang)



위치: 동쪽은 동중국해, 북으로는 상해시와 강소성, 남으로는 복건성, 서로는 안휘성, 남으로는 강서성과 접경하고 있다.

면적: 101,800km²

인구: 4,236만 명(1992), 인구밀도 424명/km²

민족: 대부분 한족이고 소수의 회족, 만주족, 묘족 등 여러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행정구역 · 성도(省都)- 항주(杭州: Hangzhou)

· 2개 지구- 대주(臺州), 여수(麗水)지구

· 9개 지급시- 항주(杭州), 영파(寧波), 온주(溫州), 가흥(嘉興), 호주(湖州), 소흥(紹興), 금화(金華), 구주(衢州), 주산(舟山)

· 그 밖에 16개 현급시, 50개 현, 1개 자치현으로 구성

기후: 주로 몬순 기후의 영향을 받는 습기가 많은 아열대성 기후이다. 그러나 특히 겨울에는 해안과 그 배후지, 북쪽과 남쪽, 그리고 저지대와 고지대 사이에 뚜렷한 기온차가 나타난다. 연평균기온이 18℃이며 1월에는 3℃정도, 7월에는 28~30℃이고 연강우량은 1,000~1,800mm이다.

절강이라는 이름은 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전당강(錢塘江)의 옛 이름 절강에서 유래한 것이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성이지만, 해안선은 2,200km에 달하고 연해 항구가 발달하였으며, 크고 작은 섬이 2,100여 개나 된다. 산이 많고 평지가 적어 '70% 산, 10% 물, 20% 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산, 물, 섬'이 많은 3다(多)가 지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절강성은 중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문화를 유지했던 곳이다. 황하문명이 중심이 되었던 중국 역사 초기에는 오랑캐의 땅이라 불리기도 했으나, 전국시대 말 오(吳)와 월(越)이 번갈아가며 패자의 지위를 누르던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시절에 이르러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 후 문화의 발전이 계속되어 중국문학사에서 내노라 하는 소동파(蘇東坡), 백낙

천(白樂天), 이백(李白) 등의 일필휘지 아래 많은 주옥같은 작품들이 탄생하였다.

장강 삼각주의 남쪽 날개에 해당하며 동부 연해 경제발달 지대의 중간에 위치하여 경제 전달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북경과 항주간의 징항운하(京杭運河)는 세계에서 제일 긴 대운하로 절강성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높여주고 있다.

절강성은 차(茶)산업에서 중국을 선도하고 있는데 전국 차생산의 1/4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항주(杭州), 호주(湖州), 가흥(嘉興)을 중심으로 한 양잠업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노동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경영과 관리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고 상품경제의식이 발달하였다. 생활수준은 전국 3위에 해당하며 공업발전의 속도는 전국 1위로서 경방공업이 급속하게 신장되고 있다.

하늘 아래 가장 고운 도시 항주(杭州)

아침에도 좋고, 저녁도 좋고, 비가 와도 좋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마냥 아름답다는 항주는 절강성의 성도로 산과 호수, 샘, 정원으로 둘러싸인 인구 134만의 도시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인이려면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이곳 사람들은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上有天堂, 下有蘇杭)’라는 옛말을 인용하여 그 수려함을 묘사한다. 13세기에 마르코 폴로도 그의 견문록에서 이곳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곱고 멋진 도시’라고 경탄하였다고 한다.

특히 중심부에 있는 서호(西湖)는 용과 봉황이 만든 진주가 은하수에서 떨어져 생겼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는데, 달나라에서 보면 진짜 어여쁜 진주처럼 보인다고 한다.

등소평의 연안개발 전략에 의해 상해-소주와 함께 동반성장해 가고 있는 항주는 중국 섬유공업의 요람으로 세계 기업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실크의 도시’라는 별명에 걸맞게 항주의 섬유공업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동양의 베니스 소흥(紹興)

소흥은 항주에서 동쪽으로 60km쯤 되는 곳에 있는 인구 10여만의 소도시이다. 시 면적의 10%가 운하여서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린다. 시내를 이리저리 엮고 있는 운하와 좁다랗고 굽은 다리들이 특징적이다. 옛부터 이른바 각획선(脚劃船)이 애용되고 있는데 이 배는 손과 다리 양쪽을 써서 교묘하게 물살을 가르며 나간다. 멍쌀과 밀을 감호(鑑湖)의 맑은 물로 빚어낸 전통적인 술 소흥주(紹興酒)가 유명하며 중국 근대의 최고 문필가 노신(1881-1936)의 고향이기도 하다.

기독교 현황

중국내지선교회의 설립자인 허드슨 테일러가 항주와 영파(寧波)에서 중국에 대한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의 친구인 윌리엄 번즈 목사와 함께 배 위에서 생활하며 강과 운하들을 연결하여 여행하면서 그들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1930년대 강력한 신앙 부흥운동이 이 지방을 휩쓸었으며, 1949년 공산화될 때까지 역동적인 교회를 이

루었다. 현재 그 교회의 규모는 80만 명에서 백만 명 이상까지 추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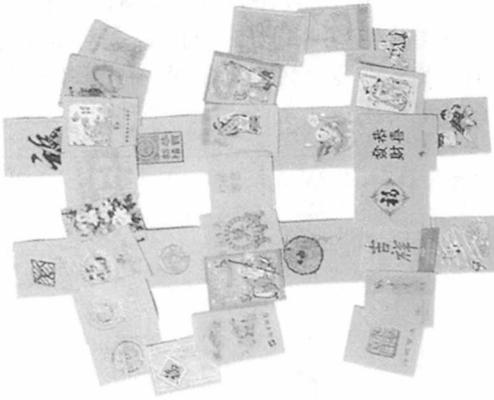
1960년대에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종교 버리기 캠페인’을 위한 실험 장소로서 절강성 남동쪽에 있는 온주(溫州)를 선택했다. 이곳에서의 박해는 특히 극심했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 처형되었다. 이런 연단을 통과한 온주에는 현재 중국 어느 도시보다도 더 교회가 많고, 집회인의 숫자, 집회 횟수가 빈번하다.

절강성 교회들은 많은 상업과 사회복지를 관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란계(蘭溪)의 천풍(天風) 영양 음료공장, 동양(東陽)교회가 주관하는 두부공장 등이 있다. 자체적으로 찬송가와 설교집을 발행할 정도이지만 삼자교회와 비삼자교회간의 충돌, 호합파, 출래파(出來派) 등 이단들의 출현, 사역자의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홍빠오(紅包)에 나타난 인정



여러 가지 예쁜 모양으로 장식된 홍빠오.
올해 설날에는 당신도 홍빠오를 받는
행운을 얻으시길...

예나 지금이나 중국이든 해외에서든, 중국인 사회에서 하늘에도 이르고 지옥에까지 통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홍빠오(紅包)' 같은 선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 빨간 종이 부적을 붙이고, 천지신명에게 홍빠오를 주는데 이것은 악운을 피하고 길조를 기원하는 것이다. 중원절(음력 7월 15일 '귀신의 날'이라고 한다)에 몇 자루 분량의 빨간 종이를 태운다. 이것은 제사 때 태우는 종이 돈으로 귀신들에게 일종의 뇌물을 준다는 의미이다. 즉 죽은 영혼들이 귀신이 되어 지상을 떠날 때 여비가 넘쳐서, 더이상 자신들에게 훼방놓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홍빠오의 위력은 더욱 무궁무진하다. 경조사에 축하예물, 설날의 세뱃돈, 주인이 직원들을 포상하여 주는 '보너스', 때때로 제왕절개 등 수술할 때 의사에게 주는 '뒷돈'이 되기도 한다. 즉 기증자의 의도에 따라 홍빠오는 누구의 마음도 살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

'선녀가 선녀봉을 휘두르자, 돌이 금으로 변했다'는 옛이야기, 또 그 유명한 '신데렐라'에도 호박을 화려한 마차로 변하게 했다는 선녀봉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홍빠오는 선녀봉이라기 보다는 인류를 위한 '소원 지팡이'로 생각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홍빠오’는 중국인들에게는 ‘염원의 지팡이’로서 무소불능의 기대를 실은 희망이다. 잔치 때 홍빠오를 보내면 기쁨에 기쁨을 더하는 금상첨화의 효과를 내고, 재수없는 일을 만났을 때 홍빠오를 받으면, 액땀이 되어 운세가 좋아진다는 심리적인 위안작용도 한다. 축하, 격려, 위로, 감사, 보상은 물론이고, 홍빠오 하나를 살짝 주면 마음을 전달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도 된다.

오늘날 홍빠오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실제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결혼, 장례식 등이나 환자 방문시 선물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신경을 많이 써서 온종일 돌아다녀 산 물건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필요할지 필요치 않을지 모르지 않는가? 그렇지만 빨간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주면 시간도 절약되고, 수고를 덜어주기 간편하기도 하고 실용적이어서 모두 기뻐할 것이다.

서양인들이 주고받는 선물에 비한다면, 중국인들의 홍빠오는 비록 기념할 만한 정신적인 의미는 적더라도 실용적인 의미는 크다. 원래 중국인들도 그렇게 실용적이지는 않았다. 홍빠오가 보편화된 것은 겨우 최근 몇 십 년의 일이다.

환영받는 세뱃돈

민속학자인 귀리청(郭立誠)은 전통적으로 중국인의 선물예절은, 그래도 예물을 보내는 것이 주류이지 예금(禮金)은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생후 1개월이 되면 만월(滿月)이라 하여 친구들이 금쇄편(金鎖片: 악마의 침입을 막고 장수를 비는 자물쇠 모양의 목걸이)을 보내오고, 병문안을 갈 때 보신용 식품을 갖고 가는 것이 그것이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서로 목에 달고 있던 구슬을 주고 받든가, 반지를 빼서 주고 받는 등의 선물은 모두 돈 냄새를 풍기지 않는 것이다.

언제부터 돈을 사용하여 예물을 삼아왔는지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돈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아마 돈의 실용성과 성의 때문일 것이다. 특히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널리 퍼진 세뱃돈이다.

“이전에는 세뱃돈으로 은전에 붉은 종이를 붙이거나, 금으로 된 엽전을 붉은 줄에 꿰어서 새해 음식을 먹기 전 우선 화롯불 밑에 눌러놓았다. 식사가 끝나면 비로소 눌러 놓았던 돈을 들고 나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의미는 ‘불’의 연단을 받은 뒤에야 액땀과 해악으로부터 능히 피하고, 자녀들도 과거의 나쁜 것들을 단단히 눌러버리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이다.”

대만박물관 인류학회 위엔창위(阮昌銳) 회장은, 이런 의미에서 사실 세뱃돈을 장세전(長歲錢: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뜻)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작가인 샤오민(小民) 여사는 1938년 이전까지 고향인 북경에서 살았는데, 당시 그녀는 열살이 채 안 된 어린아이였다. 그 시절 그녀가 겪은 설날의 정황은 오늘날과 무척 다른데, 특히 세뱃돈에 관한 인상이 깊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그 당시 세뱃돈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었다고 그녀는 회상했다. 어린이들은 세배할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해야 했는데, 머리가 땅바닥에 닿아 소리가 나아만 세뱃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옛날의 방바닥은 모두 거칠고 딱딱해서 우리 두 남매는 세배할 때 무릎이 너무나 저리고 아팠어요. 더군다나 머리를 땅에 부딪혀서 어지러운 정도였는데, 그래야만 비로소 세뱃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폐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세뱃돈은 빨간 봉투에 돈을 넣는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런데 흰색이나 초록색은 사용하지 않고 왜 하필 빨간 종지와 빨간 줄을 사용했을까? 그것



은 무술(巫術)과 관련된 종교적인 이유 때문
이다.

길상을 추구하고 악귀를 물리친다

위엔 박사가 지적한 바에 의하며, 원시시대 인류는 녹색의 푸른 들판에 피어있는 한송이 붉은 꽃이 눈에 띄었을 것이고, 또 보기에 좋았으므로 아마 이로 인해 붉은 색이 '길조와 상서로움(吉祥)'의 상징이 된 것 같다. 이 외에도 많은 제사의식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게 되면 악귀가 물러가고 행운이 따른다는 생각에, 피와 같은 색인 붉은색은 악귀를 피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홍빠오라는 형식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은 '붉은색을 가지고 다님'으로써 길상과 액땀을 대신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옛날 어른들이 제사의 희생제물이나 시집가는 딸의 혼수에 붉은 종이 한 조각을 붙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한다. 후대 사람들이 전지(剪紙: 종이를 잘라 각종 기묘한 그림을 만드는 중국의 전통예술-역자 주)의 기교를 배워, 혼수에 붙인 붉은 종이 조각을 경사스럽다는 의미의 '희(囍)'로 바꾸어 버렸다.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붉은 천으로 포장되거나 홍색 안료를 칠하기도 하였다.

붉은색이라는 상징의 기원은 대자연의 생명을 의미한다. 인류는 일찍부터 악귀를 피하는 주술을 행하였는데, 이는 결코 중국인만 지니는 특수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인들도 붉은색을 길조(吉兆)의 상징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상륙한 콜롬부스에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붉은 천 조각을 주어 머리에 두르게 하여 경축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옛날 서양에서 선물을 묶을 때 쓰는 색띠는 모두 붉은색이었으나 이후 점차 가지각색의

로 변하여 더이상 붉은색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색깔에 대해 조금은 고지식하다. 공자(孔子)도 ‘자주색이 붉은색의 영광을 가로챈 것을 싫어했다’(惡紫之奪朱也)고 말한 것은 색깔을 좋은 색과 나쁜 색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붉은색이 길조를 나타내고 액땀을 뜻한다는 의미는 쉽게 바뀌지 않을 듯하다.

짹짹한 부수입

홍빠오를 선물함으로써 상대방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게 하는 것은 일의 대가로서의 ‘보상’을 의미해왔다. 귀리청에 의하면, 《금병매》 등 소설에 보면 연회에서 주방장이 자주 등장하여 주 요리를 손님에게 대접하는데, 그 때 대접받는 손님들이 주방장에게 ‘팁을 주는 것’이 묘사되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붉은 종이로 은을 싸서 상대방에게 주는 특례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인을 보내 자기 친구에게 예물을 보내면 선물하는 주인으로서의 당연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 하인이 특별한 서비스, 즉 심부름을 해 준 것이 된다. 그래서 예물을 받는 사람은 감사의 글을 보냄과 동시에 심부름 온 하인에게 홍빠오를 준다. 이를 ‘힘(力) 또는 ‘심부름에 감사함(敬使)’이라 부른다. 힘들게 온 심부름값으로 여비라도 하라고 그 하인에게 주는 보상인 것이다. 심부름값의 액수는 ‘예물의 20분의 1’을 주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므로 하인들에게 이러한 심부름은 꽤 많은 부수입이 된다.

“홍빠오는 ‘감사로 드리는’ 원래 인정미가 넘치는 하나의 예식이었으나, 현대인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여 홍빠오의 의미를 잃게 하였다”며, 귀리청은 오늘날 홍빠오를 전하는 것이 뇌물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했다.

홍빠오로 좋은 소식을 전한다

“홍빠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것은 좋은 뜻에서 일종의 인정을 뜻한다.”라고 위엔 씨는 말한다. 홍빠오를 남에게 줄 형편이 되는 사람

은 대부분 웃어른이 회사 사장이거나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한다.

음력 설날에 대만 박물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민속활동을 벌인다. 박물관이 문을 여는 초하루에 관장은 특별히 여러 직원들에게 홍빠오를 준비하여 그들이 휴가기간에도 박물관을 생각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다. 샤오민(小民) 여사는 홍빠오가 전통적인 미풍양속에서 벗어나 지금 그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홍빠오는 단순히 붉은 종이 주머니였고, 위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회사나 근사한 음식점에서도 모두 홍빠오에 좋은 말을 새겨준다. 설날에는 손님에게 홍빠오를 한 묶음 주어 고객을 위한 작은 선물로 서로의 정을 나누기도 한다.”

라이라이호텔(來來飯店)에서는 「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운이 온다(福來, 喜來, 好運來)」는 글을 홍빠오에 새기고 있다. 갈비집에서는 소 한마리를 금박 무늬로 찍은 홍빠오를 돌려 손님을 끌기도 한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은 기독교 단체에서도 홍빠오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년 설이 다가오면 교회에서도 홍빠오를 만들어 무상으로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다. 홍빠오 위에 몇 구절의 성경구절을 적어서 주곤 하는데 성도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때론 그 수요가 엄청나 부족할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전통적인 습관이 기독교와 결합하여 복음의 토착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홍빠오 속에 얼마의 돈이 들었든간에 그것이 어찌 전하는 사람의 깊은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작가 샤오민 여사는 말한다. 그렇다. 예물은 적지만 그 뜻은 깊고, 주고 받는 사이에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는 것이 진정 홍빠오를 전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위 글은 대만 「光華雜誌社」에서 발간한 <中國人的註冊商標>의 “一只紅包千百情”을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이민선·본지 편집기자

환상 속에서 살았던 나

張新生

이 글은 시아판에서 예수를 믿은 지 4일밖에 안 된 한 자매의 감동적인 간증이
다. 현재 시아판에는 약 1,000여 명의 중국(대륙)인들이 공장 근로자 등으로
와 있으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아판에 와 있는 한국, 싱가포르 선교사
의 수고로 인하여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 편집자 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
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
혜이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
겨 택하심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
게 하셨다. 또한 새로운 생명을 주
셔서 이제 영원한 삶의 길을 걷게
되었다.

과거의 나는 환상 속에 빠져 살
아가던 여자아이였다. 하루 종일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그리며
미래를 꿈꾸곤 하였다. 나의 일과
생활이 어떻게 아름다울 것인가
를 상상하곤 했다. 내 삶은 아무런
풍파도 겪어보지 않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삶이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만족하지 못했다. 작은 어려
움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 자기연

민에 빠져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
에게 잘해주기만을 바라곤 했다.
도저히 내 현실에 만족할 수 없었
고, 나의 삶이 더 알차기만을 바랐
다. 그러나 생활이 좀 더 나아졌다
하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렸을 때 종종 ‘난 어디서 온
것일까?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
고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땐
너무 어려서 인생을 이해하지 못
했고, 인생이 뭔지도 몰랐다. 성장
하면서 은연중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아마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것이
다. 하지만 그 누가 이에 만족할
만한 답을 말해줄 수 있을까? 나
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
여 여러 가지 격언을 베껴 적고 열
심히 그것들을 되새겨 보며, 모든
것들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때 그
격언들로 나를 격려하곤 하였다.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22년
의 인생 중에 나를 변화시킨 전환



점이 세 번 있었다. 그 첫 번째 전환점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였다. 그런데 그것은 이전에 내가 간직해 왔던 ‘말’을 완전히 빼앗았다.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기 위하여 염치불구하고 인격과 체면을 내팽개치며, 월급을 몇 푼 적게 받고 보너스가 다른 사람에 비해 좀 적다고 소란을 피우곤 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런 태도에 익숙하지도 않았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나는 말수가 매우 적었다. 사람들과 별로 대화를 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매우 유치하고 저속한 부류의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때의 나는 매우 오만하였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나도 모르게 그들의 태도에 적응하며 곧 익숙해졌다. 비록 내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나도 그들처럼 공장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오곤 하였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거야’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다. 당시엔 나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원래 조용하던 나의 성격도 변하여 남들과 웃고 떠드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두 번째 전환점은 내가 사이판에 온 것이다. 사이판에 일하러 오는 것을 신청하기 전만해도 외국에 나가는 것은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 외국에 나가는 것은 서양을 숭배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후에, 사이판에 일하러 갈 사람들을 모집하는 신청접수가 있었는데, 그 때 나는 마치 어떤 힘에 끌리듯 첫 번째로 신청하였다.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나를 막지는 못했다. 이렇게 나는 또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이판에 와서 또 끔찍한 세계의 메마른 인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허위와 사기도 보았다. 그러면서 나도 거짓과 허영,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꿈들은 깨져버렸으나 겉으로는 여전히 그 허위적인 오만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세 번째 전환점은 바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한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최대의 전환점이 되신 것이다. 처음 사이판에 오자마자 나는 복음을 들었다. 지앙(姜) 자매라는 분이 처음 온 나를 보며, 내게 영성(靈性)이 살아 있으니 언젠가는 꼭 주님을 믿을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나는 그녀의 말이 매우 우습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따라 교회에도 한 번 나간 적이 있

었는데 그 후에는 나가지 않았다. 그녀가 내게 주었던 <참 하나님을 알자(認識眞神)> 라는 책을 읽어보았지만 별다른 깨달음은 없었다. 그저 집안에서 자주 말하던 하나님이 바로 그 신이고 주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었다. 집에 있을 때 나도 자주 “하나님! 나를 보살펴주세요”라고 말하곤 했었다. 어떤 책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들이 죽기 전 ‘성경’을 손에 들고 있었다고 묘사한 것을 본 적이 있어서, 나도 사이판에 왔을 때 한 권을 구입하여 읽어보았다. 나도 그들을 흉내내려 했지만 얼마 후에 책을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

이후 장(張) 자매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나는 그녀에게 “나도 믿고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단지 당신들처럼 교회에 나가지 않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런 내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곡히 교회에 나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7월이 되면서 친한 친구가 중국으로 떠나 나는 매우 우울해 있었다. 장 자매가 다시 내게 복음을 전하며 여차피 집에 있어도 별다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 한번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거라고 하였다. 나는 그 자매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억지로 승낙을 하였다. 7월 25일 저녁 나는 그녀와 함께 교회에 나갔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에 대해 큰 기대를 갖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 때 긴장하고 있었다. 공장을 나서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너도 교회에 나가냐고 말할까봐 겁이 났고 체면상 나에게 곤란이 올까봐 무척 걱정이 되었다. 결국 교회에 가긴 갔으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듯 했다. 너무 피곤하여 차라리 집에서 쉬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설교가 끝나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가 매우 열심히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리 좋지 않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 다음번에 또 가기로 약속했지만 가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전쟁하는 것 같아 매우 괴로웠다. 누구를 만나도 편치 않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 후 무료하던 차에 전에 읽다만 <참 하나님을 알자>라는 책을 다시 읽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큰 깨우침이 있었다. 28일 다시 교회에 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모두 와서 들으라고까지 하였다. 그 때 이미 성령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믿는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이전에는 그저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길, 성령이 나의 마음에 충만하길, 주님을 향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구하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상자 속에 넣어 둔 성경을 꺼냈다. 이튿날 나는 매우 활기찼고, 저녁에 다른 사람들에 복음을 전하였다. 오랜 시간동안 많은 말을 했지만 쉽게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었다. 오히려 나 자신이 흔들리게 되었다. 매우 혼란스러웠다. ‘다른 이들은 주를 믿으면 기쁘고 평안한데 나는 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기도드렸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흔들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7월 30일 분반공부를 할 때 난드디어 참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설교를 시작할 때는 그리 집중하지 않았다. 목사님께서 물으셨다. “이 중에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나는 두 손을 꼭 쥔 채, 손을 들고 싶었지만 도저히 들 수가 없었다. 목사님이 다시 “나와 함께 기도를 할 분은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하셨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여 어떤 강력한 힘으로 나를 이끄는 것을 느꼈다.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섰다. 목사님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앞으로 주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는 기도를 하였다. 시종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기도가 끝난 후 나는 또 한 번 주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피를 흘리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 이제까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그를 경배하지 않은 것, 그리고 허영, 거짓말, 속임수 등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가 하나하나



장승원 그림

떠올랐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사, 죄와 육에 속한 나를 벗어 버릴 수 있도록 간구하였다.

이전에 나는 내가 매우 착하고, 일을 할 때도 양심에 의거하여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자신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절대표준 아래서 나의 참 모습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추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쑤(孫) 자매도 울었다. 며칠 동안 쑤 자매와 여러 형제자매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어 나를 돕게 하신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주를 믿고 의

지하여 죽음 후에도 소망을 갖게 된 것과, 이전에는 일찌기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과 뿌듯함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 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를 선택하사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의 크나큰 은혜에 감사드린다. 7월 30일은 내가 진정으로 인생의 진정한 의의와 가치를 체험케 된 잊지 못할 날이다. 주님께서 나를 행복하고 빛나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짧은 며칠 동안 나의 왜소함과 인생의 짧음과 지나간 시간들의 무상함을 체험하게 되었다. 나는 마침내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 기쁨을 주셨

기 때문이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신병자이거나 귀신에 썩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체험한 것을 경험치 못한 그들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제 진정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주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그대야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나와 같이 공허하고 빈둥대는 사람이 아니다. 매 순간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정말 내 마음 속에 기쁨이 흘러 웃음이 넘쳐난다. 이제는 교회 가는데 다른 이의 권유가 필요치 않으며 오히려 나 스스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가려 한다. 또한 기도와 Q.T.도 내가 매일 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지금 나는 매우 충실하며 기쁜 삶을 누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결과이다. 주께서 나를 이러한 햇빛이 가득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린다.

비록 이 간증이 결코 화려한 문장이 없고 아름다운 단어도 없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마음 속에서 진정 울려나온 소리이다. 내가 주를 믿은 시간은 매우 짧지만 나의 믿음은 영원할 것이다. 영원토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리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16)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하나님의 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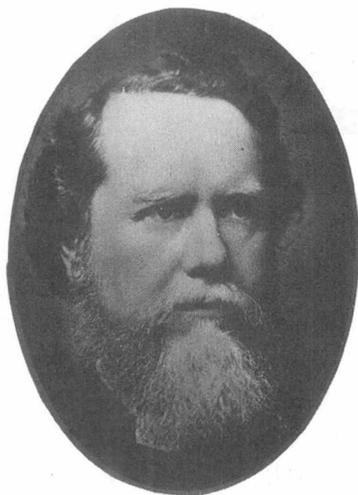
허드슨 테일러

여러

사건들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우 오묘함을 알 수 있다. 주님은 우선 내가 산터우(山頭)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신 뒤, 닝뽀(寧波)로 인도하시고 평안히 정착하게 하셨다. 그리고 닝뽀를 후일 우리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다.

상하이에 도착한 후에야, 이전에 약품과 기구를 맡겼던 집에 큰 화재가 나서 모든 약품과 대부분의 의료기구가 없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되어 대단히 마음이 아팠다. 그것들이 내게는 큰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했던 야곱처럼 ‘만사가 나를 괴롭히는구나’라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 때까지 나는 하나님만 유일의 주재이시고 우리들의 생활, 동작, 존재 모두가 그의 섭리하심에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환경과 우리가 당하는 사건들은 지극히 인애롭고 지극



히 지혜로우며 지극히 선한 것으로, 주님이 명하시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실망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상하이에서 가져오는 약품은 매우 귀하고 비싼 것인데다가 내 수중에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닝뽀에 있는 파이커 의사를 찾아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길뿐이었다. 파이커 의사와 나는 같은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나는 그나마 남아 있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겼다. 손목시계와 수

술용 기구 몇 개, 풍금 하나, 중국어 교재 몇 권이었는데, 이 물건들은 그 시기에 대단히 값진 것이었다. 약간의 돈은 상하이에 남겨두었다.

내가 지나간 지역은 오랫동안 가뭄으로 고생한데다 때마침 한 여름이어서 대운하의 수위가 매우 낮아져 있었다. 대부분의 강물이 이미 인근의 논에 물을 대는데 사용되었고, 일부는 흑독한 더위에 증발되어 버렸던 것이다. 나는 이번 여행을 전도여행으로 삼기로 작정하고 많은 전도지와 책자를 가져갔다. 14일 간의 길고 더딘 일정 중에 간혹 사람이 비교적 많이 사는 마을을 지나기도 했는데, 그 때마다 전도도 하고 책자를 나눠주기도 하였다.

드디어 스먼완(石門灣)이라는 큰 도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 도착한 후 나눠줄 책자가 동이 나자, 가능한 빨리 하이닝(海寧)을 거쳐 닝뽀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1856년 8월 4일

스먼완을 지나자 수로가 끊겼다.

빳빳을 지불하고 쿨리 몇 명을 고용하여 짐을 창안(長安)까지 메고 가게 했다. 해가 뜨기 전 일찌감치 길을 떠났다. 나 혼자 앞서 가고 하인이 짐을 봐줬는데, 쿨리들이 자주 멈춰 쉬었기 때문에 하인은 늘 뒤쳐졌다. 나는 꼭 지나야 할 길로 한 마을에 먼저 도착한 뒤, 북문 밖 한 찻집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오래 지나서야 쿨리들이 도착했는데 매우 지친 모습이였다. 그들이 아편을 피우는 자들임을 나는 곧 알아차렸다. 그들이 맨 짐을 만일 건장한 사람들이 바뀌 멘다면 그들보다 세 배나 더 먼 길을 갔어도 끄떡 없었을 것이다. 짐이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그들이 것처럼 피곤해한 이유는 바로 아편 때문이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1시간 정도 휴식한 뒤(아편도 피웠을 것이다) 그들도 기운을 차린듯 하여 이제 떠나자고 제의하였다. 해가 중천에 떠서 햇빛이 강렬하게 비취기 전에 창안에 도착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하인이 이 마을에 자기 친구가 있다며 친구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이튿날 떠나기를 원했다. 나는 그날 밤 하이닝에 도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나 북문으로 들어갔다. 도시의 1/3정도를 지났을 때, 쿨리들이 또 멈추고 쉬면서 도저히 짐을 창안까지 못 메고 가겠다고 하였다. 결국, 그들은 남문까지만 짐을 메고 갔고 나는 그들에게 전체 여정중에서 온 거리만큼만 계산하여 주었다. 나의 하인은 다른 쿨리를 찾기 위해 그들을 따라갔다.

나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앞장 섰다. 혼자서 4리쯤 가니 드디어 창안이었다. 거기서 그들을 기다렸다. 기다리는 시간에 하이닝에 갈 준비를 위해 먼저 쿨리 몇 명을 고용했다. 시간이 꽤 지나자 슬슬 걱정이 되었다. 결국 그날 밤 하이닝에 닿을 희망은 사라졌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 발의 통증과 한낮의 태양이 너무 강하지만 앉았어도 다시 돌아가 그들을 재촉했을 것이다. 나는 하인이 그의 친구를 찾아갔기 때문에 황혼이 되기 전에는 도착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해가 서산에 떨어졌는데도 그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점점 불안해져서 사방으로 그들의 소식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 때 어떤 사람이 말을 건네 왔다.

“당신 혹시 스먼완에서 오신 손님이 아니신지요?”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하이닝으로 가시는 길이지요?”하고 또 물어왔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럼, 당신 짐은 이미 당신을 앞서 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찻집에 있을 때 쿨리 한 명이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바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대나무 상자와 이불 보따리를 메고 있었는데 바로 당신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그러던데 오늘 밤 반드시 그 짐을 스먼완에서부터 하이닝에 갔다 놓아야 한대요. 일당은 근당 10원이라고 했습니다.”

내 물건이 나보다 앞서 하이닝으로 갔다는 한 가지 소식은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날이 저물어 더 갈 수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밤을 지낼 처소를 찾는 일이었으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한 뒤 그 도시의 다른 쪽으로 가 보았다. 외국인이 이 도시에 살기를 바라며 주위에 있는 여관에 알아보았다. 그러나 여기까지 들어온 외국인은 아직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나는 빨리 여관을 찾아 일단 들어갔다.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무슨 조사같은 것은 피할 수 있기를 바랐다. 밥값을 물어보면서 찬 밥과 등잔 기름으로 볶은 뱀고기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나의 국적을 물어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눈 딱 감고 조금이라도 밥을 넘기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식사하면서 주인에게 물었다.

“여기서 묵을 수 있겠지요?”

그는 대답과 동시에 숙박명부를 꺼내왔다. “세상이 어수선해서 관가에서는 숙박하는 손님들을 꼭 기록하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의 성은 다이(戴)입니다.”

“이름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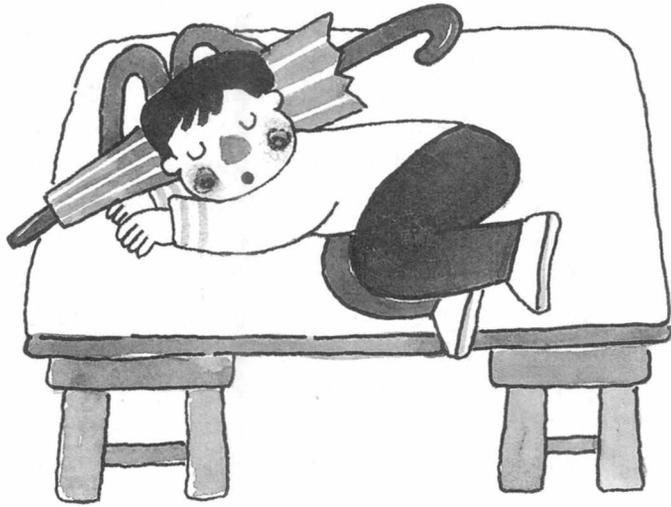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이름 한번 이상하군요. 이제껏 이런 이름은 처음 듣는데 어떻게 씩니까?”

나는 그에게 가르쳐주었다.

“우리 고향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럼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장승원 그림

“저는 상하이에서 닝뽀로 가는 데 도중에 항저우(杭州)를 지날 예정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아! 의원님이시군요요”

주인이 명부를 덮어서 나는 한시를 놓았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또 말을 건네왔다.

“의원님이시라고요? 정말 잘됐군요. 제게 딸이 하나 있는데 오랫동안 문둥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일 고쳐주신다면 저녁식사와 숙박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호기심에, 내가 먹은 밥값과 숙박비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기껏해야 3펜스 반도 안 되었다. 기왕 그의 딸을 낫게 하지 못할 바에야 아예 치료하지 않는게 나을 것 같아서 문둥병은 지극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며 지금 약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

했다.

여주인은 급기야 붓과 종이를 가져와 “최소한 처방이라도 써주십시오. 딸아이를 치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가 되기야 하겠어요?”라며 나를 재촉하였다.

그러나 나는 끝내 완곡히 거절하였다. 빨리 쉬고 싶었던 것이다. 지하실에 있는 매우 초라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목판 두 장을 두 개의 나무 걸상 위에 걸쳐 놓은 것이 침대였다. 베개, 요, 이불, 모기장도 없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우산과 신발을 베개로 삼고 그날 밤을 지냈다. 같은 방안에 십여 명의 손님이 있어서 짐은 아무 것도 꺼낼 수가 없었다.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한밤중이 되자 매서운 한기가 느껴졌다.

8월 5일

예상했던 일이지만, 아침에 자리

에서 일어나니 편히 자지 못한 까닭에 온몸이 빠근하기만 했다. 한참 후에야 아침밥이 나왔다. 내가 마지막 은화 한 개를 잔돈으로 바꿀 때 은화의 한두 곳에 이가 빠져 있다고 실랑이가 벌어져 또 시간이 지연됐다. 결국 300원이나 손해를 보았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큰 손실이었다.

창안(長安)에서 나의 하인과 짐꾼에 대해 사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으나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이 늦어도 아침에는 도착할 것으로 생각했다. 성은 크고 길었고 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가 2리 정도나 되었다. 오고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으나 여전히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다. 피로가 물려들고 발은 쓰리고 아팠다. 그러나 해가 있을 때 하이닝으로 떠나고 싶었다. 이 길은 대

략 8리쯤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중간에 한 마을을 지나며 차한 잔을 마시고 휴식을 취했다. 떠나려 할 때 갑자기 큰 비가 내려서 그 기회를 타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야 하이닝의 빼이자오(北郊)에 닿았다. 나는 또 사방팔방으로 하이인과 짐꾼의 소식을 알아보았으나 역시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어떤 사람이 동문(東門) 밖에 정박하고 있는 배로 가서 알아보라고 하여 소동문(小東門)으로 갔는데, 여전히 종적이 묘연하였다. 너무나 피곤하여 찾집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관청의 관리들이 들어와 나의 신분과 어디서 왔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마침 찾집에 있던 한 사람이 내가 찾고 있는 하인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어떤 사람이 대나무 상자와 이불 보따리를 메고 한 30분 전에 여기를 지나 갔는데 대동문(大東門)인지 남문(南門)인지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작은 상점에 가서 알아보십시오”하고 말하였다. 내가 그에게 보수를 줄 테니 같이 가자고 부탁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자원하여 나와 함께 갔다. 얘기 들은 대로 두 곳으로 가서 물어보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얻지를 못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시켜 내 대신 자세히 찾아보도록 했다. 만일 찾으면 후하게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조건으로……. 나는 기다리면서 점심을 먹었고, 무리지어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다.

나를 도와 짐을 찾으러 간 사람이 돌아왔는데 별 소득이 없었다. 그에게 “지금 몹시 피곤하니 오늘 밤을 지낼 숙소를 찾아주시겠소? 그 후에 보수를 지불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쾌히 응락했고 함께 숙소를 찾으러 다녔다. 처음 한 두 곳에서 우리를 받으려 했으나 잠시 후에는 안 된다며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한 관리가 우리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나를 받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듯 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숙소에 이르러서야 그 관리가 가버려 겨우 잠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차를 마신 후 나를 위해 종일 수고한 그 사람에게 약속한 돈을 지불했다.

그가 떠나자마자 몇 명의 관리가 들어왔다가 잠시 후 다시 나갔다. 그들이 다녀간 후 나는 또 여관에서 쫓겨났다.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주인에게 양심도 없다고 욕하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걱정마십시오. 저를 따라 오세요. 여관을 못 찾으면 우리 집에서 주무시죠 뭐.”

나는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그 집 사람들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고, 두 발은 이미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쓰리고 아팠다. 피곤해서 더 이상 머물 기력조차 없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숙소를 찾아볼 수 밖에 없었다. 나를 안내해주던 청년이 한 밤중까지 계속 나와 함께 있어주었다. 우리는 다시 여관을 찾아 나섰는데 그 청년이 그만 제대로 찾지를 못하여 그 성의 다른 지역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결국 새벽 한두 시쯤 되어 그는 돌아가 버렸고, 나 혼자 밤을 새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어느 절 앞에 와 있었는데 대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절 앞 돌계단 위에 드러누웠고 돈을 머리 밑에 두고 베개를 삼았다. 무척 추웠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몰래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곧 잠에 꿀아 떨어졌을 것이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거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중국에서는 거지를 흔히 볼 수 있다.

그가 내 돈을 훔치려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를 주시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위급한 시간에 나를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다.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 내가 잠이 들었는지 아닌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밤이 깊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대담하게 내 몸을 더듬었다.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원하는 게 뭡니까?”라고 말을 건네며 내가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나갔다.

그가 그냥 가는 것을 보며 난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그가 보이지 않자 될 수 있는 한 돈을 소매 안으로 집어넣고 나머지는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담벽에서 튀어나온 돌덩이를 베고 누웠다. 그리고 나서 곧 정신없이 잠에 빠졌다. 그러다 갑자기 두어 사람의 가벼운 발소리에 깜짝 놀라 잠이 깼다. 피곤한 나머지 신경이 너무나 날카로워져 아주 작은 소리에도 놀라 잠에서 깨게 된 것이다. 나는 오직 의지할 수 있는 한 분, 주님께 보호해주실 것을 간구하였다.

그 후, 가만히 누운 채로 어떤



장승원 그림

사람이 내 머리 밑에 돈이 있나 없나 만져보기까지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가 아가처럼 말을 하니까 그들은 내 발치에 앉았다. 나는 그들에게 뭐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들은 나처럼 절 앞에서 밤을 지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주변에 빈터가 많고 여기는 내가 자고 있으니 다른 곳에 가서 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고 계속 내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나도 앉아서 답에 기대었다.

그들은 “당신은 누워자는 게 좋아. 안 그러면 내일은 움직이지도 못할걸.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당신을 곁에서 보살펴줄테니까.”

나는 대답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는 당신들의 보호를 원치도 않고 또 필요치도 않소. 난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당신들의 보살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요. 나는 오직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 분을 믿고 있소.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잘 알고 있고, 당신들의 목적도 알고 있소. 난 두 눈을 부릅뜨고 당신들을 지켜 볼 것이고, 절대로 잠들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을 하자 그 중 한 사람이 가 버렸다. 그러나 조금 후 그는 다른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왔다. 나는 대단히 불안했다.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랄 뿐이었다. 두어 번 그 중 한 사람이 다가와 내가 잠이 들었는지 아닌지 살폈다.

“어리석은 것 마시오. 난 결코 자지 않을테니까.”

가끔 고개가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면 그들 중 한 사람이 일어섰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말을 해서 내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렸다. 시간이 더디가는 것 같았고 밤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엄청난 피로가 몰려들었다. 그러나 잠을 자지 않으려고 찬송 몇 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암송했고 영어로 기도했다. 그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빨리 그만두라며 더이상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동이 틀 무렵, 그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나는 그제야 잠들 수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편집자 주: 이 글은 홍콩 선도출판사에서 출판한 『헌신중화(獻身中華)』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선도출판사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자기의 약함과 실패를 말하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고린도 후서 11:30)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단지 그들이 성공한 면만을 즐겨 말하고, 실패한 면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린다. 여기에서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간증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서 실패로부터 얻은 귀한 교훈을 따를 때, 실패가 성공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들의 생명의 날이 더하여져서 성장하여 진보할 때, 만약 실패로 인해 승리에 이른 반전이 없다면 그것은 시험을 이겨낸 좋은 비결을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승리를 얻도록 도와야하며, 아직 이겨내지 못한 이전의 실패과정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실패가 승리로 변화되기까지의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점은, 우리가 실패를 묵혀 두고 있으면 주님께 돌려질 영광을 가리우기 쉽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듣게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들이 사람이 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만든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와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 비록 우리들은 구구절절 주의 영광을 말하곤 하지만...

그러나 만약 자기의 연약한 본성을 사람들 앞에 철저히 드러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보기드문, 이러한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주의 큰 능력의 증거이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묵혀두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서 무수히 증거하는 사실 중의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더욱 철저하게 폭로하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고린도후서 11: 29).

타국 선교사들과의 유대

방지일

“학교·병원 운영 등 사업활발, 문제 있을 때마다 기쁘게 돌보며 격려.
2차대전 후 팔로군을 피해 온 난민구제 힘쓰고”



선교의 선구자들이 대
거 중국에 와서
역사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가졌다. 그들의 선교
역사는 찬란하였다. 구미 각국의
선교사들이 많을 때는 5천을 헤아
렸다. 그 중 미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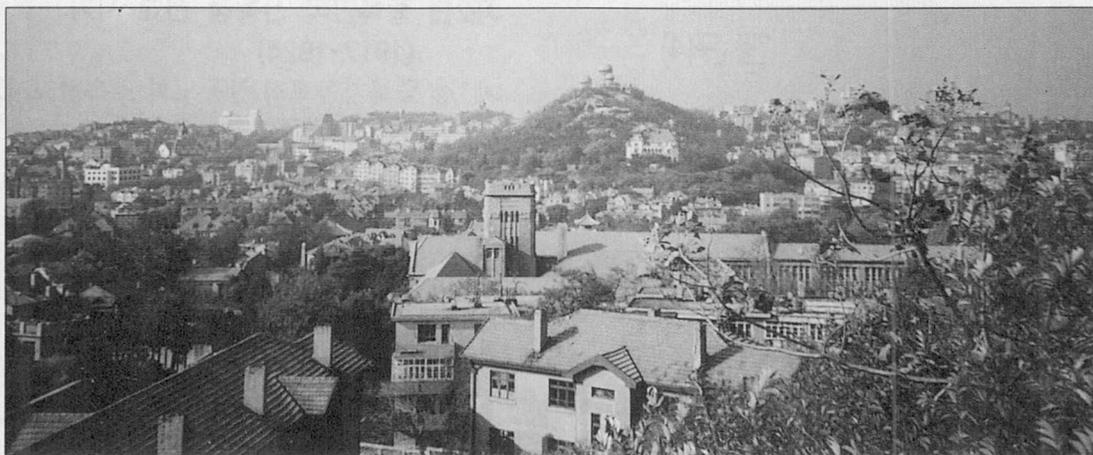
우리와 같이 중화기독교회에
가입한 선교단체도 17개나 되었
다. 우리 선교는 중화기독교회 총
회 산하 산동대회(山東大會)에
속하였는데, 선교회는 미북장로
교선교회, 우리 선교회, 그리고 영
국침례선교회 등 세 선교회로 16
개 노회의 배경이 되어 있다. 우리
와 함께 일하는 선교사들은 산동
대회 선교사들과 제일 가까웠다.

영국 선교사들 중에 노목사 하
렌, 젊은 목사 스미스, 미장로교
선교사들 중에는 윌슨, 웨스트 빼
이, 쿤라드, 몰겐, 미스 폴사이드
등이 가까운 동역자들이었다. 래
양 지방에 같이 거주했던 미 침례

교 선교사인 벨슨 목사와는 한 교
회는 아니나 한 지방, 또 벽촌에
있었던 고로 친밀히 지냈다. 후에
그도 청도로 와서 같이 지낸 바 있
다.

청도는 루터교가 중심인 지역
이었다. 독일의 쏘트 목사, 미국의
레인벌 목사, 스위스의 리덜 의사
들과 각별히 친하게 지냈다. 때로
오고가며 식탁을 같이 하고, 때로
는 모여 기도회도 가졌다. 서로 위
로하고 격려하는 좋은 유대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었다.

내겐 자전거가 교통 수단이었
다. 중국 교역자로 나와 같이 동역
하던 이에게도 자전거를 준비하
게 하여 같이 타고 다녔다. 급히
갈 때는 미 장로교나 루터교의 자
동차를 빌려썼다. 떠날 때 와서 미
터로 휘발유 값을 계산해 주도록
약속이 되었다. 운전사가 있을 때
는 얼마든지 편하고 좋은데, 나중
엔 자신들이 직접 운전해주기도



해 어려움이 있었다. 웬만하면 부탁을 하지 않았고, 그러지도 못하였으나 부득이 부탁하면 자신이 운전하여 내 편의를 보여주곤 했다. 내 차 타듯 할 때도 많았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 저들은 잘 봉사해 주었다. 생각하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차뿐만이 아니라 선교사 자신이 이런 편의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다.

내가 어려워하면 전혀 그럴 필요 없으며, 시간만 있으면 다 같은 복음역사가 아니냐며, 같이 동역하는 기쁨이라고 순응해 주곤 했다. 일본이 소위 대동아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는, 자기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쁘게 보아준 일도 적지 않게 있었다. 같은 교단 안에서라면 동역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의 일이 나의 일이요 나의 일이 자기 일이라할 수도 있었지만 미 침례교, 미 루터교의 경우는 전혀 다른 교파라 내가 가는 곳에 사실 그들이 할 일은 없었다. 순전히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다.

드디어 소위 대동아전쟁을 일본이 선포하고 진주만을 습격한

사건으로 일이 크게 벌어지니 미국 선교사들 중에 사전 회국한 이가 대부분이고 남은 이들은 포로가 되어 수용당하였다. 산동에서는 위현이란 곳에 다 수용되었다. 청도는 내가 있는 곳에서 근 5백리 길이었다. 거긴 미 장로교의 선교 근거지였고 교육기관도 있었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그곳에 다 수용되었다. 독일 선교사는 나이가 많아 돌아갔고, 스위스 선교사 중에는 리덜 부부만 남았다. 그들은 학교 한 곳을 경영하였고 그곳에 교회는 한 곳 있을 뿐, 차도 없었다.

1945년 일본이 투항하게 되니 수용되었던 이들은 다 풀려났고 귀국하였던 선교사들도 대거 돌아왔다. 일은 더 많아졌다. 일군과 관계된 일, 또 그동안 어렵게 지내던 교인들을 구제하는 등 일감은 대단하였다. 미군이 주둔한다, 국제연합기구가 들어온다 하여 산적한 구제품을 처리한 지 그리 오래지 않아 오지에까지 공산당이 침범하니 쏟아져 오는 난민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고, 자연히 같이 분주하게 일들을 처리해야 했다.

더욱이 구제란 너무 어려웠다. 물질이 들어가는 가운데 터져나오는 불평, 또 부정사건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 선교사들이 차로 실어 나르는 일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다. 참으로 불철주야 근무하여 공산당 때문에 철수할 때까지 같이 일했다.

회고해 본 즉 물량적으로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었다. 선교사들도 그러했고 사업으로도 학교 병원, 구제사업 등 비교가 안 되었지만 같이 복음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국경도 없고 교파간의 간격도 없었다. 모두 한 가족, 한 몸같이 동역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감격스럽다.

요청만 하면 내 필요한 장소에 교회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 주고 차를 빌려주고 운전까지 해 준 것에 크게 감사한다. 주행한 거리에 싸인했다가 한꺼번에 계산만 하는 식이라 차없이 큰 편의를 본 것이다.

《福音歷史半百年》중에서
방지일/ 목사, 중국어문선교회 고문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1917년 중화민국 선교사 홍승한 목사 (Ⅱ)



김교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중국선교연구협회 상임총무, 연구원
대한예수교장로회 부개동교회 외국인예배담당
교역자
중국선교연구협회 인준 재한중국인 선교사
인천 외국인근로자 선교협의회 운영위원장

제2편 중화민국 산동성 선교 시기 (1917-1924)

제1장 중화기독교회 산동노회 소속선교시기 (1917-1920)

1. 선교지 부임과 초기생활, 언어공부

경북 대구교회(남성정교회, 현 대구제일교회) 교우들과는 물론 작별한 홍승한 목사와 그 가족은 경성을 거쳐 1917년 9월 29일 평양으로 향하였고, 방효원 목사 가족과 함께 중국 선교지로 부임하게 된다.¹⁾

홍승한 목사는 1917년 9월 1일 경성 승동예배당에서 개최된 제6회 총회에서 총회 부회장으로 선정되었다.²⁾ 중화민국 선교사로 선택을 받게 된 그는, 이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경북노회 임시노회에 대구교회 목사직무 사면과 산동노회로의 이명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고 선교사로 출발 준비를 하게 된 것이다.

선교사 파송이 거론되고 한 달 정도 준비를 거쳐 선교지로 파송되었으니 속성으로 파송되었다고 보아야 되겠다. 그에게 있어서 오늘날 말하는 선교사 훈련이나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해도 무리한 말은 아니나, 총회 전도국 위원으로 그리고 조사시절과 경상도 목회시절 서양 선교사들과의 동역한 경험은 그에게 생생한 선교 훈련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다. 서양선교사들의 태도와 전도, 설교, 선교사들의 위치와 거주 등 여러 면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서양선교사들이 조선에서 실시한 방법과 원리를 보고 듣고 경험하였을 것이다.

홍승한 목사는 '선교사'라는 직무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준비해 온 인물은 아니었으나 총회의 선택을 받아 이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총회가 결정하고 선택하자 순종하여 중화민국 선교사로 나섰던 그는 1924년 총회가 재정상 어려움으로 소환을 결정하자 역시 순종하여 선교사직을 마치게 된다. 상회의 결정에 절대 순종한 인물로 배울 점이 있다고 봐야 하겠다. 그가 중국에 선교사로 감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요소로는 함께 파송될 선교사 방효원 목사가 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 수 있겠다. 홍승한 목사의 아내 방승화 사모는 바로 방효원 목사의 여동생으로 처남매부 지간이었던 것이다. 홍승환 목사와 사모 방승화, 아들 석은, 석만, 석철 삼형제와 방효원 목사, 사모 계은승, 장녀 현길 등 8명이 중국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다.³⁾

방효원 목사는 장남 지일을 평북 선천 조부모 품에 맡기

1) 기독교신보, 1917년 10월 10일자.

2)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6회 회록(1917), p. 5.이하 "총회록"이라 약칭함.

3) 방효원, "중화민국 산동성 래양선교사 방효원씨 보고", (경성:조선예수교서회, 1920), p.1에 "1919년 9월 15일에 본국을 떠나 동 27일 12일만에"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다. 1917년 가을 중국 도착, 3년 후 쓴 보고서이므로 잘못 기록하였거나 인쇄상 잘못된 것 같다. 홍승한 목사는 1917년 9월 20일 이후 대구를 떠나 경성에서 수일간 머물렀으며 9월 29일 평양으로 출발하였다.



중국식 복장을 한 홍승한 목사의 가족
홍승한 목사는 무릎위에 성경을 펼쳐잡고 있으며 장남 석은, 차남 석만, 삼남 석철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고 떠나게 된다. 두 선교사 가족은 1917년 10월 산둥성 래양 선교입지에 도착하여 중국인 가족을 세내어 생활을 시작하였다.⁴⁾

선천사람 조사 김병규 씨가 래양 선교지에 거주하며 도와주어 홍승한 목사는 방효원 목사와 같이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인을 상대하여 선교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공부는 가장 먼저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었다. 어학선생을 청빙하여 매일 과정으로 국어 교과서, 철자, 작문, 회화, 주음자모 등 5과목을 공부하게 된다. 어학공부 기간은 3년이었고 년 3기로 나누어 시험을 치루어 과목마다 70점 이상을 득해야만 하였다. 매학기마다 70점 이상 득하여 3년 성적이 다 합격되어야 선교사 자격이 된다는 규칙도 있었다고 한다.⁵⁾

홍 목사가 중국으로 파송된지 1년 후인 191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마련한 선교회 규칙중 제15조에 의하면 선교사의 어학은 3개년간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 매년 1차씩 시강하여 전도국에 보고토록 하였던 것이다.⁶⁾

선교사의 언어공부를 위해 어학선생을 고용하여 월급을 주고 공부를 하였는데 어학선생들은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이들로 전도선생의 역할도 동시에 하였다. 1918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남자가 2명, 여자가 1명으로 되어있다.⁷⁾ 여자 어학선생 겸 전도

선생이 있어서 사모들의 어학공부에 배려가 있었던 것이다. 홍승한 목사는 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한학선생일을 하여 다수의 한자를 알고 있었으나,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많은 인내와 노력이 요구되는 형편이었다. 중국어에 대하여 홍승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세상에 학기 용이한 문자는 별무하되 중국 한문자란 것은 자수의 번다와 자의의 변동과 성음의 분별이 천태만상이라 학기 심한하여 10년 이상을 학습하여야 서책을 간투하고 장구를 제작하는 고로 부가자제난 능히 입학하고 빈가자제는 능히 학지 못함으로 유식한 사람은 천명에 2~3인이 불과하고 겸유식한 인은 자기자교하여 입교하는 자가 불타하고 무식한 인은 자굴자포하여 입교하는 자가 적소하니라”⁸⁾

배우기가 심히 어려운 언어라고 한 그의 말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어느 언어든지 배우기 쉬운 언어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중국어 특유의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선교사의 효율성은 그 문화에 알맞는 방법으로 현지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때 장시간의 인내와 노력이 선교사나 후원하는 본국 교회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홍 목사의 언어공부는 조금씩 진전이 있게 되어, 1918년 가을 보고서에 의하면 여간한 방언은 할 수 있게 되었고 전도활동과 외촌 순행전도, 교회심방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⁹⁾ 일찍부터 중국 산둥성에 들어와 선교사역을 하던 서구선교사들보다 언어와 문화 등에 더욱 빨리 적응해 나갔다고 보아야 하겠다. 홍 목사가 거주하던 산둥성 래양에는 이미 타교파 서구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달리 조선선교사들은 한자를 아름답게 쓸 줄 알 뿐더러 여러모로 유사하여 이질감이 적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래양성내에 로마교, 루터교, 침례교 선교사들이 있었으나 중국인들이 조선 선교사들을 친동족같이 친절하게 영접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¹⁰⁾

선교사는 곧 서양인으로 통하던 시대에 황색 피부의 동양인이 세계선교 대열에 참여하여 환영을 받기도 하면서 언어공부와 복음사역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복음을 늦게 받은 민족이 먼저 받은 민족백성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에 참여한 것이다.

홍 목사는 중국 도착하여 1년 쯤 지난 때부터 중국어 설교와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편지의 한 부분을 읽어보자.

5) 방효원, “산둥선교에 대하여”, 계자씨(1937), 제70호, p.35.

6) 총회록, 제7회, (1918), p.77.

7) IBID., p. 65.

8) 홍승한, “중국 산둥성 래양선교소식”, 신학지남(1920), 제3권 제2호, pp.104-105.

9) 총회록, 제7회, (1918), p.64.

10) 총회록, 제6회, (1917), p.11 제7회, (1918), p.64.

4) 박상순, “산둥선교소식”, 계자씨(1935), 제 51호, p.16.

“중국 온 지 1년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보우하심과 본국 여러교회 부형모매제 씨의 기도하여 주신 결과로 영육간 평강하온 중 어학이 아직 익숙치 못하오나 몇 달 전부터 중국말로 강도(講道)와 기도를 하오며”¹¹⁾

1913년 파송되었다가 철수한 최초 조선선교사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목사의 사역결과로 성립된 예배당에 출석하는 신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며 어학공부에 주력한 것이다.

홍 목사 가족은 선교지에 부임하여 중국인 가족을 세내어 생활을 시작했으나 부임 2개월 후 본국 총회전도국에서 당시 돈 2,000원을 보내어 대지와 가옥을 구입토록 배려한 결과 1917년 12월 800여 평의 기지와 와가 18간, 초가 6간, 합 24간의 가옥을 구입케 되었다.¹²⁾ 구입한 가옥은 두 선교사 가족주택과 복음당, 어학선생, 사환 거주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래양 남문밖에 위치한 이 새로운 조선 선교사들의 선교지치는 위치도 좋고 기지도 넓은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좋았다고 한다.¹³⁾ 래양 남문밖에 위치한 이 선교지치를 중심으로 하여 같이 거주하는 어학선생 겸 전도선생들로부터 중국어를 배우며 방효원 목사 그리고 1918년 가을 함류한 박상순 목사와 함께 전도활동과 교회 사역에 협력하였다. 홍승한 목사 가족만이 홀로 선교지에서 언어공부와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팀선교사역으로 시작하였던 것이다.

2. 중국 산동노회와 지도자들의 태도

1913년 조선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교섭할 당시 화북대회원 중에 영향력 있고 유명한 한 회원이 반대를 한 바 있었고, 초기 3인의 선교사가 중국으로 파송되기는 하였으나 소속 문제를 보류하다가 박태로 목사 귀국 이후 1916년 가을 총회에서 조선선교사 이명문제가 결정되게 되었다. 김영훈, 사병순 목사는 잠시 산동 노회원이 되기는 하였으나 1917년 선교지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홍승한, 방효원 목사는 1917년 선교지에 부임하면서 소속을 중국 교회 측 즉 산동노회에 이명하여 산동노회원의 자격을 얻었다. 홍승한, 방효원 목사는 산동노회에 참석하여 노회원들로부터 대환영을 받게 된다. 미국선교사와 중국인 목사, 장로들로 구성되었던 산동노회에 조선목사가 합류하여 3개국 회원을 가진 노회가 된 것이다.

“산동노회에서 두 선교사를 위하여 대환영연을 배설하고 극진히 찬성하여 주니 장차 잘 될 모양이며 각처 목사와 전도인들이 래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조선 교회를 본받아 전도하여야 잘 되겠다하오니 장래 희망이며”¹⁴⁾

1918년 11월 7일 등주부(登州府)에서 개최된 산동노회에 홍 목사는 방효원 목사와 동반 참석하여 제반사항을 같이 의론도 하고 래양교회 형편을 보고하였는데 노회원들이 재미있게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게 된다.

“내외국 일반회원이 재미있게 듣고 또 회중이 결의하기를 우리 로회 경내 모든 교회가 다 래양교회와 같이 하자고 하였사오며”¹⁵⁾

홍목사가 소속된 산동노회 그리고 대회에서 조선선교사를 환영하며 선교하는 것을 보기 위해 시찰도 하고, 조선선교사 선교지방이 래양성 사방 30리 밖에 없는 것을 애석히 여겨 선교지방을 확장해 주겠노라는 말까지 있었다.¹⁶⁾

홍승한, 방효원 목사는 중국노회원 그리고 대회원들이 환영과 신임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첫번째 이유를 이명을 통한 일체감에서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나 현지 교단, 또는 목회자, 지도자들과 무관한 상태로 독자적으로 선교사역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현지교단으로의 이명을 통하여 회원이 되고 동역하는 자세를 취하였던 것이 훌륭하고도 현명한 처사였던 것이다. 아울러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교감을 이루며 또한 그들이 인정해주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출발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귀한 역사적인 선례가 되었다고 본다. 현지교단과 선교사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하는데 있어서 선교사를 파송한 본국 총회와 그 실무기관인 총회전도국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며 선교사들도 이러한 문제에 분명한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가 전파되지 아니하고 현지교회가 설립 안된 지역에 선교사가 파송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던 개신교 선교 초창기와 달리 현지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시대에 이르러서는 당연히 현지교단과 협의, 의논하는 가운데 선교사역을 착수하여 기존 교회를 존중하는 자세를 마땅히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중국 산동선교는 현지교단으로 이명을 통한 선교를 초기부터 실천하여 선교역사에 있어 귀한 선례를 남겨 주었던 것이다.

조선선교사들에 대하여 현지교회 지도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게 된 두 번째 이유로 선교사 파송국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들 수 있다.

“조선 교회가 신령하고 왕성하며 자립하며 주의 뜻대로 한다는 명성이 중국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 전도교우의 회수에 사무쳐 사실에 넘어가게 알고 믿으며 그러한 신령한 교회에서 파송한 목사이니 신령하다하여 가르치며 인도함을 사사에 순히 복종하오니”¹⁷⁾

조선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조선선교사들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산동노회에 속하여 일을 보던 홍승한 목사는 1920년 부터 박상순 목사와 같이 교동노회로 이명하여 교동노회원이 되었다. 조선선교회의 선교지방이 확장되면서 홍 목사 관할구역이 교동노회에 속한 고로 다시 이명하게 되었다.

12) 총회록, 제7회, (1918), p.65. 방효원, “중화민국 산동성 래양선교사 방효원씨 보고”, OP. CIT., p.1에는 “기지 700여평”으로, 기독교신보 1918년 4월 17일자에는 “기지 700여평, 와가 12간, 초가 10간” 등으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13) IBID., p.64.

14) 김선주, “중화민국 산동성 래양성 전도형편”, 기독교신보, 1918년 9월 4일자.

15) 홍승한 목사의 편지, 기독교신보, 1919년 2월 5일자.

16) 총회전도국연보청구서, 기독교신보, 1919년 11월 5일자.

17) 방효원, “중화민국 산동성 래양선교사 방효원씨 보고”, OP. CIT., pp.3-4.

11) 홍승한 목사의 편지, 기독교신보, 1919년 2월 5일자.

18) 교동노회는 1917년 성립된 노회로 산동성의 청도시, 즉묵, 평도 등 부근지역 관할 노회였다.¹⁹⁾

3. 조선선교사회와 동역자들

1917년 홍승한 목사가 산동 래양에 부임하던 시기에 조선 선교사회란 존재하지 않았다. 선교지 부임 1년 후인 1918년 8월 31일 평북 선천 북예배당에서 개최된 제7회 총회에서 전도국 규칙과 세칙, 그리고 선교회 규칙이 마련되어 발표되었으며 1918년 11월 박상순 목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조선선교사 세 가정이 래양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9년 조선선교사회가 조직되어 사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조선장로회가 1913년 선교사를 세 가정이나 중국에 파송하면서 아무런 규칙도 없이 파송하여 선교를 시작하였고 1917년 홍승한, 방효원 재파송 이후 규칙을 준비, 마련케 되고 1919년에 이르러서야 조선선교사회가 조직되기에 이른 것이다.

조선선교사회는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조직하되 회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선정하여 매월 1회 정기회를 개최, 일반사무를 처리하였고 일반의결사항을 명백히 기록, 후고에 편제 하였던 것이다.²⁰⁾ 조선선교사회는 매년 회계보고서, 선교회에서 1년내 행할 사건과 총계표, 목사와 사모의 개인으로 행할 사건에 대한 보고, 익년도 용비에 관한 예산을 작성하여 본국총회전도국에 보고해야 했다.²¹⁾ 조선선교사회의 주요안건들은 본국 총회에 보고되었고 본국총회의 허락을 득한 후에 중국측 노회에 허락을 득해야 할 안건들을 제출, 허락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의 조선선교사회 직원은 다음과 같았다.²²⁾

임 기	회 장	서 기	회 계
1919. 10~1920. 9월까지	방효원	홍승한	박상순
1920. 10~1921. 8월까지	박상순	홍승한	박상순
1921. 9~1922. 8월까지	방효원	홍승한	방효원

홍승한 목사는 3년간 서기의 역할을 맡아 선교사회 회록 기록과 보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신학교 후배인 방효원, 박상순 목사가 선교사회 회장직을 맡고 선배인 그는 서기의 직무만을 담당하여 동역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1921년까지 3명의 조선선교사가 목사선교사로 사역에 임하였고, 평신도 의사 김윤식씨가 의료사업을 통하여 선교사역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 주었다. 홍승한 목사가 대구교회에서 목회하던 당시부터 알게 된 김윤식씨가 결국 산동 선교지에 와서 협력하게 된 것이다.²³⁾ 김 의사는 1918년 박상순 목사 가족과 같이 중국에 도착하였다. 1922년부터는 새로 파송된 목사 이대영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교사 조소임 씨 그리고 1922년 9월에서 1923년 8월 사이에 의사 주현직 장로가 합류하여 동사하기 시작하였다.

4. 교회 개척과 전도활동

한국 교회가 최초로 타민족을 대상으로 파송한 선교사들은 목사선교사들이었다. 즉 교회개척과 육성을 선교의 기본적 목표로 두었던 것이다. 교회설립의 기본원칙으로 교회를 세우지만 중국측 노회에 속하게 하고 별도로 교회를 설립 아니하기로 한 것이다. 즉 아무 지역이나 들어가서 독자적인 교회 또는 선교사 파송국에 예속되는 교회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 현지노회에 소속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으로 현지 노회와 연합하고 피차 협력하는 형태의 선교를 전개기로 한 것이다.

“총회에서 중화민국에 선교사를 보내어 교회 세우는 주의가 그 나라 노회에 속하게 하고 따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겠다는 주의가 합하여 허락하시면 사무국에 맡겨 중화민국 노회에 이대로 편지하기로 하겠사오며”²⁴⁾

매우 단순하면서도 의미가 깊은 원칙이 마련된 셈이다. 1913년에 파송된 3인의 조선선교사들은 언어를 배우면서 역시 전도활동과 교회개척 사역에 착수하였으나 중국노회로의 이명이 지연되자 중국 현지 노회와 전혀 동떨어진 어떤 교회를 설립하려 한다는 의혹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²⁵⁾

1913년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의 사역결과로 1917년 보고에 의하면 예배 참석자가 많이 모이면 50~60명, 적게 모이면 40~50명이었고 그 가운데 세례인이 28명, 학습인 35명, 그리고 2명의 집사로 나타나 있다.²⁶⁾ 홍승한 목사 사역 이전에는 래양 서문내(西門內)에서 회집하였으나 1918년 1월부터는 래양 남문외(南門外)로 옮기게 되었다. 남문외에 대지와 가옥을 구입하여 그 중 4간은 복음당으로 사용하게 된다. 즉 중국인 신자의 예배당을 중국인 스스로 마련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라 조선 교회의 선교비로 마련, 회집하게 된 것이다. 1917년 6처의 기도처와 학교가 3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 1918년 8월 래양 남촌

19) 중화기독교교회 교동구회 제25계년의회의록 (1940)

20) 총회록, 제7회, (1918), p.73.

21) 조선 선교사회의 매월 정기회의록이 보존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매우 애석한 일이다.

22) 총회록, 제8회, (1919), p.33. 제9회록(1920), p.36. 제10회록(1921), p.26.

23) 줄고, “한국장로교회의 중국선교역사 연구”, 중국선교 3, (인천: 도서출판 청심당, 1994), p.52. 김윤식 의사를 “의료선교사”로 파송된 인물로 잘못 기록, 소개된 글들이 있다. 김광수, “아시아기독교확장사”, (서울: 기독교문사, 1981), p.83에 “의료선교사로는 1919년에 김윤식 의사를 라이양현 난관에…(중략)…파송하여”라고 잘못 기록하였다.

이명선,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역사적 전개”,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pp.54-55에 의료선교사를 파송(1918-1931)한 것으로 잘못 기록하였다.

24) 총회록, 제2회, (1913), p.25.

25) 줄고, “초기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교회개척”, 선교회보 6호, 대한예수교장로회 부개동교회 해외선교위원회, (1995. 10), p.3.

26) 총회록, 제6회, (1917), p.19.

27) 박상순, “산동선교의 과거와 현재”, 신학지남, (1935. 11), p.339.

18) 총회록, 제9회, (1920), p.35

석수두(石水頭)에 전도소를 설치하게 되어 예배처소가 모두 7처가 되었다.²⁸⁾

래양 예배당을 중심하여 7처의 예배 처소를 흥승한, 방효원 목사가 담당, 시무하였고 1918년 11월 박상순 목사가 새로 선교지에 도착하게 되어 조선 선교사 세 가정이 사역케 되었다. 1918년 래양성교회는 직원으로 서리집사 2인과 어학선생 겸 전도선생 3인이 있었다.²⁹⁾ 평균 회집 신자는 50여 명이었고 1916~1918년도 주일연보금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³⁰⁾

년 도	매 주일 현금	도 합
1916	80~90전	50원
1917	40~50전	110~120원
1918	50전	131원 50전

연보한 돈을 사용치 아니하고 건축연보와 합하여 1920년 8월 새 예배당을 건축, 낙성하게 된다. 1917년 가을부터 예배당 건축비로 연보를 작성하였고³¹⁾ 래양성 남정문 사통오달한 곳에 5칸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하게 될 때 래양성교회가 부담한 금액은 300여 원(교우들의 연보 200원 포함)과 불신자 요비덕이라 이름하는 중국인이 200원을 연보하였고 조선 교회 보조 200원을 합하여 건축비로 사용하게 되었다.³²⁾

찰스 알렌 클라 선교사에 의하면 1920년 이전에 중국 교회가 자담하여 예배당을 건축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³³⁾ 래양 예배당 건축이 중국 교회의 완전 자력으로 건축되어진 것은 아니더라도, 200원을 제외한 비용을 중국인 스스로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출발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조선선교사들 역시 중국 교회가 자력으로 교회를 건축할 힘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도움의 대상으로 간주,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선교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현지인들의 자력 가능성을 무시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조선선교사들은 예배당 건축 연보를 장려하였고 자력으로 그들의 형편에 맞게 건축토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이다.³⁴⁾

흥승한 목사와 동료들은 어학공부를 하는 기간에도 전도 및 교회사역에 착수하여 전도선생들과 여러 촌락을 순행하면서 전도를 하였다. 조선선교사 흥승한 목사가 중국에서 사용한 전도지와 전도책자들은 중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을 얻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복음책 1만여 권과 전도지 수만 장을 무료금으로 얻어 분급하여 팔며 전도도 하였으며 전두부 금전에 많이 도움이 되었사오니 감사하오며”³⁵⁾

전도책자 등을 무료로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판매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 하겠다. 당시 조선성교회로서는 요긴

한 전도지나 전도책자들을 제작 사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얻어서 사용하여야 했다.

1919년에 조선선교사들은 본국 총회에 복음당 설립 비용을 청구하였고 1920년 3월에 래양 목욕점(沐浴店)에 복음당을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목욕점에 세운 복음당은 2년 경과한 후에 폐지하게 되었다.³⁶⁾

조선선교사들이 복음당 설립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에서 조선선교사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중국인 신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조직교회 형태를 갖추고 예배당까지 마련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개척했다기 보다는 선교재정에서 비용을 사용하여 복음당을 우선 설립하고 그 곳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흥승한 목사와 동료들은 중국인 전도선생들과 같이 열심히 술선수법하여 래양 및 외촌 순회전도에 참여하였다. 1919년 가을부터는 전도에 더욱 힘쓰기로 하고 흥승한, 방효원, 박상순 목사가 지경을 나누어 시무기로 하였다.³⁷⁾

흥승한 목사는 1920년경 교동노회로 이명하기 전까지 어학공부와 전도활동, 래양성내 남관교회 그리고 석수 두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사역에 임하였다. 교회사역에 있어서 치리는 장로회의 정치대로 하였고 1919년에 래양 남관 교회의 경우 교인수가 61명에 달하였으나 현지인 교역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조선선교사들이 심방과 목회를 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³⁸⁾

흥승한 목사는 중국 산동성에서 선교하기 어려운 형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그의 설명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상적 관계이니 자고로 중국에 유명한 성현군자와 영웅열사가 열에 팔구는 산동성에서 출생하고 도덕과 문화의 발달도 산동성에서 시작된 것이 다수임으로 산동성인의 사상은 자연히 자존자대하여 자기의 지방과 자기의 성인과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문화 외에는 더 좋은 것이 재무한줄을 자신하고 언필칭요순공맹(言必稱堯舜孔孟)하고 예수교에 대하여는 양묵의 교(楊墨의 敎)보다도 더 괴상한 이화의 교(夷狄의 敎)로 억측(抑測)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못 할 뿐더러 반대와 핍박이 극심하여 경자년(庚子年) 의화단 변란의 발기인도 대부분은 산동인이

29) 총회록, 제7회, (1918), p.65.
 30) 총회록, 제5회, (1916), p.27. 제6회(1917), p.11, 20. 제7회(1918), p.66.
 31) 총회록, 제6회, (1917), p.12.
 32) 방효원의 1920년 10월 보고서에는 요비덕씨가 250원을 연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3) 광안련, “장로교회사전취집”, (평양:기신사, 1935), p.104.
 34) 1927년에 산동성 즉묵 선도당 건축시에 이대영 목사는 본국교회를 다니며 지원청원한 막대한 돈을 사용하여 교회를 건축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
 35) 방효원, “중화민국 산동성 래양 선교사 방효원씨 보고”, OP. CIT., p.4.
 36) 박상순, “산동선교의 과거와 현재”, OP. CIT., p.340.
 37) 총회록, 제8회, (1919), p.32.
 38) IBID., p.34.

28) 총회록, 제6회, (1917), p.20. 제7회, (1918), p.66. 박상순, “산동선교의 과거와 현재”, IBID.

라”³⁹⁾

중국 산동사람들의 사상적인 벽이 어떠한가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18세기 영국이나 다른 서구 선교사들은 신앙이 비록 복음주의일지라도 서구 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선교지 문화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으나, 19세기 후반에 일부 서구 선교사들은 중국의 종교와 문화를 너무 과대평가하여 기독교의 중국에의 적응을 시도한 자도 있었다고 한다.⁴⁰⁾ 그러나 조선선교사 홍승한 목사 and 동료들은 중국사상과 문화에 대하여 서구 선교사들과 다른 입장에 있었다. 중국인들의 자존심의 배경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복음전파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현실을 직시하였던 것이다. 중국인들은 입을 열기만 하면 고대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 스리던 태평성대의 시절을 그리워하고, 공자와 맹자를 논하였던 것이다.

두번째로 그가 지적하였던 것은 문자와 언어에 관련된 것이고 세번째로 습속적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산동사람은 본시 본국인이라도 타성인이면 일증하다 하는 습속이 유한 중에 모양과 언어와 의복이 부동한 외국인은 불언가상(不言可想)이라”⁴¹⁾

산동성인의 우월감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동에서 선교하면서 전도에 방해되고 심히 어렵게 하는 형편은 그 외에도 많이 있다고 홍승한 목사는 기록하였다.⁴²⁾



정확한 설립시기와 위치를 알 수 없으나 산동성에 세워졌던 어느 복음당의 모습.

5. 조선교회 형편(3.1운동 당시)과 조선선교사 고국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사건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선교사들에게 전해준 사람은 김윤식 의사였다.⁴³⁾ 김 의사는 대한독립이라는 놀랄만한 소식을 듣고 병환자를 돌보다가 약값도 그만두라 우리도 독립이 되었다고 하며 조

선선교사들에게 달려갔다고 한다. 이 소식을 서로 붙잡고 “이게 웬일이야 대한독립이라니” 하며 만세를 부르다가 저녁에 대한독립기념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한다. 독립만세사건을 독립이 되었다는 말로 잘못 듣고 기념예배까지 드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독립만세 사건에 관계된 인사들이 형무소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자 7일간 모여 배움을 입고 금식기도를 하였다.⁴⁴⁾

나라 잃은 백성으로 선교하는 나라와 선교사는 세계에 조선과 조선선교사 뿐이었을 것이다. 3·1운동의 여파로 본국 총회전도국 임원들 대부분이 체포, 구금되었고 그로 인하여 산동선교 업무가 마비되고 어렵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전도부 임원 전부가 거의 체포되어 전도부가 파괴됨과 같으며 겸하여 선교회 회계부에 재전은 1푼도 없어 3목사 식구 15인몰이 위태한 경우에”⁴⁵⁾

고난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부르짖어야 하던 시기였다. 전도 사무국장이자 부회계이던 길선주 목사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인으로 체포되었고 총회장 김선두 목사도 경성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었다.⁴⁶⁾ 그리하여 1919년에 총회전도국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람은 조선인이 아닌 서양선교사 윤산온이었다.⁴⁷⁾

윤산온 선교사는 모든 지원이 중단되어 있던 조선선교사들을 위하여 극력 주선하여 위로의 편지와 선교비를 보내 주었다.⁴⁸⁾ 독립을 부르짖는 나라에서 파송되어 온 조선선교사들과 조선교회를 동정하여 중국교회도 조선을 위하여 기도해 동참하였다.

“기도라, 기도는 공기도, 목기도, 사기도와 특별기도를 힘쓰며 교회 진흥하기 위하여, 본국 잘 되기 위하여 특별히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 많사오며 특별히 산동 각 교회가 특별시간을 작정하고 조선 교회 고난받는 것을 위하여 작년부터(1919년-필자 주) 오늘까지 기도하오며 노회로 회집시에는 조선만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하오며”⁴⁹⁾

고난당하는 조선교회와 조선민족을 위하여 산동성 여러 교회와 노회에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과 서양선교사들조차 기도해 동참하였던 것이다. 홍승한 목사와 동역자들은

40) 전호진, “한국교회 선교: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 (서울:성광문화사, 1993), pp.74-75, 153.

41) 홍승한, “중국산동성래양선교소식”, OP. CIT., p.106. (불언가상:말을 아니하여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음)

42) IBID.

43) 김윤식 의사 자필초고, 1958년 9월, p.9.

44) IBID.

45) 방효원, “중화민국산동성래양선교사 방효원씨 보고”, OP. CIT., p.1.

46) 총회록, 제7회, (1918), p.95. 제8회, (1919), p.1.

47) 기독교보, 1919년 11월 5일자.

48) 방효원, “중화민국산동성래양선교사 방효원씨 보고”, OP. CIT., p.2.

49) IBID., pp.6-7.

39) 홍승한, “중국산동성래양선교소식”, OP. CIT., p.104.

고난당하는 조국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배움을 입고 일주일간 금식기도를 하며 고난에 동참하였다.

6. 산동선교지 확장과 교동노회로 이명

산동노회 소속 조선선교사 홍승한, 방효원 목사는 1918년 5월 화북대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래양성 사방 30리 지점을 선교지로 인수하였다.⁵⁰⁾ 조선선교사 선교지방에 관하여 홍승한 목사는 그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아선교회가 중국교회에 득허하여 전도하는 지방은 본래 래양성 사방 30리 이내 뿐이니 30리 이내로 언한즉 일개 목사와 전도인의 구역에 불과하니⁵¹⁾”

본국 조선에서 목회할 때 경상도지역 노회장의 직무를 수행한 바 있는 홍 목사는 1919년도에 중국 선교지에 노회 조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조직가요 행정에 능한 인물이었던 홍승한 목사는 선교지에 부임, 사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노회조직의 꿈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래양전경을 일차 순시하면서 지도를 화하며 각양을 사지(告知)한 즉 지면의 주위가 오백여 리요 직경이 이백여 리요 동수가 오천여 동인데 시장지가 42처요 이삼천 호되는 촌이 허다하고 촌이라 위명하고는 백호이하 되는 촌이 기처가 되지 못하며 인구수는 105만 명 가량이요, 교회로 논하면 대소합 팔구처요 교인수는 2백여 명이니 만일 아선교회가 래양전경을 전입하며 근무하고 천부께서 은우하시면 불원간에 일대노회도 조직할만 하도다⁵²⁾”

선교지 확장 후 가중된 선교비 문제로 인하여 1924년 선교사직을 마감하고 소환당하게 된다. 그리고 노회조직은 1933년에 이루어지게 된다. 조선선교사들은 선교확장 문제와 선교사 구역 더 얻은 후에 중국 전도인 15명을 세우는 경비로 대양 2,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부결되고 만다.⁵³⁾ 선교지 확장은 허락되어 산동, 교동노회에 교섭, 제출키로 하였으나 인계받게 될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전도인들 봉급은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찰스 알렌 클락선교사는 부결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선교사들은 본국 전도국에 중국인 조사와 전도인의 봉급을 청원하였다. 물론 우리 전도국에서는 조선식으로 하도록 하라고 허락치 아니하였다⁵⁴⁾”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찰스 알렌 클락 선교사의 말대로 부결이 되기는 하였으나 1919년 11월 산동과 교동노회(독회)의 허락으로 래양전경이 조선선교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중국 전도인들의 월봉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결국 ‘지방보조비’란 항목으로 보조를 시작하게 되어 1940년대까지 유지되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에서 시행되던 선교방식인 「네비우스 선교정책」 즉 조선식대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중국 전도인들 재정보조 문제에 있어서는 가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조선선교사들이 중국 산동선교지에서 조선식으로 해야 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절대 아니다. 현지 교회 자립

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이며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만약 조선선교사들이 조선 교회의 모델을 중국에 그대로 이식하려고 노력하였다면 문제가 심각치 아니하다 할 수 없다. 서구 선교의 경우 선교사들이 속한 교회의 모델을 선교지에 그대로 이식함으로써 선교지 교회는 파송교회의 복사판에 불과한 것도 많았다고 한다.⁵⁵⁾ 조선선교사들은 현실의 벽을 극복치 못하였고 중국 전도인들에게 보조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⁵⁶⁾

1919년 11월 선교지가 확장되면서 조직교회 5처, 미조직교회 6처, 전도인 두고 전도하는 복음당 6처, 학교 8처, 중국인 전도인 17명을 인계받게 된다.⁵⁷⁾ 조선선교사들이 중국측 노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들로 노회에 속해있던 상황 하에 조선선교회로 인수인계의 절차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당시 중국측 노회가 자치적이지 못하고 외국 선교회에 예속적이었다는 것을 추측 가능케 한다.

조선선교회가 기존 교회를 인수하여 관리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된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임에 분명하다. 조선선교회는 래양성 사방 30리에서 래양전경과 평도와 죽목, 두 현의 몇분지 일애 해당하는 지역을 인계받게 되었다.⁵⁸⁾

래양 서남편은 교동노회에 속하고 동북편은 산동노회에 속한고로 선교지 확장에 이어 조선선교사들의 소속도 달리하여 홍승한 목사는 박상순 목사와 함께 교동노회로 이명을 하였고 방효원 목사만 산동노회에 남게 되었다. 이명이 되고 여러 교회를 담임하게 된 홍승한 목사는 활발한 선교활동에 착수하게 된다.

다음 호에 제2장 중화기독교교회 교동노회 소속 선교시기(1920-1924)가 계속 연재될 예정입니다.

51) 홍승한, “중국 산동성 래양 선교소식”, OP. CIT., p.110.

52) IBID., p.111.

53) 총회록, 제8회, (1913), p.30, 32.

54) 박안련, “장로교회사전회집”, OP. CIT., p.103.

55) 전호진, OP. CIT., p.75. 조선 교회의 모델에 있어서 조선 교회의 모델을 선교지에 그대로 이식한 점이 있었는데 관하여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56)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4), p.267에 “전도인 15인에 대한 선교비 2,000원의 거부는 한국에서 실행되었던 네비우스 선교원리의 반영을 의미하며 선교사들은 후에 이를 깨닫고 총회의 지침에 감사하며 순종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역사적인 사실과는 다르게 잘못 설명하였다.

57) 총회록, 제9회, (1920), pp.34-35.

58) IBID.

50) 박상순, “산동선교의 과거와 현재”, OP. CIT., p.339.



중국을 주께로 기도합주회

오늘처럼 기도가 요구되는 시대가 있을까요?

그러나 요즘처럼 기도가 잠들어 있는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을 열어 짓히는 열쇠입니다.

우리를 엮매는 대적의 진영을 산산히 깨뜨려 버립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한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불가능이란 더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하기를 명하시는 일이 기도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중국이 변하길 원하십니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모이십시오.

중국을 위해,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로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위해 함께 무릎꿇습니다.

'중국을 주께로 기도합주회'는

기도의 광장을 마련해 놓고 기도의 헌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 **문의** : 중국어문선교회 (Tel : 594-8038, 533-5497)

귀주이야기

이홍자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중국 영화 <귀주이야기>는 <붉은 수수밭>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진 장예모(張藝謀) 감독의 작품이다.

장예모 감독은 5세대 감독군에 속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혁명 후의 사회진실을 직시하고 과거를 반성하는 것, 역사적인 상황에 의해 좌절되는 인간상,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 세대간의 갈등, 사고 방식과 생활방식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절실한 필요성을 담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 영화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화는 한 농부가 촌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급소를 걷어채이게 되는 사건에서 비롯된다. 농부의 아내(공리 분)는 남편을 다치게 하고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 촌장이 심히 야속하게 느껴진다. 잘 알고 지내던 공안원이 가까스로 중재를 한 결과 화해의 표시로 촌장이 치료비를 건네주기로 한다. 그러나 촌장이 돈을 줄 때 한 장씩 날리며 주워가라고 하자, 농부의

아내는 모욕감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화를 내며 그냥 돌아간다. 임신중이어서 몸이 무거운데도 끝내 촌장의 사과를 받아낼 목적으로 공안국으로, 현(縣)으로, 시(市)로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결코 돈이나 그 밖의 어떤 것도 아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촌장의 사과 한 마디이다. 그녀는 이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우여곡절 끝에 법정까지 가게 되지만 거기서도 패소하고 만다. 그러는 동안 출산일은 점점 다가오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경극을 구경하러 가고 없는 사이에 그녀는 난산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다급해진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촌장을 찾아 도움을 손길을 청하게 되고, 아내는 촌장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간신히 출산을 한다. 이 일로 그녀와 촌장 사이에 맺혔던 한은 무언중에 저절로 풀린다. 아기를 위해 잔치를 벌이는 날, 농부와 농부의 아내는 상의끝에 아기와 산모의 은인인 촌장을 특별

히 청하기로 한다. 그런데 하필 바로 그날 예전에 제출했던 남편의 진단서로 인해 촌장이 구속된다.

<귀주이야기>는 사소한 사건과 단순한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잔잔하고 일상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나 작은 사건을 통해 중국 전체를 조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못 비중이 크다. 농부는 촌장에게 급소를 걷어채인 후 고통을 당하면서도 억울하지만 참는 수밖에 없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위에서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제정해왔다. 때문에 이 법이란 인권을 옹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비록 농민과 노동자를 중시한다는 이념을 앞세우긴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체제 속에서 농민들 개개인의 권익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부의 아내가 촌장을 고소하겠다고 나선다. 남성도 아닌 여성이, 게다가 도시의 유식한 여성도 아니고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농촌의 일개 여성이 조직의 힘을 배후에 업고 있는 촌장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큰 산을 부수려고 하는 것처럼 무모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번번이 좌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집념을 버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끈질기다 못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다.

개혁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작은 힘을 서로 모아 서서히 의식구조를 변

화시키고 나아가 행동을 변화시킬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다. 비록 촌부 한 사람의 미약한 몸짓이지만 이를 구심점으로 하여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의 힘이 모아진다면 중국의 의식구조나 생활방식도 언젠가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는 5세대 감독군의 특징과 아울러, 도도히 흘러온 왜곡된 의식의 물꼬를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보려는 결의가 이 영화 속에서 번뜩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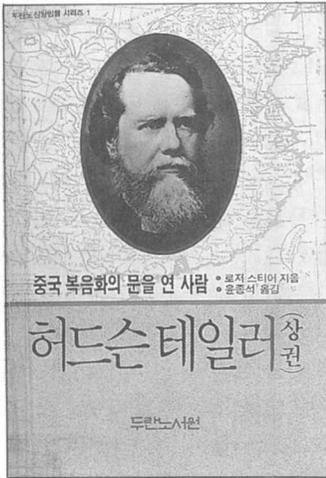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문득 뇌리를 스쳐가는 것은 2년 전 필자가 중국을 여행하며 겪었던 일이었다. 충칭(重慶)에서 우한(武漢)까지 나흘 동안 배를 타고 양자강을 따라 내려온 적이 있다. 한강을 보면서 자라온 나로서는 양자강의 의미가 쉽게 와 닿지 않았다.

강줄기를 따라 하루를 꼬박 내려간 뒤 이제는 아마도 다른 나라에 오지나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정도였지만 강 기슭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인들이었다. 다음 날 선창으로 보이는 풍

경은 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어서 혹시 바다로 나온 것이 아닐까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지만, 배가 멈추어 섰을 때 배에 오르는 손님들은 여전히 중국인들뿐이었다. 이윽고 나흘 만에 목적지에도 착하여 발을 디딘 육지에서도 보이는 사람들이라곤 온통 중국인들뿐이었다. 애 이 넓은 땅, 이 많은 사람들……. 나는 그제서야 양자강, 아니 중국의 의미가 조금씩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중국을 복음화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산을 부수는 일이 아닐까? 도대체 얼마만큼의 선교사가 이 땅에서 피땀을 흘려야 이 일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낙심이 앞서고 손에 힘이 빠졌다. 그러나 오늘 이 영화를 통해 얻은 교훈은 우리들의 역량이 아직은 지극히 미약하지만 중국을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보려는 작은 결의들이 모이고 또 모이면 결국은 이 넓은 중국도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주님이 우리의 구심점이 되어 주시고, 또 주님이 중국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데에 래





허드슨 테일러

모소명

중국 을 마음에 품고 중국을 바라보며, 중국에 관한 기사라면 신문의 한 줄짜리 기사마저 놓치지 않는 나는, 또 어느새 중국을 향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허드슨 테일러를 읽게 되었다. 더우기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를 모른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될테니 말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허드슨테일러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어 책을 펴들었다. 상,하 두 권으로 되어있는 적지 않은 분량을 사무실과 가정 일의 분주한 와중에도 단숨에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이 책의 매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려거든 그를 하나님을 위하여 중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제임스 테일러와 아멜리아 테일러 부부의 아들로 잉글랜드 지역의 반즐리에서 출생한 허드슨 테일러는 두 누이동생과 함께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다.

허드슨 테일러의 부모님은 양쪽 다 감리교 집안이였으며, 허드슨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직접 공부를 가르쳤고 시간이 가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을 대화의 화제로 삼곤 하였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아이들의 삶이 공부만 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면 중국은 잠시 잊게 한 채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며 새와 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곤 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거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하신단다. 그분은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신단다.”라고 말해주곤 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허드슨 자신도 가끔, “나는 어른이 되면 꼭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갈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허드슨도 한때 신앙을 떠난 때가 있었다. 열다섯 번째 생일을 지나서 은행에서 일할 때, 그는 신앙생활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급기야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기까지 되었다. 그 때 그의 어머니는 사연을 캐묻는 대신 온유함과 기도로 기다렸고, 그기도의 결과 허드슨

의 방향은 끝났다. 이제 그는 자신이 중국으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 17세였다.

그 후 그는 중국에 가기 위한 준비로서 헐이라는 지방에 가서 의사 하디 박사의 조수로 일하며 의학공부를 하였다. 이때 허드슨은 자신의 ‘영적 근육’들이 더 강건해져야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실험하고 또 그렇게 응답받았다. 그는 그 후로도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다.

드디어 1853년 9월 19일 CES 선교사로 리버풀 항을 떠나 중국으로 향한 허드슨은, 1905년 6월 3일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시간까지 11차례나 중국과 영국을 오갔으며 중국내지선교회(CIM)를 창설하여 중국내지선교에 온 정열을 쏟아부었다. 중국 선교사로서 중국인과 같아지기 위하여 변발을 하고 중국복장을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중국선교사의 자세를 가늠해 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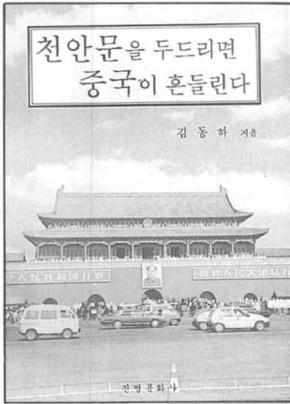
허드슨의 전기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면면히 흐르는 내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로 인한 기도이다. 출생 전 부모님의 기도, 신앙을 회복해 예수님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했던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오직 기도로만 일관한 허드슨 테일러를 보게 된다. 여기서 그의 업적보다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으로 일관했던 그의 삶이 나로 하여금 이 책을 사랑하게 하였음을 고백한다. 인간적으로는 네 자녀와 첫 번째 부인을 선교현장에서 하나님 앞으로 먼저 보내야했던 시련이 있었고, 또 선교사역에 무수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끝없이 밀려오는 시련의 파도를 지나가고 있다. 시련은 날마다 짝한 그 날의 몫을 갖고 찾아온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에게 ‘아버지시여!’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물어오시는 것만 같다. 그분은 영혼을 지키시고 계시며 또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육신은 언제 넘어질는지 모른다. 이런 일들 속에 담긴 모든 의미는 오직 주님만이 아실 것이다. 밤낮으로 밀려드는 긴장은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주님의 길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 아닌 다른 것은 가질 수가 없다.”

어떤 선교사가 허드슨에게,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뢴다는 것은 커다란 특권인데도 저는 때때로 이것은 기도하기엔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느껴져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허드슨은 “나는 그런 건 모르고 살았지만 작은 것이란 없다고요. 그리고 큰 것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크시니까. 우리는 그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할 만큼 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한 삶이었다. 능력있는 크리스천으로서 매순간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꼭 이 책을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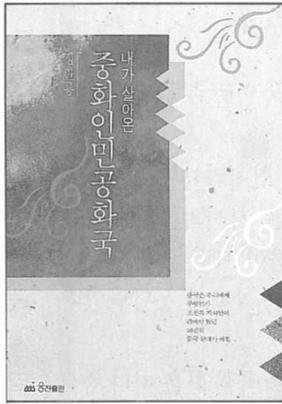
「허드슨 테일러」 로저 스티어 지음, 윤종석 옮김. 상·하권 두란노서원 각권 3,500원

모소명 / 갈릴리세계선교회(GWM) 간사.



**천안문을 두드리면
중국이 흔들린다**

김동하 지음
신국판 · 300쪽 · 6,000원
진영문화사



**내가 살아온
중화인민공화국**

정판룡 지음
신국판 · 383쪽 · 5,800원
웅진출판



**등소평 사후의
중국**

허반 지음, 허남익 옮김
신국판 · 430쪽 · 7,000원
연암출판사

'94년에 <북경 보통사람들의 100가지 이야기>란 책을 낸 적이 있는 저자는 유학하는 동안 북경에 관한 두 번째 관찰기인 이 책을 내었다.

전체 10부분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와는 다소 동떨어진 중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변화추이와 그들의 개혁개방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북경시내 한복판의 교차로나 고가도로에 외국기업의 이름을 경매를 붙여 파는 정부, 하수도 맨홀 뚜껑을 몰래 훔쳐다 파는 사람들, 길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공중 화장실을 안내하고 돈을 받는 신종직업인 도축원(導廁員) 등.

공산주의라는 이념과 체제로 아시아 대륙을 움직이고 있는 중국의 변화는 우리 뿐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저자의 말대로 중국은 밖에서 보기와 안에서 보기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차이가 심한 나라다. 간접적으로나마 이 차이를 실감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 책은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될 것이다.

이 책은 한 조선족 지식인이 겪은 파란의 중국 현대사 체험기이다.

일제시대, 전남 담양에서 가난한 참빗장수의 아들로 태어난 저자가 여섯 살 되던 해, 온 가족은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황량한 만주벌판으로 이주했다. 남의 땅에서 살면서 겪어야 했던 가난과 전쟁, 중국 최초의 소수민족대학 연변대학의 제1회 조선어학과 졸업생이 되어 소련유학을 하던 시절, 허무맹랑한 간첩혐의를 받아 책상 위에서 치욕스런 벌을 받고 밀시와 능욕의 노동개조대에 들어가 교수의 신분으로 변소청소까지 해야 했던 문화대혁명 등 온갖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50년 만에 그리던 고향을 찾아와 가슴 속에 맺힌 회한을 풀고 있는 연변대 정판룡 교수의 사연이 펼쳐진다.

필자는 비록 개인의 회상기 형식으로 이 책을 썼지만, 한국의 독자들에게 중국의 현대사와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피맺힌 역사의 일부를 알리기 위해 역사적 시기와 사회배경을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43명의 세계 석학들이 등소평 사후의 중국을 분석, 전망한 내용이다.

정치권력의 재편성과 등소평 이후 각종 파벌들의 배열 조합 등 여러 가능성을 예견하며, 중국 정치적 구조를 재조명하여 중국의 당면 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주장하는 1국 2체제 형태의 발전 방향과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양안문제를 언급하면서, 홍콩 및 대만과의 관계를 전망하고 있다.

한편 끊임없이 소용돌이 치는 민주화 운동과 민주적 외교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는 중국 언론의 자유화를 향한 분출구를 찾아보고 있으며, 대중화 경제권의 필연적 추세, 경제 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및 정치적 변혁에서 오는 피하기 어려운 동요 속에 사회적 안정을 원하는 중국인들의 요구와 필연적 귀결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변수가 큰 삼권양방의 견제와 균형 문제,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 문제가 새로운 외교의 구심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등 신중국을 향한 희망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神啊我心堅定於祢

오 주여 나의 마음이

神啊我心堅定於祢 神啊我心堅定於祢
Shén a wǒ xīn jiāndìng yú nǐ shén a wǒ xīn jiāndìng yú nǐ

我要唱詩歌頌祢聖名——
Wǒ yào chàng shī gē sòng Nǐ shèngmíng

我的靈要醒起歡唱琴瑟啊！你們當醒起！
Wǒ de líng yào xǐng qǐ huānchàng qín sè a nǐmen dāng xǐng qǐ

我自己要極早醒起唱詩
Wǒ zì jǐ yào jí zǎo xǐng qǐ chàng shī

美妙旋律 美妙旋律
Měi miào xuán lǜ měi miào xuán lǜ

主—耶穌 是美妙旋律
Zhǔ Yē sū shì měi miào xuán lǜ

우리말 가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이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예수) 멜로디(예수)
주님은 나의 노래

선 고 신 단

세미나 스케치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 정기 세미나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가 주최하는 정기 세미나가 지난 11월 30일 중화한성교회에서 「한국에서의 중국선교- 현황, 방법 및 활동과 이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강사인 한윤숙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의 세계선교 현황을 분석하면서 중국 선교의 사역 대상과 한국인 선교사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지금이 중국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개혁 개방이란 시기와 사회주의 노선에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을 잘 파악하여 이 시기에 가능한 사역 형태를 찾아보았다. 즉 문서사역, 어린이 사역, 음악 사역, 장애인 사역 등 사역의 다양화와 구체적인 자질을 갖춘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한국의 중국선교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았다.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당에 주목받는 교회건축을 자제하고, 연구기관, 선교단체, 파송기관 및 교회가 협력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시설이나 인재양성에 힘쓰며, 현지 중심의 선교거점을 만들어 나갈 것을 호소했다.



훈련받을 일꾼을 모집합니다.

한국 OMF 제4회 동아시아 선교캠프

한국 오엠에프에서는 동아시아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할 사역자를 준비시키는 목적에서 동아시아 선교캠프를 실시한다.

기간: 1996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장소: 합동신학교 기숙사(수원)

등록비: 9만 5천원

한국 OMF 월요 선교학교

기간: 96년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저녁 6시)

원서마감: 96년 2월 9일

훈련비: 15만원

자세한 문의는 한국 오엠에프로

TEL. 563-7574

세계선교훈련원 한국선교사 훈련학교

선교헌신자의 영적준비와 선교이론 및 실재를 준비하여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 훈련을 실시한다.

▷1단계: 세계선교훈련원(KWMTI)

일정: 1학기 1996년 3월 25일-4월 19일(4주간)

2학기 1996년 4월 29일-5월 23일(4주간)

훈련장소: 소망수양관(경기도 광주)

등록비: 학기당 50만원(부부는 80만원)

▷2단계: 한국선교사훈련학교(KMTS)

일정: 1학기 1996년 6월 3일- 9월 2일(14주간)

월(오후 7시-9시)/ 화, 목(오전 10시-5시)

훈련장소: KMC(서울 서초구)

등록비: 학기당 10만원(부부는 15만원)

▷3단계: 해외훈련(영국, 싱가포르, 필리핀)

자세한 문의는 한국선교사훈련원으로

TEL. 363-7091

한국제자훈련원 훈련생 모집

한국제자훈련원에서는 제6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기간: 96년 3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8개월)

장소: 강원도 춘천소재 본 훈련원

훈련비: 130만원

자세한 문의는 한국제자훈련원으로

TEL. (0361) 57-3192

외향선교회 겨울 단기선교

기간: 96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장소: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등
 경비: 130만원
 자세한 문의는 한국외향선교회로
 TEL. 333-0592

예수전도단 '96 단기 예배학교

예수전도단에서는 한국교회 안에 예배의 부흥과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며, 교회와 선교단체 안에서 사역하는 찬양인도자들 안에 예배를 통해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단기 예배학교를 연다.
 기간: 1996년 1월 8일부터 13일까지
 장소: 양재동 선교햇빛회관 희락성전
 인원: 700-1000명
 등록마감: 1차-12월 26일, 2차-12월 30일까지
 회비: 1차-3만원, 2차-3만 5천원,
 당일등록시 4만 원
 접수처: 예수전도단 서울찬양팀
 담당간사 김덕일
 자세한 문의는 예수전도단으로
 TEL. 878-3021 FAX. 872-7735

두란노 한이성경연구소 안식년 프로그램

두란노 <한이성경연구소>에서는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안식년을 맞아 쉼과 재충전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안식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간: 1996년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8주)
 대상: 안식년을 맞는 목회자와 선교사
 경비: 495만원
 《프로그램 일정》
 1주: 이집트, 이스라엘 등 유적지 방문
 2주: 이스라엘 성지 현장답사
 3주: 이스라엘 키부츠 생활
 4주-5주: 터키, 그리스 등 초대교회 발자취
 6주: 독일 마리아수도원 공동체 생활
 7주: 스위스 라브리 생활
 8주: 영국 선교단체(WEC), 신학교 방문
 자세한 문의는 한이성경연구소로
 TEL. 972-8698 FAX. 749-5498

AAP 인천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본부 발족

인천 미전도종족 입양본부는 21세기 선교의 전망과 미전도종족 입양에 대한 인천 지역교회의 참여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7월에 사무실을 열고 10월 30일 인천지역교회를 대상으로 창립 예배 및 세미나를 가졌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미전도종족 입양본부의 지원과 협력으로 이 지역 미전도종족 입양에 구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연락처: 인천 남구 용현동 89번지
 성광세계선교센터
 TEL. (032)872-2338 FAX. (032)862-6942

세계선교협의회 제3차 한인선교대회

2000년대 지구촌 복음화의 위대한 비전과 긴박성을 재확인하고 한인교회의 선교적 대각성을 촉진하고자 한인선교대회를 개최한다.

기간: 1996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장소: 빌리 그래함 센터/
 휘튼대학교(미국 시카고)
 주제: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족에게"

등록비: 20만원
 항공권 및 호텔숙박비: 96만원
 등록마감: 1996년 1월 31일
 자세한 문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96 한인선교대회 한국준비위원회로
 TEL. 363-7091~2 FAX. 393-8462

'96 선교한국

미전도 종족 선교에 헌신하려는 청년들의 선교촉제인 <'96선교한국>의 일정이 확정되었다.

기간: '96년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장소: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주제: "세계 복음화는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자세한 문의는 선교한국으로
 TEL. 333-0592

이번 호부터 최근의 세계선교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전 세계 선교단체들의 운동과 전략을 소개하는 「세계 선교 동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선교와도 무관하지 않는 세계선교의 흐름 이해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독자들과, 직접적으로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첫번째로 기독교 21세기 운동본부에서 제공한 자료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

(JOSHUA PROJECT 2000)

루이스 부시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이란 무엇인가?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은 지구상의 최소 복음화 민족들에 초점을 맞춘 전세계적인 협동 전략이다. 이 프로젝트는 “서기 2000년까지 민족마다 교회를 갖게 하고 사람마다 복음을 받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모든 나라들로부터 모든 교회와 단체, 교단,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이 참여시키려 한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은 전세계적인 프로젝트이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은 세계적인 기독교인이거나 세계적인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개인들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지역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세계에 대한 관심도 아울러 지닌 지역 교회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은 협력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어느 한 기독교인이나 어느 한 교회나 어느 한 교단, 어느 한 단체나 기구가 홀로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서로 협력하고자 한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은 전략이다.

이 프로젝트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음”(마 28:19)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과 명령에 순종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개척교회 설립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삼고 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은 전 세계 최소 복음화 종족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현재 교회 설립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고 선교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본 1,700개로 추산되는 민족들의 목록이 있다. 이들 1,700여 민족들에는 10/40 창문지역 인구의 90% 가까이 되는 22억의 사람들이 속해 있다. 10/40창문지역은 아프리카 서부로부터 아시아 동부에 이르는 직사각형의 지역이다(북위 10° - 북위 40°).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은 세계 모든 나라들로부터 모든 교회와 단체, 교단,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이 참여시키려 한다.

민족마다 교회를 갖게 하고(마 28:19) 사람마다 복음을 받게 하는(막 16:15) 기독교 21세기운동의 비전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단체, 그리고 교단들은 이 일을 위해 노력하고 참여하도록 권유받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오늘날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대륙과 나라들을 대표하는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은 “서기 2000년까지 민족마다 교회를 갖게 하고 사람마다 복음을 받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존 스토틀는 최근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세계 복음화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의 자체 선교 확산에 크게 힘입어 가능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은 여호수아서에서 세 가지 전략을 취한다.

그 땅을 정탐하자.

이스라엘은 우선 약속의 땅을 정탐했다. 모세는 정탐꾼을 보냈다. 정탐꾼들은 근거지를 정하고 탐색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왕국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위험을 무릅썼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전세계 최소 복음화 종족들 가운데 만드시는 기회들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에게도 회여져 추수하게 된 밭이 있다. 우리가 요망하는 바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책임감을 지니며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 그 땅을 취하라는 것이다.

성벽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자.

여호수아는 적들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의지했다. 오늘날 많은 도시들처럼 여기고는 요새화되고 적들이 굳게 지키는 도시였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취하려 하시는 도시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95년 10월 백만 명이 100대 관문 도시들을 위해 기도했다.

'97년 가을이면 우리는 교회 설립이 가장 절실한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고의 물리적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전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해 크게 대항하는 다른 벽들도 무너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그들을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벽 저쪽에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민족들과 도시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

이스라엘 각 족속이 그곳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갈 장소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교회들과 사역들은 그 땅을 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조직적인, 단계적인 나아감 가운데 줄 수 있는 협력을 통해 발휘될 수 있는 은사들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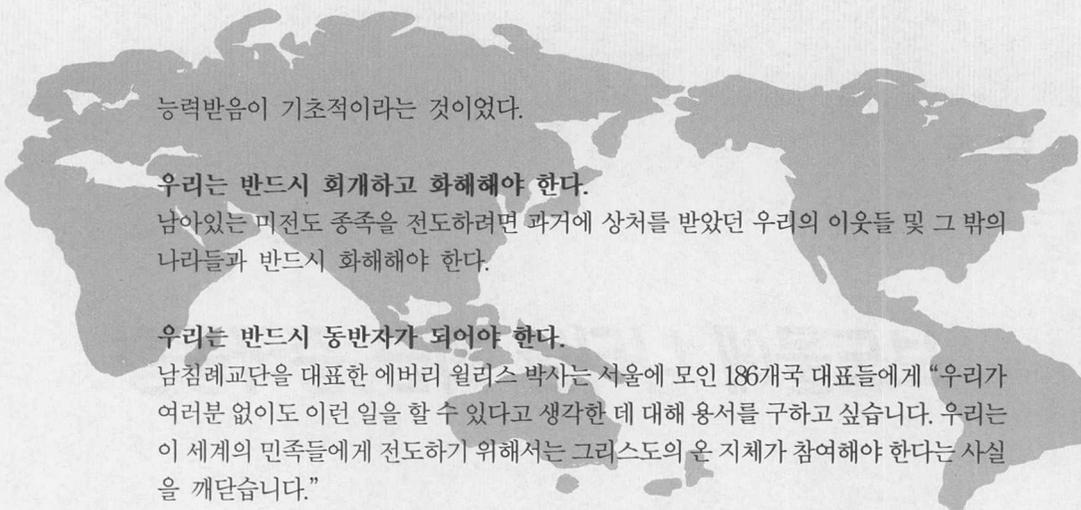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이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임무의 상당 부분은 이미 성취되었다.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서기 2000년이 되기까지는 전 세계 인구-모든 문화와 언어와 나라들에 속한 사람들의 95% 이상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쪽복음이나 문서배포, 라디오 방송과 오디오 레코딩, 영화 『예수』 또는 전도자의 단순한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접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의 가능성을 검사해 보아도 우리는 다시 한 번 그 임무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세계에 알려진 12,000개 인종, 언어학적 종족들 가운데 10,000개 종족들 내부에서 이미 교회 설립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범주를 볼 때 복음을 듣는 일과 복음에 반응하는 일은 지난 100년 동안 증가해 왔다. 지난 50년 동안에는 더욱 증가해 왔으며 지난 10년 동안에는 가장 극적으로 증가해 왔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의 확신-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수 1:3) 라고 약속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언어들로부터 나와서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이라”고 외치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을 믿는다. 이것은 보장된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씌여 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의 주된 기초석은 무엇인가?

GCOWE '95에 모인 186개국의 4,000여 기독교 지도자들이 서로 배운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일에는 기도와 화해 및 동반자 의식이 기초적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동원하려는 책임을 지고 부름을 입은 우리에게 그와 아울러 동정적인 섬김의식과



능력받음이 기초적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화해해야 한다.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려면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우리의 이웃들 및 그 밖의 나라들과 반드시 화해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남침례교단을 대표한 에버리 윌리스 박사는 서울에 모인 186개국 대표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없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데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민족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온 지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엄청난 인간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최소 복음화 민족들이나 도시들을 섬기려면 ‘물 한 잔’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말과 아울러 사랑과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의 목표: 성취의 순위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최소한 세계 각국의 일만 명이 넘는 종족, 언어민족마다 한 개의 개척교회를 설립하는 것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의 목표들을 성취하는 단계들

제 1단계/ 최우선적 교회개척 요망 민족 파악.

선교 연구자들이 미전도 종족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제 2단계/ 세계 각 지역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과의 협력.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선교사들이 성공의 열쇠이다.

제 3단계/ 88현장 조사 및 교회개척 방법 준비.

협력적인 노력으로 민족들이 전도를 받고 복음화될 것이 확실하다.

제 4단계/ 민족 개요 작성 및 교회입양 촉진.

이들 각 민족이 개요를 갖게 되고 교회에 입양될 것이다.

제 5단계/ 최소 복음화 종족들을 위한 기도.

1997년의 제 3창문(Window 3)까지 기도함으로써 이 민족들에 팀이 보내질 것이다.

제 6단계/ 이들 각 민족들에 교회를 개척함.

교회가 없는 민족에 교회개척팀이 파송될 것이다.

제 7단계/ 자신의 역할 발견.

이 목표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한·중 관계

잉커우(營口)에 한국전용공단 조성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선양(瀋陽)과 파리엔(大連)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잉커우에 한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전용공단이 15만 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동아일보 10. 4)

대북 우호관계 불변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북한간의 우의를 부단히 다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확고불변한 장기적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10. 9)

조선족, 한국 밀항 급증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한국 밀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95년 올들어 현재까지 인천·부산항 등을 통해 우리나라로 밀입국 하려다 붙잡힌 조선족들은 모두 15차례에 333명으로 '94 한해 동안의 95명보다도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10. 27)

창춘(長春)시에 '남대문 한국촌' 조성

한국의 (주)고산업(회장 최길수)과 중국의 창춘시 남관구는 서울 남대문 시장의 5배 규모인 '장춘 남대문 한국촌 유한공사'를 합작으로 설립, '96년 10월까지 창춘시 15만㎡ 부지에 도·소매상가, 제조공장,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조선일보 10. 29)

중국 내 한국기업 불이익 사례 조사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중국의 외국인 차별정책으로 인해 받고 있는 금융 및 세제상의 불공정 사례를 수집, '96년 4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경제차관회의에서 중국정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11. 12)

중국 국가주석 첫 방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김영삼 대통령의 초청으로 4박 5일 간의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으로 향했다.

북 나진·선봉 관광 허용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중국 4대 기업 가운데 하나인 중달집단공사(中達集團公司)와 내년 3월부터 남한주민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을 상대로 나진·선봉지구 관광을 실시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11. 21)

북한, 장쩌민 주석 방문 거절

북한이 중국 장쩌민 주석의 북한방문 제의를 거절, 중국을 격분시켰다고 홍콩에서 발행된 파이스턴 이코노믹리뷰 최신호가 보도했다.

한편 베이징 관계자들은 "장 주석의 북한방문은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와 중국 방문뒤 추진될 것"이라고 말해 이 잡지의 보도를 사실상 부인했다. (중앙일보 11. 23)



정치

장쩌민, 당·정 비밀감시기구 설치

중국 공산당 장쩌민 총서기는 덩샤오핑 사후에 대비하고 당·정 고위간부들의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조사하기 위해 고위 비밀감시기구를 최근 설치했는데, 이 같은 조치는 덩사후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일보 10. 16)

양안 정상회담 일축

중국은 17일 대만이 “분리주의적인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양안 정상회담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앞서 장쩌민 주석은 9월 23일자 미국 주간지와의 회견에서 언제든지 타이베이(臺北)를 방문할 의향이 있으며 리덩후이(李登輝) 대만총통의 베이징 방문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10. 18)

차기 지도자 선발중

중국의 장쩌민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중국을 21세기로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들이 될 젊은 후보들을 비밀리에 선발중이며 이들중 상당수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사이의 인물들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10. 21)

탈세범 최고 사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상무위원회는 부가가치세(VAT) 관련 사기행위로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탈세범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조선일보 10. 31)

공안요원 15만 증원

중국 공산당은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안·사법·감찰·감독 부문의 관리 정원을 '95년 안으로 15만명 늘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94년 말에도 공안·사법·감찰·감독 부문에서 13만 명의 정원이 늘어났는데 불과 1년 만에 모두 28만 명이 늘어난 것은 정치·사회적 안정과 치안질서 확



립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10. 31)

독일 군사협력 재개

중국 외교부 천귀팡(沈國方) 대변인은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리핑 총리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며 이 기간 중 경제협력증진과 국제문제 외에도 친진 군사기지를 시찰하고 '89년 천안문사태후 거의 단절됐던 양국간 군사협력 재개도 협의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1. 3)

'반부패뇌물총국' 신설

중국 공산당은 10일 최고인민검찰원 내에 '반부패뇌물총국'을 신설, 중앙정부의 청·국장급 이상 관리들과 지방의 성장급 관리들의 부패와 뇌물수수 등 경제범죄들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조선일보 11. 11)

금용부정 72명 재판회부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인민공화국 건국후 최대 금용부정사건인 장쑤성(江蘇省) 우시(無錫市) 자금 불법 조성 사건 수사를 완료, 인민폐 32억1천7백만원(한화 약 3천억원)이 불법 조성된 것을 밝혀내는 한편, 당원 44명을 포함한 72명을 자금 불법 조성, 돈세탁, 직권남용, 뇌물수수, 투기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조선일보 11. 12)

차기총리 리강칭(李嵐清) 유력

중국의 차기 국무원 총리에 현 부총리이자 경제와 무역전문가인 리강칭(63, 당 정치국원)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리강칭은 정치적 색채가 가장 적고 업무능력도 인정받아 현재 모든 계파들에 의해 가장 논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차기 총리 선두주자로 간주돼 왔던 주룽지(朱鎔基) 부총리는 업무능력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덩샤오핑이 발탁해 키운 인물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문화일보 11. 20)

경제

해저터널 건설(요동~산둥반도)

중국은 발해를 사이로 요동반도와 산둥반도를 연결하는 2개 해저터널을 건설할 계획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요동반도의 따리엔(人連)과 산둥반도의 옌타이(烟臺)를 연결하는 철도용 터널 △요동반도의 뤼순(旅順)과 연대 인근의 평라이(蓬萊)를 연결하는 터널(일부구간은 교량)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대역사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의 공업지대인 동북지방과 산둥반도의 거리는 1천 7백km로부터 불과 1백 70km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경향신문 10. 5)

상반기중 위폐사건 2,600건 적발

중국 공안당국은 '95년 6월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위폐법에 대한 형량을 중신형에서 사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95년 상반기에만 2천6백여 건, 8천4백만 원(한화 약 84억원) 규모의 위조지폐단을 적발하는 등 위폐사건이 점점 추세를 있다.

(조선일보 10. 17)

영화수입 정부독점 폐지

중국이 재정 과탄 상태인 영화산업을 구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외국영화수입에 대한 국가독점을 폐지하고 중국의 3대 영화제작사인 베이징, 상하이, 창춘 스튜디오에 올해 중으로 외국영화 수입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10. 17)

동부, 가뭄 흉년 전망

중국 중부와 동부지방에 가뭄이 지속돼 4개 성의 쌀과 면화의 수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여름 시작된 가뭄으로 이 지역 주민 2백만 명이 식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축 88만 두가 역시 마실 물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일보 10. 27)

새 외환규정 마련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모

든 국민이나 기업이 외환수입을 국가의 환관리국으로 직접 보고하는 내용의 새 외환 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조선일보 11. 6)

농민에 새 토지임대제 실시 계획

중국은 다음 세기의 식량 자급자족을 대비해 농민에게 토지임대제를 실시하는 한편, 농업에 대한 외국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조선일보 11. 6)

외환보유액 700억 달러 넘어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7백억 달러를 넘어 독일과 미국의 외환보유액에 육박하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밝혔다.

(경향신문 11. 12)

『제9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 확정

중국은 최근 『제9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9·5계획: 1996~2000)』을 확정했다.

이 '9·5계획'은 중국의 지속적인 개혁과 경제 개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수송부문에 도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영기법을 도입하며 ▶해외금융기관 및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중앙일보 11. 20)

수입관세 58% 인하 방침

중국정부는 내년부터 97년까지 2년 만에 수입관세를 무려 58.2%나 인하하는 사상 최대의 무역 개방조치를 단행한다고 경제담당 주룽지 부총리가 밝혔다.

(중앙일보 11. 22)

강력한 위엔(元)화 추구 계획

중국은 내년에 위엔화의 환율을 달러당 8.3~8.5위엔 범위 내에서 거래되도록 해 위엔화의 가치를 안정되고 강력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11. 25)

사회

경제성장만큼 정신질환 늘어

중국의 급속한 사회·경제발전은 정신질환자의 증가를 유발해 정신분열증과 우울증, 알코올중독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중국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1천4백여만 명으로 지난 82년의 인구 1천 명당 10.5명에서 92년 11.7명으로 늘었다.

(한겨레신문 10. 13)

국립병원서 '돌팔이' 채용

최근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시의 6개 국립병원에서, 악화되고 있는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가짜 의대 학위증을 가진 떠돌이 및 농부 등 25명과 협력계약을 맺은 뒤 이들의 사기 의료행위를 광고까지 했다. 이들 가운데 '용한' 돌팔이 2명은 10개월 동안 2백여 환자를 돌보았다고.

(경향신문 10. 14)

손님으로부터 받은 지폐가 진짜인지 자세히 들여다 보는 상점 직원.



광둥성, 임신부 홍콩유출 방지 검문강화

중국 광둥성 당국은 신생아에게 홍콩 시민권을 얻게 해주기 위해 홍콩으로 빠져나가는 임신부들의 대량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감시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조선일보 10. 20)

교통사고 사망자 전세계의 7분의 1

중국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전세계의 2%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세계의 7분의 1에 해당한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특히 농촌지역에서 운전기사들이 승객을 더 태워 돈을 벌려는 초만원 차량의 탓이며, 또 하나의 요인은 중국의 인구가 세계의 20% 이상인데도 도로의 총연장은 전세계의 5%인 1백10만km에 불과한 도로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10. 24)

양약남용으로 한해 10만 명 사망

중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수입양약을 잘못 복용, 한 해에 250만 명이 약화사고로 입원하고 있으며 이 중 1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조선일보 10. 25)

중국 에이즈 감염자 10만 명

중국에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사람들이 약 10만 명에 달한다.

(동아일보 10. 31)

21세기 환경보호 계획 마련

중국정부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1천개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인민폐 1천5백억 원(한화 약 15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2010년까지의 장기 환경보호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조선일보 11. 2)

7월 1일 40.33%, 90년 7월 1일 39.5%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두만강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 엔지(延吉), 룡징(龍井), 훈춘(珲春)등지에 약 2백만 명 가량의 외부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엔벤의 조선족 구성비율은 20% 수준으로 급락하게 된다.

(조선일보 11. 7)

석달새 백여 명 사망

중국 광둥(廣東)성 중서부 야오구 금광에서 시안화나트륨 등 유독성 화학물질의 누출로 최소한 1백여 명의 광부와 주민이 사망했고 당국의 소개령에 따라 주민 1만 5백여 명 이상이 이주하는 사상 최악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동아일보 11. 8)

중국에 백만장자 1백만 명 넘어

중국에는 100만 명이 넘는 백만장자가 있는 반면 국민자도 7,000만 명에 달한다.

공식통계에 의하면 대부분 농부들이던 국민자들은 연간 수입이 3백 위엔(약 3만원)도 채 안되나 12억 인구 가운데 상위 2%(100만 명)는 개인재산이 1백만 위엔(약 1억 원)에 달하며 도시 거주자 개인저축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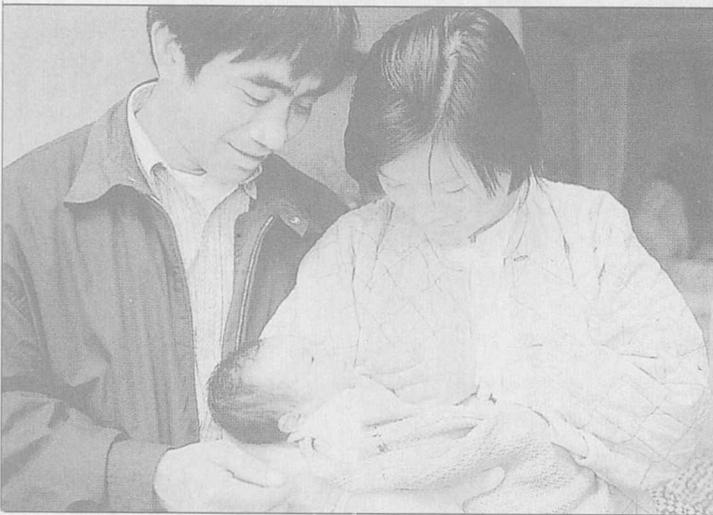
(중앙일보 11. 20)

호화저택과의 전쟁 돌입

중국에 반부패운동의 세 번째 물결이 밀어닥치며 울들어 시작된 공금을 이용한 연회금지, 신분에 맞지 않는 호화 승용차 이용 불허 정책에 이어 이번엔 표준을 초과한 주택사용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단속이 시작된 표준초과 주택사용은 '큰 길가에 펼쳐 놓은 부패'로 손가락질당하며 직무가 박탈되는 중벌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 11. 21)



홍콩의 병원에서 아기를 분만한 중국(대륙)인 부부

저장성서 수만 명 농민폭동설

중국 동부 저장성(浙江省) 부양에서 수만 명의 농민들이 현지 관리들의 복권 관련 부정에 항의해 9일부터 폭동과 소요를 벌여 1백 명 이상의 농민들이 체포됐으며 10일부터 3일 간 계엄령이 내려졌다고.

(조선일보 10. 24)

엔벤(延邊) 조선족, 소수민족화 추세

조선족 집거지구인 엔벤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조선족이 점차 소수민족으로 전락, 현지 교포들 사이에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85만 명선인 엔벤지역의 조선족 인구비율은 '53년 7월 1일 당시 60.17%였으나, '64년 7월 1일에는 48.13%, '82년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중국의 이런일 저런일

1994. 11 ~ 1995. 11

1995년중에 중국에서 일어난 주요사건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중국대사기>를 엮었습니다. 국내 주요 일간지와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종교



중국성경 1천만 권을 출간한 난징의 애덕인쇄소.

1994. 11. 29

중국 최초의 종교연구기관인 푸지엔(福建)성에 종교연구회가 설립되었다.

1994. 12. 25

중국기독교협회는 한원자오(韓文藻) 박사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1994. 12. 31

중국기독교협회가 북경에서 중국기독교협회와 삼자애국운동 상치위원회를 갖고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의 삼자원칙을 재천명했다.

1995. 1

난징(南京)의 금릉협화신학원(金陵協和神學院)이 홍콩 루터신학원과의 교류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3명의 중국 교회 지도자를 홍콩 루터신학원에 파견하여 2년 간의 신학 연수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1995. 2

중국 국무원 종교사무국이 베이징에 “종교문화출판사(宗教文化出版社)”를 설립했다. 이 출판사는 종교 정책, 종교학 이론 및 종교문화연구 관련 서적과 각 종교의 경전, 교리 등을 출간하게 된다.

1995. 2. 25

제2회 한·중 교회협의회가 한국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렸다.

1995. 4. 16

부활절을 맞아 베이징의 천주교 「남당(南堂)」이 폐쇄된 지 45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1995. 5. 23

베이징에서 “우호, 협력, 평화”를 주제로 중(中), 한(韓), 일(日) 불교연합회가 개최되었다.

1995. 7. 25

난징의 애덕인쇄소(APP)가 성서출판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1천만 부 출간을 기록했다.

1995. 8. 12

한국과 중국 목회자들이 광복50주년을 기념해 베이징에서 “한·중 교회협력세미나”를 개최했다.

1995. 8.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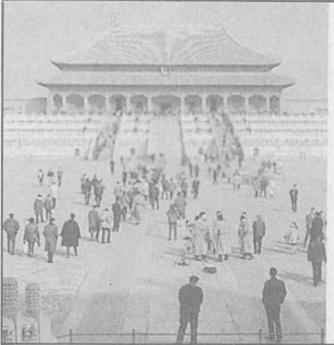
천주교, 도교, 불교, 회교, 기독교 등 중국의 각 종교단체가 반파시스트전쟁과 항일전쟁 승리 50주년

을 기념하여 전국 각지의 종교활동장소에서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를 수일간 거행하였다.

한·중 관계

1994. 12. 13

한·중 양국이 수교이후 베이징에서 최초로 한국이 중국에 정부차관 4,3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는 정부차관협정에 서명했다.



1994. 12. 22

아시아나항공이 베이징 노선에 취항하였다. 이로써 한·중 5개 항공노선 정기편이 본격 운항을 시작했다.

1995. 3. 12

리펑(李鵬) 국무원 총리와 김영삼 대통령이 코펜하겐에서 회담을 가졌다. 리펑 총리는 국제연합인권회의의 대중국 결의안에 한국이 기권한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안정에 대한 중국 측의 희망을 밝혔다.

1995. 5. 9~5. 15

한국의 이홍구 국무총리가 리펑 국무원 총리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1995. 5. 22

한국인 골동품 매매상 한 명이 베이징 시내에서 피살되었다.

1995. 7. 9

중국 연변(延邊)에서 선교활동 중이던 안승운 목사가 연지(延吉) 시내에서 납북되었다.

1995. 7. 19

한국과 중국은 매년 10명 이내의 정부 초청 장학생을 상호교환하고, 이들에게 장학금 및 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1995. 8. 23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영사국장 회담에서 중국은 연변지역의 한국인 여행객 급증 등 인적교류 확대에 따라 한국 정부가 요구한 선양(深陽) 총영사관 개설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표명했다.

1995. 9. 20

한국인 입국자의 증가율이 올 상반기동안 중국을 찾은 해외여행객 중 1위를 기록했다.

1995. 10. 6

장쩌민 국가주석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개최한 조선노동당 창설 50주년에 참석하였다. 장 주석은 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확고한 장기적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5. 11. 13~11. 17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김영삼 대통령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하였다.

정치

1995. 3. 1

대만은 중국 본토 관리들의 대만 방문을 허용하고 외국선박의 대만-중국 간 직항금지를 해제하는 등 중국과의 접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발표했다.

1995. 3. 11

미국과 중국은 미국산 영화, 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대량 불법복제를 중단시키기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1995. 4. 10

천원(陳云)이 북경에서 지병으로 90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1995. 4. 13

리펑 국무원 총리는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국제경제 포럼 1995년 회의」의 일부 참석자들을 접견하고, 덩샤오핑을 핵심으로 하는 제2세대 중앙 영도 집단으로부터 장저민을 핵심으로 하는 제3세대 중앙 영도 집단으로의 이양은 이미 순조롭게 양도되었다고 말했다.

1995. 4. 22~4. 26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에서 소수민족인 위구르인과 카자흐인 5만 명 이상이 독립시위·폭동을 벌여 88명이

사망하고 3백여 명이 부상당했다.

1995. 6. 7

리덩후이 총통이 대만 총통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

1995. 7. 16

국가 행정 기관에서 사직·사퇴 제도를 정식으로 실행하는 「국가공무원 사직·사퇴 잠정 규정」을 공포하기로 했다.

1995. 7. 12

WTO는 중국을 옵저버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1995. 7. 21~7. 26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 북부 해역에서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1995. 7. 26

장개석 미망인 송메이링(宋美齡) 여사가 미 의회를 방문, 간단한 연설을 하였다.

1995. 8. 17

중국이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중국이 핵실험 전면 금지 조약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조약이 일단 발효되면 핵실험을 중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95. 8. 24

간첩혐의로 기소되었던 중국계 미국인인 우홍다(吳弘達:미국명 해리 우)가 유기징역 15년을 언도받고 국외추방되었다.

1995. 9. 1

티베트 라사에서 서장자치구 성립 30주년을 경축하는 집회가 3만여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1995. 9. 4~1995. 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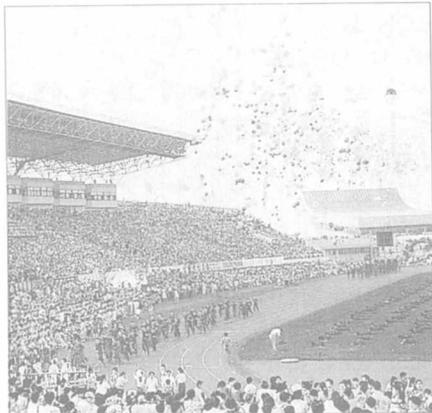
국제연합 제4차 세계여성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1995. 9. 18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된 홍콩 입법평의회 의원선거에서 친중국계가 참패했다.

1995. 9. 25~9. 28

중국공산당 제14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中全會)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96년부터 실시되는 9·5계획을 확정하고, 장기적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되는 10년 계획을 9·5계획과 연관시켜 향후 15년 동안의 경제발전방향인 「15년 장기발전건의안」으로 통



과시했다.

1995. 10. 30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는 탈세범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경제

1995. 3. 2

중국의 평균 임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33.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995. 3. 31

중국에 특허제도가 전면적으로 수립되었다.

1995. 4. 24

중국의 농촌 빈곤인구는 1992년의 8,000만 명에서 7,000만 명으로 1,000만 명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지역의 빈곤탈피가 가장 빨라 총 빈곤탈피자의 40%를 점하였고, 중부지역이 38%를 차지하였다.



1995. 6. 7

국무원은 금년부터 매년 1,000만 이상의 빈곤인구의 의식(衣食)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속도로 부빈(扶貧)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995. 6. 22

중국의 금년 1~5월 중 식량수입은 4백 68만 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70.4%나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1995. 8. 10

우전부(郵電部)와 중국인민은행은 공동으로 내년 9월까지 전국적인 금융 데이터통신망을 건설하여 개통시키기로 최근 협정을 체결하였다.

1995. 9. 29

태평양 경제협력 위원회 제 11차 대회가 3일 간의 회의를 마치고 북경에서 폐막되었다. 이사회의 22개 구성

국가와 지역의 책임자들은 아시아-태평양 경제의 전지구적 경제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창도하는 「북경성명」에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사회

1994. 10. 28

베이징시 인민위원회는 '94년 11월 1일부터 시내에 상주하는 외지인에 대해 1인당 1만~10만 위엔(한화 1백~1천만 원)씩 '용납비(容納費)'라는 일종의 인두세를 물릴 것을 결정했다.

1994. 11. 1

중국은 유치원 과정을 공식교육에 편입하기 위해 취학연령을 현재의 6세에서 3세로 앞당기고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등 획기적인 교육개혁안을 최근 마련했다.

1994. 11. 29

공안부와 노동부, 외교부는 최근 합동으로 「중국 내 외국인의 불법취업 규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각급 인민정부는 외국인의 취업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1994. 12. 4

중국의 위성통신망이 전국을 커버하게 되었다. 8,000회선에 달하는 국제통신 선로가 개통되어 48개 국가 및 지역과는 직통으로, 190여 개 국가 및 지역과는 간접적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4. 12. 21

국가교육위원회는 최근 학생을 통한 모금에 의한 학교 운영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1995. 1. 4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광둥(廣東), 푸지엔(福建), 산둥(山東), 저지양(浙江), 꾸이저우(貴州) 등 7개 성과 시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1개 성과 시에서 실시 방안을 심사하고 있다. 1995년 1월 1일부로 『노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저임금제도는 법제화의 궤도에 들어서,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없는 기업과 경영자는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된다.

1995. 1. 8

전국 최초의 고교 졸업생 취업시장이 상하이에서 개장되었다.

1995. 2. 14

인민대회당에서 「12억 인구의 날 대회」가 거행되었다.

1995. 3. 26

북경의 장거리 전화 구역번호가 “1”에서 “10”(중국 내에서는 “010”)으로 변경되었다.

1995. 3. 31

허난(河南)성 중부에 있는 평딩산(平頂山)의 한 탄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 40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1995. 5. 1

중국은 “노동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의 1주 기준 노동시간인 44시간을 40시간으로 조정하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했다.

1995. 5. 16

광둥성 12개 도시에서 마약 사범 51명이 집단 처형됐다.

1995. 6. 26

12개 성 “보구(普九)”공작회의 소식에 따르면, 9년 의무교육을 기본적으로 보급한다는 목표를 금세기 말까지 실현하기 위해 중앙은 원래 매년 2억 위엔이던 특별자금을 금년에 2억 위엔 증액하고, 아울러 해마다 증가시켜 3년 내에 매년 10억 위엔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1995. 7. 1

외국인과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에게 적용되는 국내선 항공편 공시 운임을 인상하였다.

1995. 7. 9

중국의 유동인구는 약 8,000만 명을 헤아리고, 이 가운데 공간기관에 등록된 임시거주 인구는 4,400만 명이다. 1995. 7. 12



중국 남부 후난(湖南)성을 휩쓴 40년 이래 최악의 홍수로 403명이 사망하고 5백27명이 실종됐다. 7월 4일까지의 집계에 의하면 6월 말부터 계속된 홍수로 후난성을 비롯한 중국 10개 성에서 총 1천1백79명의 사망자를 내고 60만 명의 이재민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995. 7. 25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 남부에 폭우가 쏟아져 랴오허(遼河) 분류와 송화강(松花江) 상류에 최근 대홍수가 발생했으며 윈허(淸河)에는 금세기 이래 최대 홍수가 발생하였다.

1995. 8. 31

태풍 켄트가 홍콩과 중국 남부 광둥성을 강타해 산사태

등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했다.

1995. 11. 8

광둥성 중서부 야오구 금광에서 시안화나트륨 등 유독성 화학물질의 누출로 최소한 1백여 명의 광부와 주민이 사망했고, 주민 1만 5백여 명 이상이 이주했다.

초기 한국 교회의 중국 산동선교 역사

-선교 정책을 중심으로-

초기 한국 교회의 해외선교는
1913년 중국 산동선교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선교역사 80여 년, 총체적 선교라는 세계선교의 흐름을 타고,
특히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선교국으로서
한국 교회는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과거 산동에서 시작된
선교 역사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선교, 특히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선교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 제: 초기 한국 교회의 중국 산동선교 역사
-선교 정책을 중심으로-

일 시: 1996년 2월 26일(월) 오후 7시~9시

강 사: 김교철 선교사(중국선교연구협회 상임총무, 연구원)

장 소: 이수성결교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 편)

대 상: 중국선교 관심자

참가비: 없음

문 의: Tel. 533-5497 592-0132 Fax. 599-2786

주 최: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선교 적응훈련

제 8 기 훈련생 모집

선교현장에 임하기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함은 선교사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실하게 중국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입니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투자하는 6개월은 결코 많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상

- 교회,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 선교사.
-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 선교사.

참가인원 : 10명 내외.

선 발 : 본 훈련원의 훈련생 선발기준에 의함.

본 훈련원의 과정을 수료하면

-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적응 능력 배양.
- 생활중국어와 선교 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 중국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 구체화.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96년 1월 3일~1월 31일

원서 접수 순서대로 면접하여 합격예정자를 결정, 개인 통보하고 훈련원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등록한 순서에 따라 합격 인원을 확정함.

-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1통
 서약서(소정양식) - 1통
 추천서(소정양식) - 3통
 자기 소개서 - 1통

원서대금 및 접수비 : 원서대금 1,000원, 접수비 10,000원

개강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96년 3월 2일(토), 오후 1시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훈련내용

언어(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중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며 집중적인 언어훈련을 통해 생활중국어는 물론 성경, 전도, 찬양 등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함.

교육내용

전반(7주)/ 초급중국어1·2, 선교중국어 기본어휘, 사도신경, 주기도문, 회화(일반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후반(7주)/ 중국어성경, 회화(일반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신앙독본, 중국어 특강, 청력 훈련



연구

중국문화 및 선교 연구세미나

매주 전문가들의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중국문화와 중국선교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임.

세미나 주제

중국문화개관, 중국고대사상, 중국공산주의 연구, 중국교회 현황과 선교전략 연구, 중국기독교사, 중국 타종교 이해 1·2, 최근 정세변화에 따른 선교대책, 근대 중국선교사와 선교방법론, 전문인선교, 한국에 있는 중국인 노동자선교, 산동선교의 경험과 교훈, 중국 정치인물론, 중국선교사역에 임하는 자세, 조선족 현황,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협력 방안, 중국 선교에 있어서의 문서사역

합숙

중국어 공동체 훈련

1회에 걸친 합숙훈련을 통해 강도높은 언어실습, 공동체 섬김 및 문화 충격에 대한 적응능력 배양.

현지 연수과정 및 답사

언어실습, 문화적응, 선교비전의 확인을 위하여 96년 6월 중에 7주간에 걸쳐서 현지연수(6주) 및 답사(1주)를 실시.

훈련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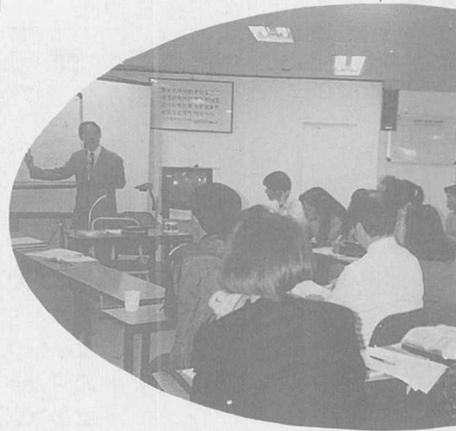
1996년 3월 2일~1996년 8월 31일(6개월)

일 시

매주 월요일~금요일.

-월(오후 1시~5시 20분)

-화·수·목·금(오전 8시~12시 20분)



문의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 - 7

신우빌딩 402호 우137-069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담당:장희락 총무)

TEL:594-8038, 535-4255, FAX : 599 - 2786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선교훈련원(원장:박성주 장로)은 중국선교를 위한 언어 훈련과 중국문화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9 기 훈련은 96년 9월에 개강합니다

서고도서
L

안내
L

중국서고 소재자 시리즈

- | | |
|--------------------------------|--------|
| 1.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조나단 차오 著 | 1,500원 |
| 2.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中文聖經信譯會 著 | 1,500원 |
| 3. 만남/ 中國教會中心 著 | 2,000원 |
| 4. 전도중국어/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譯 | 1,500원 |

교재

- | | |
|---|---------|
|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1,000원) | 2,000원 |
| 2. 經文背誦
(Tape:1,000원) | 1,500원 |
| 3. 神愛世人
(Tape:1,000원) | 2,000원 |
| 4. 我的第一本聖經
(Tape:1,000원) | 2,500원 |
| 5. 사복음서(現代中文譯本) 낭독 Tape:12개 | 12,000원 |
| 6. 信仰讀本
(Tape 2개:2,000원) | 7,000원 |
| 7. 中國語신약성경(和合本/한어병음 표기)
(Tape 25개:20,000원) | 10,000원 |
| 8. 中·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60구절:네비게이트 출판사) | 700원 |

*** 위의 7번 교재는 품질관계로 당분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담당 : 김바울 간사 (전화: 592-0132)



중국

장기유학/어학연수/여행은
신주기획으로 문의하십시오
수년간 쌓아온 믿음, 풍부한 노하우는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실현시켜 드립니다

■ 어학연수(1개월, 2개월, 6개월, 1년)

■ 대학과정 신·편입학

■ 대학원과정 석·박사

■ 여권

■ 중국비자

■ 비행기배 예약

신주기획(神州企劃)

서울 서초구 서초 1동 1623-5

137-071

TEL: 02) 522-1868, 585-1869

FAX: 585-1869

중국어 연수·본과 유학생 모집



● 중국 최적의 표준어 지역
 ● 한국의 고려대학교·한양대학교와 자매결연
 ● 53개의 전공학부에 29개의 박사과정
 ● 중국 동북 최대의 종합대학 중 하나

- 모집기간: 수시접수(매년 3월, 9월 학기시작 두 달전까지)
- 지 격: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학력 소유자 이상
- 비 용: 중국어연수과정 \$1,500, 학사과정 \$2,000, 석사과정 \$3,000, 박사과정 \$4,000
- 특 징
 1. 최적의 표준어 지역- 하얼빈은 중국에서 가장 표준어를 구사하는 지역이다.
 2. 저렴한 물가- 일년에 400만원 정도면 중국어 연수 및 생활 가능
 3. 정기여행- 월별, 학기별로 학생들이 관광, 학습하기 원하는 지역을 학교버스와 전국대학 네트워크를 통해 여행
 4. 다양한 커리큘럼- 학생의 요구에 따라 서예, 요리, 무술, 체육 등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5. 본과에 입학할 경우 자기의 수준에 맞는 학년 선택 가능
 6. 우주공학계열, 수학기열, 기계공학계열 등의 학과 세계적 수준
 7. 경영학계열과 어문계열이 있음
 8. 다른 어떤 대학보다 간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유학수속 가능
- 문 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562-5839

哈爾濱工業大學

유학생 유치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2-24 영재빌딩 401호 TEL(O2)562-5839

중국을 주제로 111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1996년 1·2월호(통권37호)

발행처/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 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집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차이나·권수영
 이민선·김현주·김은희
 편집디자인/ 정광숙
 광고·홍보/ 김정하·이준석·김도연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5년 12월 10일
 인쇄처/ 신구인쇄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전화: 637-4163

값/ 3,5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훈련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594-8038, 535-4255
 팩스: 599-2786

출판, 연구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전화: 533-5497, 592-0132
 팩스: 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309호
 전화: 032)872-0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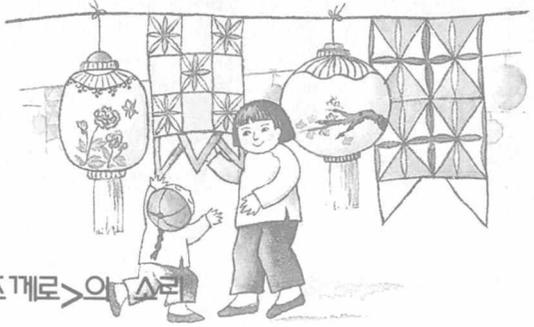
선교국(사랑의 집)
 서울시 관악구 신림10동 306-67
 전화: 873-2570, 889-1585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리안 ID / Sinim

Tel. 533-5497, 592-0132
 Fax. 599-2786



<작가님 주께로> 아스카

'96년 새해에는 뭔가 달라져야 할텐데...'

37호<중국을 주께로>를 만들면서 계속된 고민입니다.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올바른 중국선교를 계도하는, 중국에 대한 매력을 이끌어 내는 뭔가 쏠쏠하고(?) 생생한 글들을 실어보고 싶다는 욕심, 다시 말해 중국선교를 하겠다는 사람 모두에게 즐거이 읽히는 잡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바람이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나쁜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이런 부담은 더해갑니다. 모 지역에 단기선교하러 간 이들에 의해 현지의 처소교회가 발각되어 성도들이 붙잡히고, 어느 선교사는 추방당하고, 콘테인너로 실어간 성경과 책들을 다 빼앗기고... 모두 열심히 선교를 한다는 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중국선교에 정도(正道)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젠 감히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중국 교회를 더욱 이해하고 잘 알아야 한다는 것, 중국 교회와 성도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여야 한다는 것, 담대하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뱀같은 지혜로움으로 조심하는 선교여야 한다는 것...

<중국을 주께로>를 만들면서 남들보다 조금은 중국을 알게 될 기회가 많습니다. 중국을 알면 알수록, 중국에 대해 알리는 우리 책이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읽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더해갑니다.

<중국을 주께로>가 중국선교를 하려는 독자들을 정말 올바른 '정도'로 인도하는 잡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중국을 주께로> 역시 지나치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질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보다 실제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실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보안을 유지하는 데는 우리부터 앞장서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편집기자들은 모순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을 만드는 저희들이 지혜롭게 글을 만들어내고 엮을 수 있도록, 이 책이 올바른 중국선교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책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중국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에게도 멋진 한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을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외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01호)

137-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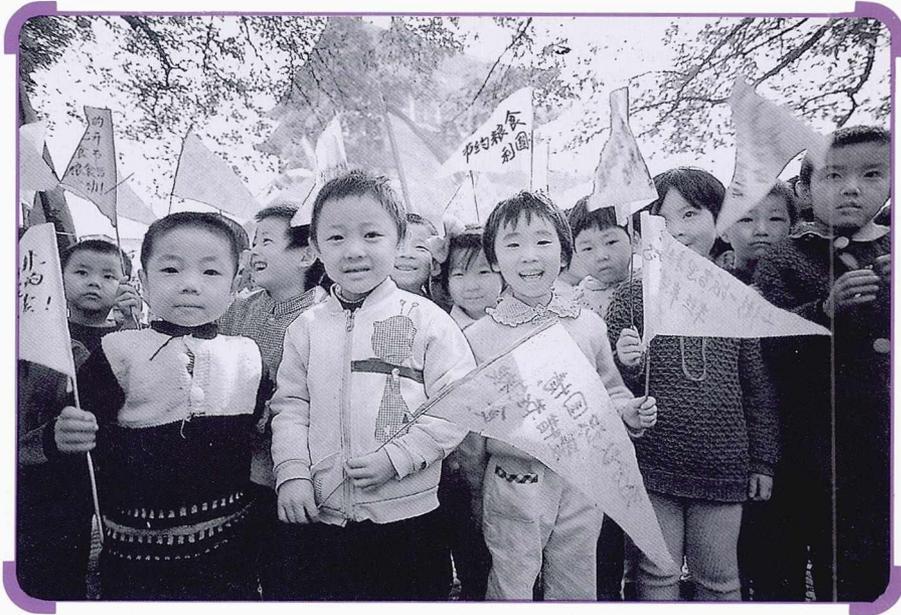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01호)

137-069



중국어문선교회는

1989년 10월 30일 중국학을 전공한 형제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초교파적, 복음적 선교단체로서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문사역이 한국교회의 효과적인 중국사역과
중국교회의 건실한 성장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402호)
전화 / 594-8038, 533-5497
팩스 / 599-2786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 송 의
메 아 리**

**별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만게 됐지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처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합니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까 함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청·방·법**

- ①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6·9·1
영 육 구 원
(서울 02) 320-0283, 0290
- ②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서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성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1·2·0·6·9·1
일 일 이 - 영 육 구 원

주님!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선교 사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